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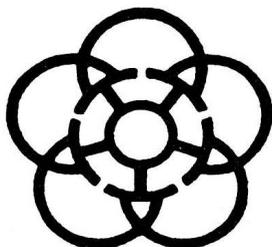
麟蹄文化

1994 第九輯

社團
法人 麟蹄文化院

麟 蹄 文 化

第 九 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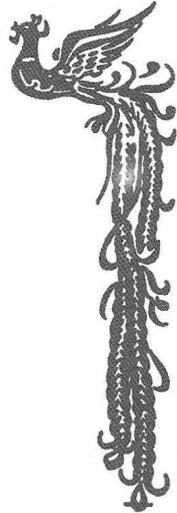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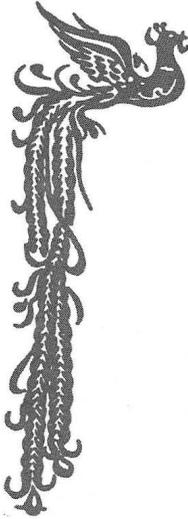


麟 蹄 文 化 院



南田 元植先生“學必求精”

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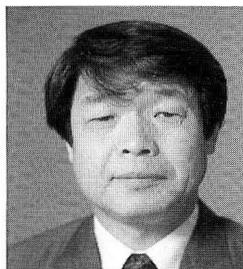


續

刊

향토극단운술피단장
 內麟文學同人會長
 내설악사진동우회장
 인제미술인회장
 향토민속보존회장
 麟蹄書藝人會長
 내설악수석회장

李 相 珏
 장 정 섭
 오 정 규
 정 박 해
 금 오 憲
 오 정 來
 오 정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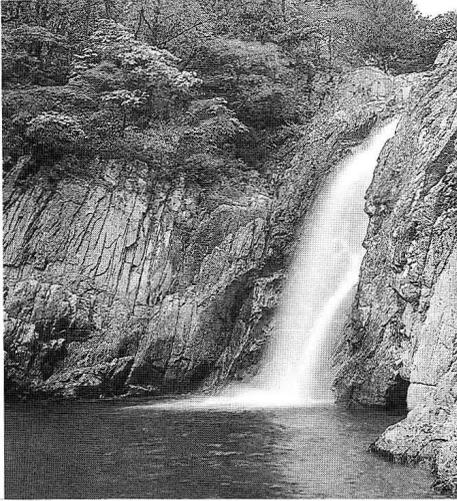
발 간 사

인제 문화원
원장 임 광 준

지나간 역사와 전통적 문화를 보호하며 기록으로 계승시키고 군민의 관심과 애정속에 함께 꾸며 나가는 향기있는 「인제문화」지가 제9집으로 또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대문화 예술의 다각적인 내용을 담아 문화지로서의 전문지로 그 매체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의 신경을 써 왔습니다. 산고의 진통이 끝나면 기쁨의 수확이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간 원고모집의 어려움, 집필의 어려움, 발간 인쇄비의 어려움 등 갈등과 절망과 원망을 이겨낸 끝에 이제나마 경험을 쌓고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을 뛰어넘는 문화지의 역량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이 고장의 대변지로서 「인제문화」지의 느낌이 고향을 찾는것 같고, 부모님을 만나는것 같고, 고향인과 출향인에게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관심있는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본 문화지의 발간에 귀한 옥고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년 편집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본원 사무국장 이만철 씨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 표지설명 ◇

오색단풍으로 질게 물들인
설악산의 가을!

□ 원 고 모 집 □

인제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인제문화는 군민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으로 꾸며지는 순수한 향토문화지입니다.

군민여러분과 출향 인사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 민요, 전설, 문화재, 유적에 관한 원고
- ◇충효사상 및 청소년 선도에 대한 고견
- ◇향토문화 발전에 관한 제언
- ◇시, 수필, 콩트, 단편소설, 만화등

■ 보내주실곳 : 인제문화원 (☎ 461-6678)



▲ 대보름 맞이 윷놀이 대회 (2월 24일, 인제읍 노인정)



▲ 마을 농악기 보급 (5개마을, 3월 19일 문화원)

||||||| '94 문화 사업 화보 |||||



▲ 향토사 고증 (6월 20일, 문화원)



▲ 문화유적지 순례 (5월 17일, 건녕사)



▲ 장수상 시상 6명 (5월 8일, 인제음 노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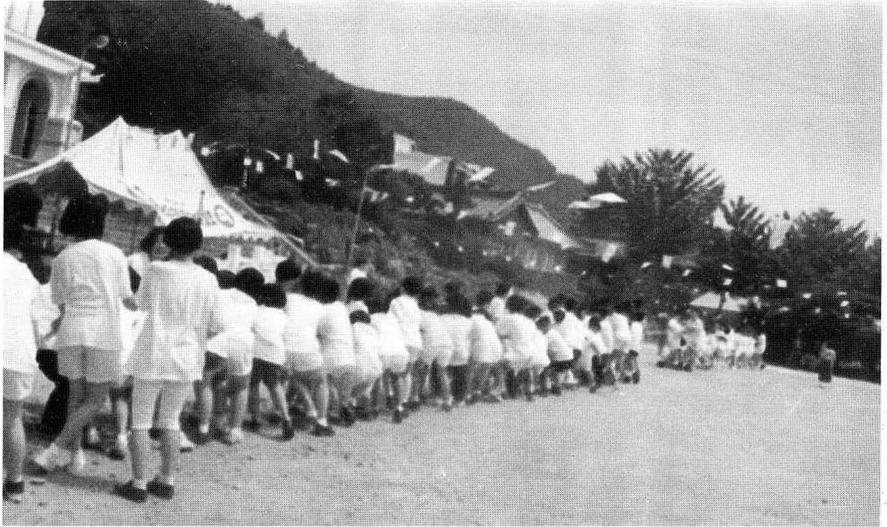
▲ 향토민속시료실 전시운영 (94년 년중 계속, 문화원 전시실)



▲ 단오절 그네 대회 (6월 13일, 인제읍 노인정)



▲ 단오절 짚신삼기 대회 (6월 13일, 인제읍 노인정)



▲ 단오절 줄다리기 대회 (6월 13일, 인제 천주교회)



▲ 단오절 씨름 대회 (6월 13일, 인제 중학교정)



▲ 단오절 농악놀이대회 (6월 13일, 인제읍 노인정)



▲ 단오절 게이트 볼 대회 (6월 13일, 인제읍 노인정)



▲ 서예교실 운영 (94년 년중 계속, 서예실)



▲ 풍물강습 교실 운영 (94년 년중 계속, 문화관)



▲ 수지침 강좌 교실 운영 (94년 년중 계속, 문화원)



▲ 제12회 합강 문화제 기념 백일장 (9월 9일, 아미산 공원)

『94 문화 사업 화보



▲ 제12회 합강 문화제 기념 사진 및 수석전 (9월 8일~10일, 문화관)



▲ 제12회 합강 문화제 기념 서예전 (9월 8일~10일, 문화관)

||||||| '94 문화 사업 화보 |||||



▲ 제12회 합강 문화제 기념 미술전 (9월 8일 ~ 10일, 문화관)



▲ 제12회 합강 문화제 기념 바둑대회 (9월 9일, 인재읍 사무소 회의실)



▲ 민속예술발굴 (다릿골무쇠 점간놀이경연, 9월 8일, 태백 공설운동장)



▲ 문화유적지 순례 (10월 13일, 한계산성)



▲ 문화 강좌 (11월 11일, 문화관)



▲ 효행상 시상 (2명, 11월 26일, 문화원)

目 次

● 발간사 / 임광준	5
● '94 문화 사업 화보	7

제 1 장 기고문

• 인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찰 / 우순태	27
• 합창음악이 주는 교훈 / 조미경	35
• 농촌을 생각하며 / 이기순	39
• 한국 전통 모범가정 / 송규돈	45
• 영아기의 전래 놀이 노래 / 이만철	49

특별기고	관직 해설 / 편집실		56
-------------	-------------------	--	----

제 2 장 향토사

우리고장 사찰 탐방 / 편집실

백담사	111
오세암	121
봉정암	125
백련 정사	131

우리고장 통과 의례 / 편집실

1. 출생의례	133
2. 관례	138
3. 혼례	140
4. 상례	145
5. 제례	147

우리고장 의·식·주 / 편집실

1. 의생활	148
2. 식생활	156
3. 주생활	160

우리고장 민요 / 서재철 선생님

1. 각설이 타령	166
2. 권주가	167
3. 그네 노래	168
4. 금강산 유람가	168

目 次

5. 기린면민가	169
6. 김매기 노래	170
7. 노랫가락	170
8. 담바구 타령	172
9. 뗏목 아리랑	173
10. 도라지 타령	175
11. 동 풍 가	176
12. 들병이 노래	177
13. 메나리 타령	177
14. 메뚜기 노래	178
15. 메밀 타령	178
16. 물레노래	179
17. 방구타령	179
18. 백담사 아리랑	179
19. 백발가	180
20. 뱃노래	187
21. 범벅타령	187
22. 베틀노래	189
23. 뽕따는 노래	189
24. 사랑가	190
25. 사친가	191
26. 산염불가	191
27. 산타령	191
28. 상여소리	192
29. 설악풍월	193
30. 성주풀이	194
31. 소몰이 노래	195
32. 숫자풀이 노래	195
33. 시집살이	196
34. 심마니 소리	196
35. 아라리	197

目 次

36. 아리랑	198
37. 어랑타령	199
38. 안택경	202
39. 애무요	202
40. 애정요	202
41. 어른리 민가	203
42. 인제아리랑	203
43. 인제찬가	204
44. 자리개질노래	204
45. 자장가	205
46. 장타령	205
47. 지경닷이기소리	206
48. 지명민요	207
49. 창부타령	208
50. 청춘가	211
51. 초한가	212
52. 풍년가	213
53. 표모가	214
54. 화투풀이	214
55. 회닷이 소리	215
우리고장 동요 / 편집실	
1. 고모네 집	221
2. 가위 바위 보	221
3. 고무줄 놀이	222
4. 꿩 꿩 장서방	222
5. 기러기	223
6. 꼬마야 꼬마야	223
7. 동요	223
8. 달아 달아	224
9. 들강 달강	225
10. 문답놀이	225

目 次

1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26
12. 새야 새야	226
13. 세살 달강	226
14. 숨박꼭질	227
15. 악손	227
16. 앞니 빠진 중강새	227
17. 어깨동무	228
18. 어디까지 갈래	228
19.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228
20. 연날리기 요(謠)	229
21. 오자미	229
22. 이거리 저거리	229
23. 잠자리 뽕뽕	230
우리 고장 방언 / 편집실	231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놀이 / 문화원	251

제 3 장 향토문예

詩

물 푸른 파도 / 한용운	265
고향집 / 한용운	266
버려진 草屋 / 한용운	267
落花 / 오정진	271
뼈꾸기 / 오정진	272
소승폭포 / 오정진	273
천국 / 오정진	274

향토예찬 글짓기 입상작품

고 등 부	금 상·봄날의 아침 / 이순분	276
	은 상·향토의 눈물 / 김환래	278
	동 상·우리 고장의 자랑 / 구미숙	280
	장려상·설악의 풍경 / 방인순	283
	장려상·우리 고장의 역사 / 용선미	285

目 次

중 등 부

금 상·사랑하는 마음을 준 상남마을 / 김정은	290
금 상·우리 고장의 명물 / 김영일	293
은 상·자연의 속삭임 / 이해복	295
은 상·우리 고장을 지키자 / 박효진	298
동 상·이런 곳이 인제입니다 / 박계순	300
동 상·살기 좋은 인제군 / 이희영	303
장려상·숨쉬는 공간 / 송지혜	306
장려상·천혜의 땅에 새봄도 왔다 / 문해용	309
장려상·우리 고장 / 김옥남	311

초 등 부

금 상·해와 함께 떠오르는 인제 / 이고운	316
금 상·우리의 자랑 인제군 상남면 / 오주영	319
은 상·아름다운 마을 한계리 / 김순영	322
은 상·공해없는 우리 고장 / 정인순	324
동 상·아름다운 우리 고장 / 최유진	325
동 상·아름다운 우리 고장 / 정지윤	328
장려상·살기좋은 우리 고장 / 이하나	330
장려상·아버지와 나의 고향 / 김영립	332
장려상·아름다운 우리 고장 / 한가을	334
장려상·살기좋은 우리 고장 / 공국성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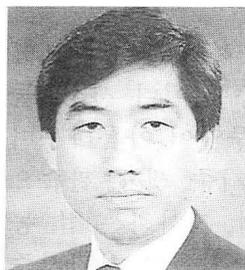
제 4 장 문화원 概觀

沿 革	341
역대원장	342
지방문화원진흥법	345
인제문화원 정관	353
인제문화원 임직원	364
인제문화원 회원 명단	365
94년도 문화 사업 추진 실적	368
95년도 문화 사업 계획	369

● 편집후기	370
--------------	-----

제 1 장

기 고 문



인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찰

인제성결교회
우 순 태 목사

- 약 력
- 서울신학대학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유네스코 청소년 활동지도자
 - Art Mission 대표
 - 인제 성결교회 담임

I. 들어가는 말

문화란 한 사회를 특정짓고 그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할 수 있는 특유한 행동양식과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문화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풍습,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능들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

문화가 보기에는 멀쩡한 공기와 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독을 끼치듯이 겉으로 명백히 들어나지 않는 특정한 문화에 수반된 ‘속성과 논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품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문화행위가 일상적이고 사소한 취향의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화의 의미를 오늘 우리 삶의 정황속에서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궁극적 의미에 대한 자기확신적 믿음 즉 신이나 사상, 둘째, 가치기준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우며 무엇이 규범적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 셋째, 관습으로서 행동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 장사하는 법, 농사짓는 법, 먹는법 등에 관한 학습. 넷째, 이러한 믿음과 가치기준 그리고 관습등을 드러내는 제도인 정부, 법원, 절이나 교회, 가족, 학교, 병원, 공장, 상점, 조합, 클럽등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말한다.

문화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동질감과 안정감을 그리고 그 사회에는 권위와 영속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문화의 총체성에서 오늘의 현대 문화를 바라보면 오늘날의 대중문화의 큰 문제중의 하나는 바로 현대인의 쾌락추구 행위를 무분별하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사회의 결속과 동질감, 안정감의 역할이 아니라 재미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의 기능 자체가 아니라 각 문화영역 자체를 가리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규범화되고 그것이 이윤추구라는 상업성에 의해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문화운동은 곧 너의 운동이 아니라 나의 운동이며 개념적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 운동으로서 문화, 그 자체의 범위 역시 예술이라는 작은 범위의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라는 의미에서의 '삶의 질'의 본질적 향상운동인 것이다.

본 글은 제한된 지면에 방대한 주제를 다룬 이유로 피상적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첫번 단원에서는 문화의 정의를 내리고 문화와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며, 둘째는 개발되어야 할 지역문화의 방향성을 다루었고 셋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마치

막으로 문화내용물 보다는 문화 활동을 담을 그릇인 지역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아쉬운 것은 문화축매운동을 위한 세부지침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개발관을 다루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

II. 지역문화 활성화의 방향

문화의 지역계획은 좁은 의미의 문화적 목표설정과 다른 문화 및 여가의 사회시설을 포용하려는 경향을 띠는데, 그것은 지역적 특징의 개발, 외래인의 왕래촉진, 또는 그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에 종속하게 되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지역주민들의 뚜렷한 소망을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를수록 문화와 여가의 상관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최근 우리는 '문화'라는 말에 매어달리고 있다. 경제적 발전만으로 온전한 사회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문화적 발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인식이 제고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지방문화의 활력화라는 단계로 까지 발전 되었다.

하지만 보다 문화적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우선 교양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누구든 문화생활을 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기와 수도와 또는 교통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있기만 하면 넓은 의미에서 우선 문화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내용물 들을 접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접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화 내용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기초소양을 또 다른 말로 교양이라고 표현한다.

사방에서 손쉽게 우리는 교양강좌라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 역시 진정한 교양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찾기가 어렵다. 강좌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외형적 형식이며, 강좌의 내용 역시 정신적 교양에의 고양이기 보다는 어떻게 더 실리적으로 더 영악하게 사느냐를 말하려 하고 있다.

예컨대 취미강좌들마저 진실로 개인적인 취미생활에의 부추김으로서 보급되기 보다는 어떻게 취미로서 부업을 할 수 있느냐를 안 내하고 있다.

경제적 삶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물론 취미의 부업을 존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완성을 위해서는 부업이기에 앞서서 정신의 고양을 위해서 취미의 영역이 확산되어야 한다.

교양적 영역의 확대로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정신적 여유를 확대할 수 있다.

결국 문화활성화 운동의 요체는 문화적 삶의 욕구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보탬을 주는 것이므로 나의 부담과 나의 조직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창출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적 계발이란 원래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순서로 하고 있다.

지역고유의 문화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필요성에 의한 집단적 인식을 확대시키며 그 인식에 기초한 문화적·창조적 참여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발전 방향의 설정과 신념화를 시켜야 한다.

이상의 단계들에 있어서 위의 단계들의 인식과 참여에 의해서만 방향의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은 상식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민의 필요성’이라는 단계에서 이미 난제를 안게 된다.

Ⅲ.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 문예진흥원이 조사한 지방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의 현황에 의거해서 살펴 본다면, 대부분 단체들의 활동이 ①친목 위주이고, ②동호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며, ③논리적 체계화 및 전체 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추구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활동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규모의 문화 예술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①의사전달의 모체 및 연구지면을 가져야 하며 ②하고 있는 일을 전달할 수 있는 모임 및 활동프로그램을 사회화하는 재정적 기반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볼때, 바로 이러한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차근차근히 거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첫째로, 평균적 공중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하며 또한 단계적으로 향유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양적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본적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전 단계의 문화욕구가 없는 주민들 사이에서 문화욕구를 유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번째로는 사회적 인식의 계몽적 확산이다. 사회 중심부에서의 사회적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만 정책적 행정적 열성의 유발이 가능하다.

이상 방안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서

첫째로 일반적 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프로그램들을 유통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화 내용물의 소통의 문제는 지금 문화내용물의 절대량 부족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문화적 과제이다.

세째로는 주민 자신에 의한 문화적 욕구증대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한걸음 나아가 지역문화의 공동체적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계획이 포함되는 문화공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장 : 이미 창조적인 여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가장 적합한 활동을 찾도록 격려하는 일.
2. 개방성 : 과거의 예술과 현대의 예술을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이 작품들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일.
3. 사회성 : 참여의 장과 개방성이 가능하도록 일반 대중에게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
4. 자원센터로서의 기능 :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 정보, 장비, 전문적인 의견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일.
5. 젊은이를 위한 기능 : 창조적인 활동에 청소년과 젊은이의 참여를 격려하고 보조하면서 특히 시설 안팎에서 그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
6. 예술가를 위한 기능 : 특히 이제 첫 출발하는 예술가는 물론, 현재 활동중인 예술가의 작업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지원 또는 원조해 주는 일.

문화 예술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살펴보면.

1.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예술행사를 주관하거나 순회공연을 마련한다.
2. 노천극장 강변극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원한다.
3. 신인예술가들이 발표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후원한다.

-
4.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예술 분야에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5. 각종 기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행사를 돕는다.
 6. 문화행사를 알리는 아치와 같은 광고판을 마련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기업인과 지역의 예술인은 서로 이질적인 영역을 극복하고, 상호의존, 협력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정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공감대 의식을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간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IV. 예향으로서의 인제가꾸기를 위한 결론적 제언

건전한 예술환경은 인재의 기업과 상업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중요성이 있다.

바람직한 인재의 문화정책은 ‘고급문화의 확산’을 의미하는 ‘문화의 민주화’로 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회의 구성단위들, 특히 하층 또는 기층에 속하는 개인들과 집단들의 의식과 정서를 다듬어 내는 활동을 조장하는 ‘문화 민주주의’의 방향을 추가해야 한다.

경제역량, 문화수준이 바로 인재지역 지자체력의 척도라 할 것이고 균민된 자부심은 실로 그 척도에 비례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경제개발계획에 못지 않은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인재 지역문화발전연구소가 설립되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연구가 시작될 필요성이 지자체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요청되고 있다.

■ 더욱 살만한 인제를 위하여 몇가지 권장 사항들을 살펴보면

1. 토지의 매력적인 이용, 건축 디자인과 부지계획에 있어서의 훌륭한 기준, 문화적 기회등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세금정책, 토지분할, 건축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2. 공공건물, 수송시설, 그리고 그 밖의 시설들의 훌륭한 디자인에 대해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3. 인제의 현존하는 공동체 개발과 제안된 공공 및 개인적인 개량들을 검토하고 공동체 미학을 드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단체와 시민들이 협력해서, 디자인 판넬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디자인 판넬들은 공동체의 전체적인 문화체험과 더불어 조정되어야 한다.

문화는 하나의 ‘장식’이나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생활의 본질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기본적인 시민의 자격을 구성한다. 도시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장소이며, 사람들은 도시에서 활기찬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합창음악이

주는 교훈

인제중학교
음악교사 조미경

인간 생활속에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하겠다. 삶의 슬픔, 기쁨, 아름다움 등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듣고 즐기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조물주의 위대한 축복이라 생각한다.

특히, 사람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합창음악은 다른 기악곡이 주는 감동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기악의 한정된 소리에서 표현될 수 없는 그 이상의 감정이 인간의 목소리로 표현 되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기 때문이다 노래는 인류의 음악 역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태초에 사람들이 음악을, 아니 소리를 내어 의미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을때 가장 먼저 사용한 악기는 다름아닌 바로 사람의 목소리 였다.

“합창”하면, 다성부(多聲部)로서 각 파트가 복수의 인원 에 의해서 연주되는 것을 말함이 보통이다. 그리고 합창형태를 굳이 분류한다면, 소년합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아무튼, 내가 짧은 식견으로 합창음악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해가며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합창은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추어 함께 노래한다는 것을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다. 학교 교정에서 전학생이 함께 부르는 교가, 군인들이 씩씩한 모습으로 행진하며 함께 부르는 군가, 정부행사때 함께 부

르는 애국가, 또한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등 이 모두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며, 또한 노래를 하면서 각자의 위치를 알게하는 소속감과 공동체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

그리하여 “나”라는 이기심에서 멀리 떠남으로써, 이웃을 보게하고 공동체의 따뜻한 체온속으로 녹아들게 한다. 거기서 삶의 즐거움, 만남의 기쁨, 만사를 잊고 즐거움과 흐뭇한 삶의 감격으로 나를 거기에다 맡기고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는것이다.

음악은 삶을 긍정한다. 인간운명의 비극성을 긍정하게 하는 정신적 바탕이 된다. 아마도 음악이 있는곳에 삶이 있어 왔기 때문일것이다. 나는 세상을 살아 가면서 때때로 괴로움이나 슬픔에 부딪치게 되면,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합창)을 자주 듣게된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은 인간적 확신과 희망을 성악과 기악으로 융합, 장엄하고도 웅대한 규모에 담은 이곡은 동서고금을 통한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제4악장 “환희의 송가”는 삶의 고뇌를 초극하고 환희에 도달한 음악내용이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바리톤 서창으로 시작하는,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고 더욱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이어서 누구나가 쉽게 부를수 있는 민요풍의 노래가 나온다.

『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찬란함이며!

낙원의 처녀들이여!

우리모두 황홀감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聖所)로 들어가자

엄한 현실이 갈라 놓았던 자들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은 다시 결합시킨다.
그대의 고요한 나래가 멈추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이어서 베토벤이 도달한 인간해방의 확신과 희망을 주는 변주곡 형식의 중창과 합창이 되풀이 되고 장대한 관현악 소리가 함께 어울린다. 서로 다른 성격과 음색을 가지면서도 자기대로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속에서 “함께 어울린” 조화는 곧 질서이고, 이 질서야말로 천체 성좌들의 조화이며, 우주의 조화가 아닌가 싶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비하여, 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사람들은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다. 비단 음악연주회 뿐만 아니라 전람회, 연극, 무용등 무대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지방 문화행사때 참여를 목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지원을 받아 그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단순히 동원되는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얼마전에 춘천시에서 벌어진 '94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인제군 아미합창단이 출전하였다. 비교적 인제군 보다는 큰 도시지역에서 출전한 합창단들과 경연을 벌여, 비록 노력만큼의 좋은 성적은 올리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바쁜 생활속에서도 자기고장을 위하여 노래를 열심히 불러준 단원들의 노력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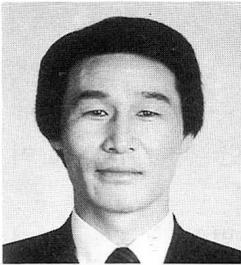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휘자와 반주자의 호흡이 전주부 부터 어색했으며, 단원들도 자연스런 모습으로 음악을 즐기듯이 연주하는 모습이 부족했다고 보겠다. 그리고 부드럽고 깨끗한 톤과 센스 있는 리듬, 각 곡의 분위기등 우리가 좀더 많은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지적되었던 부분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면, 우선 합창음악에 대해 높은 식견과 지도력을 갖춘 유능한 지휘자를 만나야 하겠고, 단원들의 노래연습이 일시적 행사를 대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적어도 성악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합창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들 스스로가 평생을 노래하며 살겠다는 마음 자세에서, 서로가 호흡을 맞추며 지속적인 연습을 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은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듯이 앞으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연히 지방관청에 매달리지 말고, 자율적으로 조직된 합창단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평소에 닦은 노래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연주회 공간을 자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음악 생활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도 한 두번 정도 직접 음악회장에 참여하여 여러 사람들과 같은 분위기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다 보면, 결국엔 좋은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으면 혼자 먹는것 보다 즐겁듯이, 좋은 음악도 함께 들으면 이해도 쉬워지고 즐거움도 더할 것이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주고받는 한 여름밤의 대화, 늦은 밤 개구리 우는 논 두렁과 오솔길, 벼단을 신고 돌아오는 농부의 콧노래, 멀리서 들려오는 뿔꾸기의 울음소리, 깊은산속에 여명을 타고 울려 퍼지는 목탁의 소리, 이 모든 자연의 노래가 어찌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함께 어울린” 질서의 조화인 것이다.



농촌을 생각하며

강원도 의회
의원 이 기 순

올 겨울은 우리 농민에게 무척이나 쓸쓸하고도 외로운 계절이 될 것만 같다. 그것은 지난 해에 13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냉해 피해와 W·T·O의 탄생으로 더욱이 올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매섭고 혹독한 겨우살이가 될 것만 같아 더더욱 안스럽기만 하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하루빨리 훈훈하고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뿐이다.

요즈음 농민들 사이에는 한숨소리가 설날이 없다. 심어 팔것이 없고 팔아 먹어 볼것이 없으니 “내 자식 공부는 어이 시킬꼬” 농사 자금은 또 뭘로 갚을꼬, 하는 소리가 …….

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기본적인 삶의 욕구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에 누군들 어떻게 위로와 도움을 줄 것인가.

떠들썩한 잔치에 먹어 볼것이 없다고 계속되는 냉해 피해에 대하여 국회를 비롯 지방의회와 행정등이 요란스레 조사를 하고 언론이 크게 다루어 주고 있지만은 …….

피해 규모가 엄청나 쌀 한 톨 건질 수 있는 현실에 피해 농민들만 슬픔에 빠져있다. 우리 농민에게 돌아 올 것은 고작 농어업 새해 대책 법에 의한 빵튀기 강령이 뿐인 것이다.

벼랑에 선 농촌을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좋지만 우리 농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영세 농민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농어업 재해 대책법의 현실적인 개정이다.

피해가 있을 때 마다 정부에 대한 한결같은 농민들의 불만인 것이다.

법에 의하면

첫째 : 피해조사가 있는 작물에 대하여 조사가 되지 않고 전체 경지면적을 조사하다 보니 쌀 한 톨, 옥수수 한 톨 건질 수 없는데도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데 있고,

둘째 : 피해 면적이 도시 근교의 농경지와 평야지대, 산간지대 등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시켜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산간오지의 영세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셋째 : 피해율을 하향 조정하여 다수의 농가를 보호해야 하며 피해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최저 생산비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을 지켜주고 국민건강을 위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민들도 남아 있을 것이다.

강원도 의회도 각종 냉해 피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위해 피해 현지를 다니며 조사와 함께 피해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 보았지만은 그들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찾기가 어려웠음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안타까운 농촌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최선을 다해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계속되는 냉해 피해는 앞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져 옥수수 피해 때와 같은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우리 농민들에게 아픔을 보태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농촌진흥원에서의 냉해 피해 분석이 농업지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은 해왔지만은 각종 냉해 피해를 접하는

자세는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농민들에게는 가슴 아프게 한 작황 분석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냉해 피해에 임해 줄것을 당부 하고자 한다.

지난해 강원도의 벼농사는 전국 피해 평균율의 3배가 넘는 40% 가까운 최대 흉작이 되었고 지난해의 24만여톤 생산보다 10만여 톤이 적은 14만여 톤에 그쳐 타시도에 비해 몇배의 고통을 강원도 농민들은 받고 있는 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해 피해로 인한 정부의 지원이 농작물 복구 지원 기준을 외면한 그림의 떡과 같은 두리몽실 지원으로 다시 말해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으로는 문민시대에 다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처사이며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로 보아 곧 농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올것으로 기대한다.

이와함께 앞으로 전개 될 농업정책에 대하여도 조심스럽게 걱정을 함께 해 보고 싶다. 신농정 정책 그리고 42조원의 투자, 돌아오는 농촌만들기 등 우리 농민에게 솔깃한 단어 들이다.

우리 농촌이 벼랑에 서기전 아주 오래전 우리 농민들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그때에 이와 같은 정책이 얼굴을 내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늦은감은 있지만은 우리 농민들은 마중 나올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리저리 굴러 다니면서 경제적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무작정 살 거리에 허덕이던 농민들을 황폐-해진 회생 불능의 우리 농촌을 이번 만큼은 마지막의 간절한 소망으로 신농정 정책이 해결 해 주기를 우리 농민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농정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지적 해 본다.

첫째 : 새로운 농업정책이 되어져야 할 부분적인 시행 사업들은 대부분 그동안 지속적으로 틀에 박혀 추진했던 경지정리사업, 혹은

농업용수개발 전업농지원에 부정축재 재원의 후계자 지원사업이 고작이고 현실에 불부합되는 UR라운드에 밀릴 수 밖에 없는 미국 종합처리장에 리 공동퇴비장 뿐이니 WTO에 대항 하기에는 역부족 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다수 영세규모의 농민을 외면한 대단위 방조제 사업등이 신농정의 핵심 추진 사업이라니 과감한 농정의 개혁에 필요한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이나 기술개발 사업등의 투자재원이 빈약하고 농외소득의 증대에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되며,

둘째 : 98년도 까지 집중 투자하는 재원의 확보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매년 정부예산의 총 증가율에도 못미치는 예산 책정과 98년까지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재원의 가치 소멸로 예산규모에 산업경제비의 투자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실질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 예산의 편성은 물론 그 내용에서도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농정의 핵심은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으로 부와 학식을 가진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고 소수의 정예화된 엘리트 농민들로 이 어려운 농촌을 해결하려 하고있어 배우지 못하고 가진것이 없는 대다수 영세 농민은 신농정의 기술, 고품질, 수출농업을 하고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은 또 소외계층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 소수 정예화 신농정 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대다수 영세농민을 위한 신농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생산비 보장을 위한 가격정책,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 보조 지원정책 GNP 수준에 걸맞는 복지 정책등 전자와 후자가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신농정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넷째 : 농업정책의 공정한 경쟁 사회적 합의등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농산물을 마구잡이 식으로 수입하는 대재벌 및 중소기업과 영세농민들과의 판매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 독과점 업체의 경제적 집중을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과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한 시장 유통이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농민의 뿔까지도 챙겨 가졌던 특권 부유층과 함께 고통분담을 정부는 요구하면서 새정부 출범이후 재벌등 기업체에게 경제희생을 담보로 공급리 인하에 따른 2조 원 이상의 혜택을 주면서 농촌의 경제는 방치 방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섯째 : 농지거래 규제의 완화는 부정과 긍정이 함께하는 조심스런 문제이다. 왜냐하면 농업정책의 정도는 소득이 높은 농사를 보장하는 것인데 농지마저 자유매매 하는것은 농업을 보존하는 기본이념에 위배되고 그렇다고 해서 심을 작물없고 심어도 수지맞지 않고 농사짓지 않는것이 남는다는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유매매토록 해야 하는데 이미 돈많은 고위공직자 및 투기자들은 약사빠르게 땅투기로 배불리고 규제속의 농지자유 매매인들에게는 실속 없는 감정 뿐이다.

농지거래 규제의 완화보다는 농민의 소유농지는 스스로의 영농 계획과 소득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더욱 절실하다.

여섯째 :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종합적인 방법으로 체계적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농어촌을 정비하는 법을 만들고 농어촌에도 도시 수준의 문화공간과 의료서비스 및 복지 시설등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니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연금과 각출금 등으로 농어민에게 연금제를 실시하고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농민의 이해가 있을 부문까지 개전 하는등 더욱이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50%를 지원하는 재해 보험제도를 도입 한다고 하니 크나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걱정스러

운 것은 전시용이나 홍보용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재원의 낭비와 특정 업자의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농어민 연금의 실시는 방안이 아니라 조속히 94년도에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늦어도 대통령 임기중에는 꼭 시행되어지길 촉구하여 보고싶다.

이밖에도 수많은 농촌의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 함으로써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이 되어 마지막으로 문민정부에 기대하는 농민들의 큰 꿈이 깨어지지 않길 빈다. 여기서 우리농민들도 지금까지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 주변의 잘못된 모습들을 찾아 정리 해 나가야 할 시기다.

다시말해 남이사면 나도 사는 소비 풍조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이문화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서 결과 보다는 남에게 의지하고 정부에게 의지하면서 남을 탓하는 생활문화 속과 같이 다른 농산물 포장등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부와 함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한민족의 공동체를 같이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년 WTO의 탄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픈 우리 농촌을 걱정 해 줄것이며 고통을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도 이번 만큼은 신농정이 농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성공하여 벼랑에 선 우리 농촌을 구제 해 주길 농민들과 고대해 본다.



한국전통 모범가정

—여산宋씨 5대가 한지봉살림—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宋 奎 燾

1994년도 제 22회 어버이 날 「전통 모범가정」으로 보건사회부 장관 표창을 받은 여산 宋씨 28代-32代가 한지봉 아래 옛날 옛 이야기 같이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음을 귀히 여기며 자랑스럽게 본 지면을 빌어 소개 하므로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영원히 시들 수 없는 한국인의 심성의 꽃인 가정 윤리의 효가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활짝 피어 나기를 기원 하면서 경로효친 사상을 양양 시킴은 물론 생명의 존엄성에 그 가치를 두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 이후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업화 및 산업화로 삶의 모습이 변하였고, 전통적 가정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 관계를 일면적이고 기능적 관계로 만들어 서로를 경원하게 되는 소위 인간 소외 현상을 낳았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는 산업 사회에서 인심이 파괴되고 인간 도의가 쇠락되는 현상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덕 교육의 필요성과 그 덕목과 예(禮)와 질서를 지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필자의 근본 뜻이 있음을 또한 밝혀 두고자 한다.

옛 정서를 그대로 안고 오늘도 쉬임 없이 유유히 흐르는 내린천 변 낮은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2반 「의식동(衣食洞)」 옛 사람들이 이름지은 마을이다. 이 마을은 옛부터 孝行을 생활 덕목으로 삼아 인심이 후하고 언제나 식량이 풍족

했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衣食洞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속에 16가구가 한 부락을 이루어 의좋게 서로 돕고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 옛부터 열녀 및 효자 나기로 유명했던 하남3리, 이웃 자포대(自飽臺) 마을에는 이조시대 고종 37년(서기 1900) 군수 權直相, 관찰사 趙鍾弼 당시에李玉女의 정절을 추모하고 후세 만대에 기리고자 건립한 旌閭閣이 말해 주듯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효행자를 길러낸 곳이기도 하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마을 宋奎燾(47세)의 가정은 한국 고유의 전통모범 가정으로 할머니 金貴榮(105세) 어머니 沈花女(73세) 장남 明錫(27세) 며느리 崔玉蓮(27세) 그리고 1살짜리 손녀(宋銀枝)까지 5대가 된다.

상 노인은 백세가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동만 약간 불편할뿐 모든 면에서 정정 하시다. 인제 문화원에서는 1994년 5월 8일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 金貴榮 할머니를 군 경로 잔치에 초청, “장수상”을 드리고 한국 격동시대를 살아 오면서 미풍양속에 따른 가정관리와 선대 이룬 孝行으로 오늘에 장수하심을 격려한바도 있다.

宋奎燾씨가 상남면 하남3리 衣食洞 마을에 살게 된때는 조부 宋仕裕 선대때인 약 120여년전 부터이다. 그의 선친 宋景勳씨가 이웃면인 기린면 현5리에서 잠시 살았던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줄곧 6대째 같은 마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宋奎燾씨 가정은 그야말로 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도 큰 소리가 한번도 담 너머로 넘나지 않고 언제나 화목하고 전 가족이 효행심이 두터워 이웃의 칭송과 규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처 吳順南(46세)씨는 층층 시하의 宋씨 가문에서 얼굴 한번 찌프리지 않고 시조모와 시모를 정성으로 받들고 있으며 그 자신도 1살짜리 손주가 있는 할머니로서 덕행을 세우는 몸 가짐에 노력하

며, 며느리 崔씨를 그 누구 보다도 가까이에서 가장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宋奎燾씨를 중심으로 해서 2남 5녀가 생존해 있으며, 제사 때나 명절때 증가집을 찾아오면 4촌이내 형제만도 24남 17녀, 그 조카까지 모두 합치면 무려 120여명이 넘는 대가족이 된다고 한다.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들어앉을 방이 없어 친·인척은 물론 이웃집까지 신세를 툭툭히 진다는게 사실인것 같다.

며느리 崔씨 친정은 바로 이웃에 있는 상남2리 1반 마을이다. 그의 남편 明錫씨와는 상남중학교 동기 동창으로 학창시절 특별히 교분이 두터웠던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도시의 멋진 청년과 결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 어렸을적 동심의 세계에서 明錫씨와 굳게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어려운 층층 시하의 宋씨 가문의 맏 며느리를 택한 보기도문 현대판 순애보의 주인공 이기도 하다. 시어머니 吳씨는 어렵고 힘든 증가집 시집살이를 슬기롭게 잘 견디어내는 며느리가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대단 하시다.

宋奎燾씨가 1992년 부터 이 마을의 이장직을 맡고 부터 마을의 온갖 크고 작은일에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가정에 특히 조모를 비롯한 웃 어른 공경을 제대로 못해 드리는것이 마음 아프고 안스럽지만 처 吳씨와 며느리 崔씨가 정성껏 수발드는 일이나 가족을 돌보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모심으로서 한편 마음 편히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힘주어 말씀 하기도 한다.

현재 논, 밭 약 1만여평을 손수 자작 하면서 수입개방, UR 파고 등 어려운 국면에 대처하는 신농업 기술 연마와 대체작목 개발등에 농민들을 지도하며 정성을 쏟고 있기도 하다.

과거 농경 사회의 가족 중심적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며 우리 고유 전래의 미풍 양속인 한국 전통적 만고불변의 원천이며 동서고금의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는 인간 생활의 바탕이요, 근본이며

윤리 규범인 「孝의 전통적 모범가정」의 표상인 宋奎燉씨를 거울삼아 위로는 조상을 숭배하고 상하 좌우에 사랑(仁)과 의(義)로움으로 예(禮)를 다하는 우리 인제 지역사회를 엮어 나가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필자 : 내린문학회 韓龍雲)



영아기의 전래 놀이 노래

인제 문화원
사무국장 이 만 철

1. 목적

옛부터 우리선조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불리워졌던 전래놀이 노래가 급속히 문명의 발달함과 서구문화의 침입속에 젖어 그 기능을 잃고 없어지거나 우리주변 생활속에서 소외시 되어 왔다.

어떠한 옛 성인의 말에 의하면 유행으로 변해가는 음악은 질은 풍습을 바꾸어 놓는데 더 좋은것이 없다고 하였듯이 서구문화는 우리 고유 전통노래와 놀이를 잊게하여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즈음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테잎이나 만화 등 여러가지 매체로 보아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얻고 흥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서양 기법의 음악언어를 교육시키고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급속도로 서구 문명에 젖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때 가늘게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전래 놀이노래의 원형을 찾아 계승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 고유의 전래놀이 노래는 과학적이며 상당히 지혜롭게 창안되어 어린이들이 성장 발달하는데 창조적, 교육적 소산물이라 하겠다.

그것은 내용이 짧고 내용전달에 직접적 표현이 강하며 내용에 즐거움의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되는 리듬으로 음악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리듬에서 파생되는 음률과 동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제 늦은감은 있으나 더 잊혀지기 전에 한가닥의 실오리 만큼이나 남아있는 전래놀이 노래를 발굴 보존시켜 정신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야함이 절실히 느껴진다.

옛것을 알아야 새로운것을 창조하여 낼 수 있듯이 우리 전래놀이 노래의 적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계승시키고 또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래놀이노래를 보존하며 우리의 민족 음악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영아기의 전래 놀이노래

1) 불아불아(弗亞弗亞)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를 포근히 품에 안고 좌우로 흔들면서 불아불아라는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한몸이 되어 마음을 의지하고 연정(戀情)을 심어주며 공감대를 이룬다. 이것은 우리 아기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모든 세상을 비추고 만물에 빛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아이가 이땅에 주인으로서 태양과 같이 넓게 비추어 주는것을 변치않으며 만가지 복을 겸하여 지니고 태어났으며 용맹활기찬 사람이 되라는 것이며 또다른 면으로 볼 때는 태양과 우주의 품에 들어와 동으로 와서 서로가고 다시 동으로 오는것과 같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이리왔다 저리갔다하니 아기는 이땅에 솟는 태양이라는 뜻도 되겠다.

※ 부라부라 (9~10개월경부터)

목적 : 아기를 달래는 전신운동으로 근육과 신경을 유연하게 촉진시키는 목적에 맞도록 창안된 놀이 노래이다.

동작 : 아기가 앉아 있을때는 앉혀놓고 협조자가 앞에서 좌·우로 또는 앞·뒤로 몸을 저으면서 아기가 같이 따라 하게 한다. 또는 아기가 꼳꼳이 설때 아기를 세워놓고 협조자가 아기의 겨드랑에 양손을 받쳐들고 아기의 몸을 앞·뒤 및 전·후로 저으면서 협조자도 같이 몸을 흔들고 즐긴다.

2) 시상시상 달궁(侍上侍上 達宮)

이전래놀이 노래는 품에 포근히 안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한 몸이되어 같이 있다는 신호로 아기에게 안전감을 주는 신호 운동이며 뜻은 조상을 섬기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위에 충성하며 상통달궁(想通達宮)하는 천인이 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 시상시상 (10개월경부터)

목적 : 아기를 달래는 과정에 곁에 엄마가 배불리 젖을 먹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알려주는 놀이노래이다.

동작 : 엄마가 아기를 품안에 포근히 안고 젖을 먹이며 약간 몸을 좌우로 흔든다.

3) 도리 도리 (道理 道理)

이전래 놀이노래는 아기와 엄마가 마주앉아서 엄마가 먼저 좌우로 머리를 저으면서 도리도리...하며 아기도 같이 따라하게 하며 숨은뜻은 머리를 한쪽으로 두지말고 이리저리 저어 이쪽도보고 저쪽도보며 머리를써서 사리에 맞는 도리로서 살아야 한다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 도리도리(생후 100일전후 ~ 7,8개월까지)

목적 :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목운동을 시키고 명랑하게 울동의 운동을 시키는 놀이 노래라 할 수 있다.

동작 : 아기와 협조자가 마주보며 머리를 좌우로 저으며 반복한다. 조금 느렸다 빨랐다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4) 잼잼지암(潛潛指菴)

이 전래놀이 노래는 아기와 엄마가 마주 앉아서 먼저 엄마가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 하면서 아기에게 하는 지시말로서 잼잼 한다.

이 뜻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섯 손가락(五指:검지,食指,中指,無指,不指)은 오행의 근본이 되니 만물의 근원이 되는 오행을 힘껏 쥐어 갖고 살라는 뜻과 아기의 손가락 운동과 그속에 장(場)과 심(心)의 활성을 돕는 뜻이 있다고 하겠다.

※ 잼잼(3, 4개월 ~ 첫돌까지)

목적 : 아기에게 즐거움을주며 손가락 운동을시켜 오장 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동작 : 아기와 엄마가 마주앉아 양손을 내밀고 손가락을 폈다 쥐었다 한다.

5) 곤지곤지(昆指昆指)

이 곤지곤지의 전래놀이 노래는 아기와 엄마가 마주앉아 아기의 왼손을 펴게하고 바른손은 주먹을 쥐다음 식지(食指) 한 손가락을 펴서 곤지곤지하는 노래에 맞추어 왼손바닥 가운데를 댔다 떴었다 하는 신체 운동이다. 이말의 뜻을 새겨보면 곤지의 뜻은 가장 우수하고 좋은것과 참다운것을 하라는 것이며 또 행동의 형태로 음양과 남·여와의 생리의 이치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 곤지곤지 (3, 4개월 ~ 12개월경까지)

목적 : 아기의 즐거움을 주며 지혜를 발달시키며 손운동을 시키는데 있다.

동작 : 놀이 동작은 왼손을 활짝펴고 오른손 식지 손가락만으로 왼손바닥을 푹푹 찌르는 동작의 연속이다.

6) 질나비 훨훨(疾那腓)

이놀이노래는 아기와 엄마가 마주앉아 아기의 양손을 펴고 아래 위로 경쾌하고 명랑하게 흔들게하여 운동을 시키는 놀이노래이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아이에게 모든 병마도 들지않게 모두 훨훨 떠나버리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

※ 질나비 훨훨(9, 10개월 ~ 첫돌까지)

목적 : 명랑하고 쾌활하게 자라라며 팔의 운동을 시켜준다.

동작 : 양손을 들고 손을펴서 아래위로 흔들며 빨리하였다 늦게 하였다 하게한다.

7) 짹자궁(作綽宮 作九宮)

아기와 마주앉아 하는 놀이노래로서 아기의 두 손을 펴고 손뼉을 치게한다. 그러므로서 아기의 쾌활한 발달과 여러가지 운동을 시켜준다. 여기에 내포된 뜻은 넓고 깊은 판단과 성숙해 지는데 있으며, 또한 작궁(作宮)은 궁(宮)을 뜻한 것이라하여 굽이굽이 살아가는 인생 생활에 인내력을 심어 준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 짹자궁(9, 10개월 ~ 첫돌까지)

목적 : 아기의 명량한 분위기 조성과 여러가지 운동을 시켜준다.

동작 : 아기의 양손을 펴서 들게한후 리듬에 맞추어 손뼉을 치게한다.

8) 섬마용타

이 전래놀이 노래는 엄마가 아기를 서게 해 봄으로서 자립성과 자활성을 심어주며 용기를 키워준다. 이뜻은 사람으로서 땅위에 서게 된 일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니 두발로 일어서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매사에 떳떳하게 살아라는 뜻이 내포 되었다 하겠다.

※ 섬마용타(첫돌 ...)

목적 : 아이를 일어서게 한 후 걸음마를 시키는데 있다.

동작 : 아기를 부추켜 세워 잡았던 손을 놓고 서있게 한다.

9) 어화둥둥(9. 10개월 ~ 첫돌)

목적 : 아기를 달래주며 겁을 없게 단련 시키며 키우는데 있다.

동작 : 두 손바닥 위에 아기를 뉘어놓고 아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

10) 자장자장(自獎自獎)

이 전래놀이 노래는 엄마가 아기를 재울때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해주며 아기의 잠을 곱게 재운다. 내용을보면 아기가 태궁(胎宮)에 서 넓은 지상에 나와 허전한 분위기속에 꿈틀거리며 보챌때 자연스럽게 곱고 곱게 깊은 잠에 들어라는 뜻이라 하겠다.

2. 맺음말

이 전래놀이 노래는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산물로서 전승보존 시켜야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할머니가 손주와 놀아주고 그 손주가 성장하여 엄마가 돼 아이를 기르며 성장 발달 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에 한가닥 남은 전래놀이 노래의 지혜로움을 채보(採譜)하여야 하겠다.

또한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우리방안에, 우리 이웃에 되돌려 놓아야 하겠다. 이 뜻에 따라 작은 힘이지만 이러한 전래놀이 노래의 원형을 몇가지 찾아 나름대로 열거해 보았다.

부족한 점 많으나 이 조사와 발표를 통한 자료들이 보존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곳곳에 다시 알려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익혀지고 또한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되어 어린이들에게 다시 돌려 주는 전환이 되기를 바란다.

官職解說

—편집실 제공—

一. 高麗朝의 官銜과 官職

고려조(高麗朝)의 관청과 관직중 대략 중요한 것만을 골라 주석(註釋)을 붙여 참고에 이바지 한다.

① 中央政府(중앙정부)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 : 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왕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심사(審査)하고 시행한다. 후에 도첨의사(都僉議司)로 고치었다. 이 관청의 장(長)은 대신(大臣)이니 중서령(中書令)과 문하시중(門下侍中)이 있고 그 밑에 시랑(侍郎), 평장사(坪章事) 혹은 참지정사(參知政事), 좌우상시(左右常時), 좌우승(左右丞)이 있다. 그리고 도첨의사로 하였을 때에는 중서령을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라고 한적도 있고 또한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라고 하였으며 시중을 첨의중찬(僉議中찬)이라 하기도 하였다.

尙書省(상서성) : 행정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육부(六部)를 감독하고 대정(大政)을 총리한다. 이 관청의 장(長) 역시 대신이니 이를 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으며 판상서성사(判尙書省事)라고도 하였다. 그 밑에 시랑(侍郎) 또는 좌우복야(左右僕射), 좌우상시(左右常侍), 좌우승(左右丞)등 벼슬이 있는데 중서문화성과 같다.

- 吏部(이부) : 관리의 인사(人事)관계와 지방의 관서를 감독하는데 지금의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친 격이다.
- 戶部(호부) : 국가의 재정과 호구(戶口)를 맡아 관장하고 있으니 지금의 재무부와 내무부를 합친격이다.
- 禮部(예부) : 외교관계와 백성의 교육과 풍교(風敎)등을 관장하는데 지금의 외무부와 문교부를 합친격이다.
- 兵部(병부) : 국방문제와 육해군을 감독하고 무관의 인사 등을 맡아 관장하는데 지금의 국방부 격이다.
- 刑部(형부) : 사법을 맡은 곳으로서 지금의 법원관계와 법무부를 합쳐서 관장하는 곳이다.
- 工部(공부) : 공업과 농정(農政)을 맡아 관장하는 기관이니 지금의 상공부, 농림부 격이다. 이상의 각 부에는 상서(尙書), 시랑(侍郎), 낭중(郎中), 원외랑(員外郎)등의 관원이 있다.
- 中樞院(중추원) 후에 추밀원(樞密院) 혹은 밀직사(密直司)로 고쳤다.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조명(詔命)을 맡은 기관이다. 여기에는 사(使), 부사(富使), 지신사(知申事), 승선(丞宣)등의 관원이 있다.
- 三司(삼사) :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사(使)라고 하였다.
- 國字監(국자감) :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여기의 장은 대사성(大司成)이다.
- 大農寺(대농시) : 미곡(米穀)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장은 경(卿)이다. (寺 = 내관 시)
- 殿中省(전중성) : 대궐안의 모든 사무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장은 감(監)이다.
- 御史臺(어사대) : 왕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의 과오와 비행등을 규탄한다. 그 장은 어사대부(御史大夫)이다.
- 秘書省(비서성) : 왕의 측근에서 문서를 다루고 봉해하는 기관인

- 데 그 장은 감(監)이다. 오늘의 비서실이다.
- 典校寺(전교시) : 비서성(秘書省)이 공민왕(恭愍王)때에 와서 고쳐졌다. 장은 판(判)이다.
- 翰林院(한림원) : 왕의 조서(詔書)를 맡아서 짓는다. 그 장은 학사(學士)라고 하였다.
- 京市晡(경시서) : 서울에 있는 시장과 상업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이며 그 장은 감(監)이다.
- 軍器寺(군기시) : 모든 군기를 조달하고 관수(管守)하는 관청인바 그 장은 감(監)이다.
- 禮賓省(예빈성) : 손님을 접대하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라 하였다. 의전실과 같다.
- 巡軍(순군) : 국내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만호(萬戶)이다. 지금의 치안국
- 太府寺(태부시) : 나라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장을 경(卿)이라고 했다.
- 少府監(소부감) :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관청인바 그 장은 판사(判事)라고 했다.
- 太僕寺(태복시) : 나라에 쓰는 수레와 말을 맡은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다.
- 開城府(개성부) : 고려의 수도 서울을 맡은 관청인바 그 장은 판사(判事)이다. 고려조의 관청중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으며, 그 외에 왕의 고문이요 원로인 삼사(三師)가 있고 또는 무임소(無賃所) 대신(大臣)인 삼공(三公)이 있다.
- 三師(삼사) :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모두 正一品이다.
- 三公(삼공) : 삼공은 무임소대신인바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이다. 역시 正一品官인데 이 삼사와 삼공은 공민왕때에 폐지 되었다.

太子宮(태자궁) : 태사(太師), 좌우빈객(左右賓客), 좌우유덕(左右諭德), 좌우찬선(左右贊善).

武官職(무관직) : 상장군(上將軍 또는 上護軍), 대장군(大將軍), 장군(將軍), 중랑장(中郎將), 낭장(郎將), 별장(別將) 등이 있다.

② 主要官衙 및 官職의 品階

위에 열거한 관청외에 앞의 고려관직표에 나타난 것을 발췌하여 참고로 한다. 어떤 계통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요한 줄거리만 간단히 설명한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란다.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삼중대광(三重大匡),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상주국(上柱國=훈위의 첫째) (이상은 正一品임)

中書令(중서령) : 후에 도첨의(都僉議) 또는 첨의정승(僉議政丞) 등으로 고침.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중서령의전신), 시중(侍中=후에 첨의중찬(中贊)으로 고침. 상서령(上書令), 판상서성사(判尙書省事=재<宰臣>이 겸임함) 감수국사(監修國事=사관의 으뜸 벼슬로서 시중이 겸임함) 판삼사사(判三司事), 주국(柱國=) (훈위의 둘째)(이상은 從一品임)

平章事(평장사) : 참지정사(參知政事), 상서(尙書=뒤에 전서(典書) 또는 판서(判書)라 하였는데 정이품 또는 정삼품으로 한 때도 있음)

左右僕射(좌우복야) : 중서시랑(中書侍郎=중서성에 한함. 태자빈객(太子賓客=태자궁에 빈객벼슬), 태학사(太學士=뒤에 대제학으로 하였음), 춘추관사(春秋享館=춘추관의 으뜸 벼슬로서 이품이상의 타관이 겸임함), 찬성사(贊成事),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상은 정二품)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 :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정당문학(政

- 業文學), 문하평리(門下評理), 주부(主簿), 동지(同知) (이상은 종二품)
- 副使=(부사 추밀원 등의 관직) : 상시(常侍), 지신사(知申事=뒤에 지주사(知奏事)로 고침, 중추원, 추밀원, 밀직사의 벼슬). 承宣(승선=뒤에 승지(承旨)로 고침, 감(監), 경(卿=감, 경은 각 관청의 장인바 종三품도 있음) 어사대부(御史大夫=어사대의 으뜸 벼슬), 제거(提舉=보문각, 국자감의 벼슬임, 대사성(大司成=국자감의 장), 대언(代言=승선을 고침), 상호군(上護軍=상장군을 고침(이상은 정三품)
- 知貢舉(지공거) : 학사로서 과거를 맡아 봄, 동지공거(同知貢舉)의 위(종三품 혹은 정四품임)
- 祭酒(제주) : 국자감의 벼슬로서 뒤에 성균관 사성(司成) 임. 비서감(秘書監), 좌우사간(左右司諫) (이상은 종三품임)
- 直學士(직학사) : 간의(諫議=사간원의 간의대부), 봉상(奉常=봉상대부)이상은 (정四품임)
- 太府少卿(태부소경) : 국자사업(國子司業=국자감의 벼슬), 급사중(級事中=중서문하성의 벼슬(이상은 종四품임)
- 郎中(낭중) : 중랑장(中郎將) (이상은 정五품임)
- 侍御史(시어사) : 비서승(秘書丞), 기거주(起居注) (이상 종五품임)
- 員外郎(원외랑) : 좌우정언(左右正言), 습유(拾遺=정언의 전신), 보궐(補闕=중서문하성의 벼슬로서 뒤에 헌납(獻納)으로 고침), 상의봉어(常衣奉御=상의국의 벼슬) (이상은 정六품임)
- 內給事(내급사) : 비서교랑(秘書校郎) 비서랑(秘書郎), 낭장(郎將) (종六품임)
- 紙侯(지후=정七품 벼슬) : 주서(注書)=(중七품), 녹사(錄事=정八품), 장사랑(將仕郎=중九품), 급사(給事=정九품)
- 直文翰(직문한) : 문한성의 벼슬

知製誥(지제고) : 왕의 조서, 교서 등을 지어 바치는 벼슬로서 뒤에 지제교(知製敎)로 고침
 必閣赤(필도지) : 몽고에서 온 말인데 서기일을 맡아보는 관원
 詹事省(침사성) : 세자 시강원
 寶文閣(보문각) :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침
 重房(중방) :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
 版圖(판도) 뒤에 호조(戶曹)로 고침
 閣門(합문) : 뒤에 통례원(通禮院)으로 고침 조하(朝賀) 제사등을 맡음.

二. 朝鮮朝의 官衙와 官職

李朝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니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① 東班官衙(동반관아)

宗親府(종친부) : 이조건국 초에 창설한 이조 종실(宗室)과는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 규찰등을 맡고 있다.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正 = 종친된 자가함) (副正 = 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여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忠勳府(충훈부) : 이태조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世祖(세조)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초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儀賓府(의빈부) : 이조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敦寧府(돈녕부) :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年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五촌, 세자비의 동성은 六촌, 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속하는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議政府(의정부) : 이 관청은 고려때는 도평의사(都平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사인(舍人), 검상(檢詳), 사록(司錄).

義禁府(의금부) : 이조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검찰청과 같다.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의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司憲府(사헌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承政院(승정원) :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바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吏房), 좌승지(左承旨=戶房), 우승지(右承旨=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司諫院(사간원) : 태종二年에 창설되어 임금의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經筵廳(경연청) : 중종(中宗) 三十五年에 창설 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廈氈)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의정이 겸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贊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겸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漢城府(한성부) : 경조(京兆)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

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開城府(개성부)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教授), 분교관(分教官), 검률(檢律).

江華府(강화부)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教官), 검률(檢律).

吏曹(이조) : 天官이라고도 한다. 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인 인사(人事)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忠翊部(충익부) :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郎과 佐郎).

尙瑞院(상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새(玉璽), 부패(符牌), 절부(節鈇)등을 관장하는바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차자방(筭子房), 부로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宗簿寺(종부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錄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

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司饗院(사응원) :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廚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舉),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內需司(내수사)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座), 부전수(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穀), 전화(典貨).

內侍府(내시부) : 대전(大殿)內的 수라상감독, 삼강의 분부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중二품)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명.

掖庭晷(액정서) : 항상 상감결에 있어 알현안내, 지필묵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 사약(司鑰)以下 二十八명

戶曹(호조) : 地官이라고도 한다. 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稅)와 식량과 화폐(貨幣)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산학교수(算學教授=籌學教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 회사(會士).

內資寺(내자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 선관(膳官)이

- 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 內膳寺(내섬시) :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물 제물과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二품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여진(女眞=만주)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제(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 司導寺(사도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등 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 軍資監(군자감)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감(寶泉監),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 濟用監(제용감) :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 마포, 나사, 능단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 司宰監(사재감) :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 豐儲倉(풍저창) : 쌀, 콩등 곡식과 초둔(草苴=거적자리), 종이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정사품수(守)이하 五명

廣興倉(광흥창) :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館), 천록관(天祿館), 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 :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平市署(평시서) : 서울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醞署(사운서)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이조 중엽에 폐지 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원장(直長), 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 : 기름, 꿀, 후추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리, 유지(油紙), 종이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圃署(사포서) :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十二年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검(別檢).

養賢庫(양현고)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禮曹(예조) :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館),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에조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 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당(正郎), 좌랑(佐郎).
弘文館(홍문관) : 성종 9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느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敎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藝文館(예문관)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

成均館(성균관) : 태조 7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 국학(國學), 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春秋館(춘추관) :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館)이라고도 하느바,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事=의정이 겸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 :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 으로서는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贊謁=임금을 회견함)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합문(閣門), 중문(中門), 홍려(鴻臚)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찬의(贊儀), 인의(引儀),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 : 제사와 회의, 시호(諡號)드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

校書館(교서관) :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 내서(內署), 비서(秘署), 전교(典校), 외각(外閣)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이하 十五명

內醫院(내의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 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국(尙局), 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禮賓寺(예빈시) :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및 재상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

(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樂院(장악원) : 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률(典律), 부전률(副典律), 직장(直長),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觀象臺(관상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漏刻=시간 재는일)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영사=영의정이 겸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천문학교수(天文學教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教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教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教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참봉(參奉).

典醫監(전의감) :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바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曾),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教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

司譯院(사역원) : 다른 나라와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과(通文館), 한문도감(漢文

都監), 설원(舌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
 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
 (主簿), 한학교수(漢學教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
 (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
 학), 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 여진학, 훈도(女眞學訓導
 =만주학), 참봉.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
 (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
 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춘방(春坊),
 뇌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
 과 같다.

사(師=여의정이 겸임함.), 부(傅=좌우의정이 겸임함), 이사
 (貳師=찬성이 겸임함),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
 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찬선(贊善), 보덕(輔
 德), 겸보덕(兼輔德),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
 善),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사서(司書), 겸사서(兼司
 書),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 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
 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우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익선(左翊
 善), 우익선(右翊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찬독
 (左贊讀), 우찬독(右贊讀).

宗學司(종학사) :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때 폐지 되었다가 중종때 다시 계속
 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훈(典訓), 사회
 (司誨).

昭格廳(소격서) : 하늘과 땅, 별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

- 으로서는 영(令), 별제(別提), 참봉(參奉).
- 宗廟晷(종묘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조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바,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 社稷晷(사직서) :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 景慕宮(경모궁) : 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송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 水庫(빙고) : 어름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 典牲晷(전생서) : 궁중제향에 쓸 짐승기르는 일을 맡은 곳. 관원은 장이 제조(提調)며, 주부, 직장, 봉사, 참봉.
- 司畜晷(사축서) :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별號=典廐晷
- 惠民晷(혜민서) :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教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參奉).
- 圖畫晷(도화서)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선화(善畫), 선회(善繪), 화사(畫史), 회사(繪史), 별號=彩典
- 活人晷(활인서) : 병사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 歸厚晷(귀후서)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별號=大悲院
- 四學(사학) :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 東

學, 南學, 西學, 네곳학교, 여기에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 : 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令), 별검(別檢), 참봉(參奉).

刑曹(형조) :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 우리방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헌관(讞官),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율학교수(律學教授), 겸교수(兼教授), 별제(別提), 명률(命律), 심률(審律), 율학훈도(律學訓導), 검률(檢律).

掌隸院(장예원) : 노예(종)의 부적(符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年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辦定院)으로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典獄署(전옥서)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工曹(공조) :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부(修例部), 전공(典工), 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 공조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治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尙衣院(상의원) :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제(別提), 직장(直長).

繕工監(선공감) : 여기서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別號 = 將作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典涓司(전연사) :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3년에 창설하여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그 관원으로서는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苑晷(장원서)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別號 = 內苑晷

造紙晷(조지서) :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바 그 소속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瓦晷(와서)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② 西班官衙(서반관아)

中樞府(중추부) :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으로서 무임자(無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

(正宗)때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서추(西樞), 홍추(鴻樞)라고도 한다. 여기 소속 관원은 다음관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첨지사(僉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五衛都總府(오위도총부)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종(文宗)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總管), 부총관(副總管), 경력(經歷), 도사(都事).

兵曹(병조) :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 군사(軍事)문제, 우편, 역(驛), 병기(兵器)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 서전(西銓), 기성(騎省), 군부(軍簿·軍部), 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 병조 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가 있다. 병조는 지금 국방부(國防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으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등이 있다.

五衛(오위)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衛), 용양위(龍驤衛)는 좌위(左衛), 호분위(虎賁衛)는 우위(右衛), 충좌위(忠佐衛)는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는 후위(後衛), 이 五衛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訓鍊院(훈련원) :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지사(知事=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봉사(奉事).

司僕寺(사복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승부(乘府), 태복(太僕)등으로 부른다. 여기의 관직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軍器寺(군기시) : 태종 十四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典說司(전설사)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상사국(尙舍局), 사설서(司設暑)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守),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宣傳官廳(선전관청)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층주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그리고 문신겸관(問臣兼官)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正三품으로부터 從九품까지의 선전관이 있음.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솔갱시(率更寺), 계방(桂房)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관청에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조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守門將廳(수문장청) :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자에는 참상관(參上

官)과 참하관(參下官)이 있으니 종六품으로부터 종九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訓練都監(훈련도감) :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국별장(局別將),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禁衛營(금위영) : 수도(首都)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御營廳(어영청) : 왕실(王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파총(把摠).

守禦廳(수어청) : 외적(外賊)을 막는 영문인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摠戎廳(총융청) : 최초에는 수원(水原) 鎭撫의 군무를 맡았는데 정조때에 경리청(經理廳), 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摠衛營)이라고도 하여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使), 중군(中軍), 천총(千摠), 파총(把摠), 초관(哨官).

南漢山城(남한산성) : 남한산상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守城將=광주목사가 겸임함),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초관(哨官).

北漢山城(북한산성)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管城將), 파총(把摠), 초관(哨官).

護衛廳(호위청)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대장(大將=현임 혹은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중에서 겸임한다), 별장(別將).

龍虎營(용호영) :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바,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 우림위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영(禁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소속 관직은 별장(別將), 장(將), 장은 한때 겸사복장(兼司僕將) 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우림위장(羽林衛將)이라고도 하였음.

捕盜廳(포도청) :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이다. 左·右 兩廳이 있으며 장은 대장(大將=從二品) 그 밑에 從事官(宗六品), 部長(捕校), 捕盜軍士(捕卒).

備邊司(비변사) : 명종(明宗) 十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관청으로서 주사(籌司), 묘당(廟堂), 비국(備局)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領議政)이 겸임함),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낭청(郎廳).

管理營(관리영) : 개성(開城)에 있는 진무(鎭撫)군영이며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개성 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종사관(從事官).

鎭撫營(진무영) : 강화(江華)에 있는 그 관원은 다음과 같다. 사(使=강화유수가 겸임함),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 천총(千摠),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 중 한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첨사라고 함), 우후(虞候), 도첨절

제사(同僉節制使), 진영장(鎭營獎), 만호(萬戶),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권관(權管)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첨절제사(僉節制使),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등이 있다.

宣惠廳(선혜청) :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서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郎廳).

司贍寺(사섬시)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때 폐지한 다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 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 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漕川寺(준천사) : 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奎章閣(규장각) : 成宗朝때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正祖(正祖)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教,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梁誠之의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

③ 內·外命婦 品階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 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職品)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직품에는 정(正)과 종(從)이 있고 각 九품(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十八계단이 있는 셈이다.

빈(嬪)=정一品, 귀인(貴人)=종一品, 소의(昭儀)=정二품, 숙의(淑儀)=종二품, 소용(昭容)=정三품, 숙용(淑容)=종三품, 소원(昭媛)=정四품, 숙원(淑媛)=종四품

상궁(尙宮)·상의(尙儀)=정五품, 상식(尙食)=정五품, 상침(尙寢)·상공(尙功)=정六품, 상정(尙正)·상기(尙記)=종六품, 전빈(典賓)·전의(前衣)·전선(典鑪)=정七품,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종七품,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정八품, 전등(典燈)·전채(典彩)·전정(典正)=종八품, 주상(奏商)·주각(奏角)=정九품, 주변치(奏變絃)·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종九품.

外命婦(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한자의 봉작(封爵)을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二품이상 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竝用)한다.

王室關係(왕실관계) : 공주(公主)=왕의 적녀(嫡女), 옹주(翁主)=왕의 서녀(庶女), 부부인(府夫人)=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一品, 봉보부인(奉保夫人)=왕의 유모)종一品, 군주(郡主)=왕세자의 적녀)正二品, 현주(縣主=왕세자의 서녀)正三品.

宗親妻(종친의처) : 부부인(府夫人=대군의 처) 正一品, 군부인(郡夫人=왕자인 군의 처) 正一品, 현부인(縣夫人)正·從二

品, 신부인(愼夫人=당상관의 처)正三品, 신인(愼人)正·從三品, 혜인(惠人)正·從四品, 온인(溫人)正·從五品, 순인(順人)正·從六品.

文武官妻(문무관의 처) : 정경부인(貞敬夫人)正·從一品, 정부인(貞夫人)正·從二品, 숙부인(淑夫人=당상관의 처)正三品, 숙인(淑人)從三品, 영인(令人)正·從四品, 공인(恭人)正·從五品, 의인(宜人)正·從六品, 안인(安人)正·從七品, 단인(端人)正·從八品, 유인(孺人)正·從九品

④ 東班官職(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써
사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正一品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從一品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 : 통정대부(通政大夫),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

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從三品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正四品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從四品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正五品 : 통덕랑(通德郎), 통선랑(通善郎)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郎), 병직랑(秉直郎)

從五品 : 봉직랑(奉直郎), 봉훈랑(奉訓郎)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郎), 신절랑(慎節郎)

正六品 : 승의랑(承義郎), 승훈랑(承訓郎)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郎)

從六品 : 선교랑(宣敎郎), 선무랑(宣務郎)

正七品 : 무공랑(務功郎)

從七品 : 계공랑(啓功郎)

正八品 : 통사랑(通仕郎)

從八品 : 승사랑(承仕郎)

正九品 : 종사랑(從仕郎)

從九品 : 장사랑(將仕郎)

⑤ 西班官職(서반관직=무관)

正一品으로 부터 從二品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三品 : 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

軍) 당하관(堂下官).

從三品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 :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 :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 : 둔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從六品 :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正七品 : 적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 : 분순교위(奮順校尉)

正八品 : 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 : 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 : 효력부위(效力副尉)

從九品 : 전력부위(展力副尉)

⑥ 官職品階(관직품계文·武)

正一品官 :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師), 부(傅) 사, 부는 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위(尉) 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品 혹은 종一品을 제수한다.), 감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 :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관직), 사부(師傅) 세손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 : 군(君), 위(尉) 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

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 :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삼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삼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삼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中軍=정삼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중삼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 :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중삼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砥事), 직각(直閣=중삼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중삼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중삼품까지 있음), 宣傳官(선전관=중삼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

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
천총(別後部千總),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 :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
(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
禮), 익례(翼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舉),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
사가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
節制使), 우후(虞侯=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
관(宣傳官)

正四品官 :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
관(侍講官), 응교(應敎),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
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
(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四품까지있음), 선
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
지 있음)

從四品官 :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
(司), 창(倉)의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명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
(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
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正五品官 :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
(正郎),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
(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
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곤(記注
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 :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
종九품까지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校理), 좌권독(左勸

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暑),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 : 감(監=종친부의벼슬), 좌랑(佐郎),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 : 주학교수(籌學教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教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教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教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教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教授), 교수(教授), 부수찬(副受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술(左衛率), 우위술(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引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教授), 한학교수(漢學教授), 선화(善畵),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郎廳=선혜정의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 :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술(左副率), 우부술(右副率), 낭청(郎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 :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

정(副司正), 별회(別會)

正八品官 :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있음), 사맹(司猛)

從八品官 :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畫吏), 부사맹(副司猛)

正九品官 :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轄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座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從九品官 :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教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官),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⑦ 外官職(외관직=지방관)

외관(外官) 즉 지방관서(地方官署)의 직위로서 각 도(道=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등 八도를 말함)에 관찰사(觀察使=때에 따라 감사(監司)라고도 하였음) 一명과 도사(都事) 一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府尹), 목사(牧使),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등의 수령(守令)을 두었으며 주요 도(道=길을 말함)의 역(驛)을 담당할 찰방(察訪) 또는 역승(驛丞)을 두

었다. 그리고 각 도와 부(府), 주(州)등 큰 고을에 교수(教授),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등 관직을 두었다.

각 고을의 수령 관직은 다음과 같다.

從二品=부윤(府尹) : 경주(慶州), 전주(全州), 평양(平壤), 의주(義州), 함흥(咸興)

正三品=목사(牧使) : 광주(廣州=광주목사에 한하여 품二품), 여주(驪州), 파주(坡州), 양주(楊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홍주(洪州), 상주(尙州), 진주(晉州), 성주(星州), 나주(羅州), 제주(濟州), 광주(光州), 능주(綾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안주(安州), 정주(定州), 길주(吉州),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 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正三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안동(安東), 창원(昌原), 강릉(江陵), 영흥(永興), 영변(寧邊)=영변은 절도사가 겸임한다.

從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 수원(水原), 부평(富平), 남양(南陽), 이천(利川), 인천(仁川), 장단(長湍), 풍덕(豐德), 통진(通津), 교동(喬桐=교동은수사(水使)가겸임한다), 죽산(竹山), 청풍(淸風), 대구(大邱=관찰사가 겸임한다), 김해(金海), 영해(寧海), 밀양(密陽), 선산(善山), 청송(靑松), 함양(咸陽), 울산(蔚山), 동래(東萊), 거제(巨濟), 거창(居昌), 하동(河東), 인동(仁同), 순흥(順興), 칠곡(漆谷), 남원(南原), 장흥(長興), 순천(順天), 담양(潭陽), 여산(礪山), 장성(將城), 무주(茂朱), 연안(延安), 평산(平山), 서흥(瑞興), 곡산(谷山), 웅진(瓮津=수사가 겸임한다), 장연(長湍), 회양(淮陽), 양양(襄陽), 춘천(春川), 철원(鐵原), 삼척(三陟), 영월(寧越), 이천(伊川), 안변(安邊), 경성(鏡城=절도사가 겸임한다), 경원(慶源), 회령(會寧), 온성(穩城), 경흥(慶興), 부령(富寧), 북청(北靑=절도사가 겸임한다), 덕원(德源), 정평(定平), 갑산(甲

山), 삼수(三水), 단천(端川), 명천(明川), 무산(茂山), 강계(江界), 창성(昌城), 성천(成川), 삭주(朔州), 구성(龜城), 숙천(肅川), 중화(中和), 자산(慈山), 선천(宣川), 철산(鐵山), 용천(龍川), 초산(楚山), 삼화(三和), 함종(咸從)

從四品 = 군수(郡守)

◎ [경기도] 양근(陽根), 안산(安山), 삭녕(朔寧), 안성(安城), 마전(麻田), 고양(高陽), 김포(金浦), 교하(交河), 가평(加平)

◎ [충청도] 임천(林川), 단양(丹陽),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천안(天安), 서산(瑞山), 괴산(槐山), 옥천(沃川), 온양(溫陽), 대흥(大興)

◎ [경상도] 함천(陝川), 초계(草溪), 청도(淸道), 영천(永川), 예천(醴泉), 영주(榮州), 흥해(興海), 양산(梁山), 함안(咸安), 금산(金山), 풍기(豊基), 곤양(昆陽)

◎ [전라도] 보성(寶城), 익산(益山), 고부(古阜), 영암(寧岩), 영광(靈光), 진도(珍島), 낙안(樂安), 순창(淳昌),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 [황해도] 봉산(鳳山), 안악(安岳), 재령(載寧), 수안(遂安), 백천(白川), 신천(信川), 금천(金川)

◎ [강원도]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평창(平昌)

◎ [함경도] 문천(文川), 고원(高原)

◎ [평안도] 상원(祥原), 덕천(德川), 개천(价川), 가산(嘉山), 곽산(郭山), 순천(順川), 희천(熙川), 벽동(碧潼), 운산(雲山), 박천(博川), 위원(渭原)

從五品 = 현령(縣令)

◎ [경기도] 용인(龍仁), 진위(振威), 영평(永平), 양천(陽川)

◎ [충청도] 문의(文義)

- ◎ [경상도] 영덕(盈德), 경산(慶山), 고성(固城), 의성(義城), 남해(南海)
- ◎ [전라도] 창평(昌平), 용담(龍潭),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 ◎ [황해도] 신계(新溪), 문화(文化=우봉(牛峰)이라고도 하였음)
- ◎ [강원도] 금성(金城), 울진(蔚珍), 흙곡(歙谷)
- ◎ [평안도] 용강(龍岡), 영유(永柔), 증산(甑山), 삼등(三登), 순안(順安), 강서(江西)

從六品 = 현감(縣監)

- ◎ [경기도] 지평(砥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과천(果川), 금천(衿川), 연천(漣川), 음죽(陰竹), 양성(陽城), 양지(陽智).
- ◎ [충청도] 홍산(鴻山), 제천(堤川),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연풍(延豐), 음성(陰城), 청안(淸安), 은진(恩津), 진잠(鎭岑), 회덕(懷德), 연산(連山), 이성(尼城=작산(作山)이라고도 하였음),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진천(鎭川),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보은(報恩), 영천(永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아산(牙山)
- ◎ [경상도] 개령(開寧), 삼가(三嘉),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淸河), 언양(彦陽), 칠원(漆原), 진해(鎭海), 진보(眞寶), 문경(聞慶), 함창(咸昌), 지례(知禮), 안의(安義=안음(安陰)이라고도 하였음), 고령(高靈), 현풍(玄風), 산청(山淸=산음(山陰)이라고도 하였음), 단성(丹城), 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장기(長淸), 영산(靈山),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張), 웅천(熊川), 자인(慈仁), 영양(英陽)

- ◎ [전라도] 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강진(康津), 옥과(玉果), 고산(高山), 자인(慈仁), 옥구(沃溝), 남평(南平), 흥덕(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구례(求禮), 곡성(谷城), 운봉(雲峰),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해남(海南), 대정(大靜), 정의(旌義), 진원(珍原), 삼계(森溪)
- ◎ [황해도] 장연(長淵), 송화(松禾), 강령(康翎), 은울(殷栗), 토산(土山), 강음(강음)
- ◎ [강원도] 평강(平康), 금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 ◎ [함경도] 홍원(洪源), 이성(利城)
- ◎ [평안도] 양덕(陽德), 맹산(孟山), 태천(泰川), 강동(江東), 은산(殷山)

이상과 같이 외방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이조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외에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判官)을 배치하고 있다.

從四品=서윤(庶尹) : 평양(平壤)

從五品=판관(判官) : 공주(公州), 대구(大丘=현大邱邑), 전주(全州), 제주(濟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함흥(咸興)

官職에 關한 一般常識

文班의 內外職

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內職와 外職으로 구분된다. 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京官職을 말하고, 外職은 觀察使, 府尹, 牧使, 府使, 郡守, 縣令, 判官, 縣監, 察訪등 지방관직을 말한다. 內職중에서도 玉堂와 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玉堂」이란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副提學이하 應教, 敎理, 副敎理, 修撰등을 말하고, 「臺諫」은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직으로서 司憲府의 大司憲, 執義, 掌令, 持平, 監察과 司諫院의 大司諫, 司諫, 獻納, 正言등을 가리킨다.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을 三司라 했는데, 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 「清要職」이라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三司는 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黨爭을 격화시키는 한원인을 이루는등, 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湖堂

族譜을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文臣중에는 「湖堂」을 거친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湖堂이란 讀書堂의 별칭으로서 世宗때 젊고 유능한 文臣을 뽑아 이들에게 恩暇를 주어 讀書(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賜暇讀書」라고 하여 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길도 빨랐다.

文衡

文科를 거친 文臣이라도 반드시 湖堂출신이라야만 「文衡」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文衡이란 大提學의 별칭인데, 文衡의 칭호를 얻으려면 弘文館大提學과 藝文館大提學, 그리고 成均館의 大司成 또는 知成均館事를 겸직해야만 했다. 文衡은 이들 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職이므로 더 할 수 없는 명예로 여겼고 品階는 비록 判書級인 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三公(領議政·左議政·右議政)이나 六卿(六曹判書)보다 윗길로 쳤다. 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最年少기록을 세운 이는 漢陰 李德馨인데, 그는 二〇세에 文科에 올라 二三세에 湖堂에 들었고 三一세에 六衡이 되었으며, 三八세에 벌써 右議政이 되어 四二세에 領議政에 이르렀었다.

銓曹

요즈음에도 行政府의 각 部에 서열이 있듯이, 六曹중에서도 文官의 人事銓衡을 맡은 吏曹와, 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兵曹를 「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吏曹와 兵曹의 관원은 「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明宗때에 申光漢이 兵曹參判이 되고 宋麒壽가 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 관계가 있다하여 申光漢을 申瑛으로 교체했다. 또 肅宗때에는 洪命夏가 李朝判書로 있을때 洪重普가 兵曹判書가 되었는데, 洪重普는 洪命夏의 형 命耆의 아들이므로 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兵曹判書를 탄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政丞은 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朴元宗·柳成龍·朴淳·金錫胄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兵曹는 軍政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明宗때 備邊司가 상설되면서 壬亂후로는 備邊

司가 軍政을 관장하여 兵曹의 권한이 약화 되었다.

吏曹正郎·佐郎의 權限

吏曹에서도 특히 正郎(정五品)과 佐郎(정六品)이 人事행정의 실무 起案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銓郎」이라 일컬었다. 銓郎은 三司관원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任免은 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銓郎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銓郎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宣祖때 沈義謙과 金孝元이 이 銓郎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東人·西人의 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品階가 낮는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行」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 一品인 「崇正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 二품인 嘉善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 二품직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守太保」나 「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청의 係長級인 事務官이 書記官의 보직인 課長 자리에 임명되면 「守」, 그 반대의 경우면 「行」이되는 셈이다. 또 高麗末~朝鮮 初의 인물에 「檢校

門下侍中」이니 「儉校政丞」이니 하여 「儉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말지 않은 臨時職 또는 名譽職을 말한다.

耆社(耆老所)

「耆社」라는 것은 耆老所(기로소)의 별칭으로서, 太祖때 부터 老臣들을 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〇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러므로 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同參하는 것이라 하여 官廳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耆老宴 또는 耆英會라 했다. 따라서 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泗川陸氏의 陸詹·陸叙欽·陸來善의 三代가 耆社에 連入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文科를 거친 文官이어야 했으며, 武官이나 蔭官은 들수 없었다. 眉叟許穆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82세나 되어서도 文科를 거치지 않았다가하여 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耆社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朝鮮朝 초기에는 文科를 거치지 않은 蔭官이나 武官 또는 나이 七〇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耆社에 들었는데, 權僖·金士衡·李居易·李茂·趙浚·崔潤德·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致仕와 奉朝賀

옛날에는 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官員으로서 나이 七〇세가 되면 「致仕」를 허락했는데, 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것을 말한다. 이들에겐 「奉朝賀」란 칭호를 주고 終身토록 그 品階에 알맞는 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奉朝賀의 定

員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睿宗때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奉朝賀가 된사람은 洪達孫·崔濡·安慶孫·李蒙哥·柳淑·柳泗·裊孟達·鄭守忠·韓瑞龜·宋益孫·柳漠·咸禹治·韓堡·尹贊·韓致亨등이다.

几杖

그러나 나이 七〇세가 넘어서도 政事때문에 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중에서도 정一品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几杖(계장)」을 下賜했는데, 「几」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几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几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入耆社」나 「奉朝賀」나 「賜几杖」이니 하는 것은 큰 명예로 여겨졌으므로 族譜에 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諡號 (諡號文字의 定義)

또 宗親과 文·武官중에서 정二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提學이나 儒賢·節臣등은 정二품 이 못되어도 諡號를 주었다. 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行狀을 적은 諡狀을 禮曹에 제출하면 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奉牀寺를 거쳐 弘文館에 보내어 諡號를 정하게 된다. 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 「周公諡法」이니 「春秋諡法」이니 하여 中國古代 이래의 諡法이 많이 적용 되었던 듯하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등등 一二〇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

로 만들고 諡號 아래 「公」자를 붙이여 부른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의 定義의 그 代表的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 經天緯地 道德博聞 敏而好學 博學好文 勤學好問 博學多職
慈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忠]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貞] 清白守節 清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襄]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冑有勞 僻地有德

[靖]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良]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慮行節 協時榮享

[莊] 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强 致果殺賊
好勇致力

[安]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 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慎高明

[平] 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武] 折衝禦侮 克定禍亂 剛強以順 保大定功 威強敵德 刑民克服
陰僞寧眞

[敬] 民夜做戒 夙興恭事 令善典法 善合法度

[惠] 柔質慈仁 柔質慈民 心性慈祥

[剛] 守義不屈 強毅果敢 致果殺敵 追補過前 強而能斷

[義]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而不賓

[度]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族譜에는 물론 墓碣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諡號를 받느

나 하는것은 그 자손과 一族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諡號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諡號중에도 「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諡號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崇文주의로 인한 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儒賢들의 諡號

한편 임금의 특별한 敎示가 있을때는 자손의 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弘文館과 奉常寺에서 직접 諡號를 議定했는데, 이는 退溪李滉에게 「文純」이란 諡號를 내려준데서 비롯했다. 정二품 벼슬이 못 되었으면서 諡號를 추증받은 儒賢으로는 金弘弼(文敬公)·鄭汝昌(文獻公)·徐敬德(文康公)·趙光祖(文正公)·金長生(文元公)등이 있다.

武人の 諡號

武人の 諡號로는 「忠武」가 가장 영예로움직하며, 특히 「忠武公」하면 李舜臣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도 趙英茂·南怡·龜城君俊·鄭忠信·金時敏·金應河·李守一·具仁厚등 忠武公이 八명이나 있다.

門蔭과 薦舉

「門蔭」은 글자 그대로 門閥의 蔭德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자나 名臣·功臣·儒賢·戰亡者·清白吏등의 자손들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薦舉」는 士林

중에서 學行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인사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門蔭」과 「薦舉」를 아울러서 蔭仕·蔭職 또는 南行이라 일컬었다.

隱 逸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追贈(추증)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증부모는 각각 一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 一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 一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 三품을 증직한다. 一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贈諡(증시) : 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 二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

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二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大院君(대원군) : 王의 대를 이을嫡子孫이 없어 傍系 親族이 王의 大統을 이어 받을때 그 王의 親父에게 주는 職任

府院君(부원군) : 왕의 丈人 또는 一等 功臣에게 주던 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실지명을 앞에 붙인다. 例 : 海恩府院君

宰相(재상) : 國王을 補弼하고 文武 百官을 指揮監督하는 地位에 있는 二品 以上の 官職을 通稱한다.

院相(원상) : 王이 昇遐하면 잠시 政府를 맡던 監時職. 新王이 卽位하였으나 喪中이므로 來哭까지와, 或은 王이 어려서 政務의 能力이 없을 때 大妃의 攝政과 함께 衆望이 있는 元老宰相級 또는 原任者中에서 몇분의 原相을 뽑아 國事를 處決한다.

三公六卿(삼공육경) : 李朝때 領議政·左議政·右議政등 三政丞을三公이라 하고, 六曹의 判書를 六卿이라 한다.

事(사) : 領事·監事·判事·知事·同知事등의 官職은 官司위에 領·監·判·知·同知字를 두고 事는 官司밑에 쓴다. 例 : 領敦寧府事 監春秋館事 同知中樞府事

除授(제수) : 벼슬을 내릴때에 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直接 任命하거나 昇進시키는 것. 이를 除拜라고 한다.

原從功臣(원종공신) : 各等功臣 以下에 小公이 있는 자에게 주는 稱號

檢校(검교) : 高麗末 李朝初에 定員 以上으로 벼슬자리를 臨時로 늘리거나 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앞에 붙던 말 卽 監時職 또는 名譽職이다.

例 : 檢校軍器監(三品以上 官에만 썼다)

大提學(대제학) : 大提學을 文衡이라고도 한다. 文衡은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에 成均館大司成이나 知事를 兼任해야만 한다. 大提學은 正二品の 官階이지만 學問과 道德이 뛰어나고 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碩學 碩儒만이 오를수 있는 地位인데 學者와 人格者로서의 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一門의 큰 名譽로 여기었다.

大提學候補選定은 前任 大提學이 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三政丞 左右贊成 左右參贊六曹判書 漢城府判尹 등이 모여 多數決로 定한다. 大提學은 本人이 辭任하지 않는限 終身職이다.

清白吏(청백리) : 清白吏는 그의 人品, 經歷, 治績등이 能히 모든 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人物이어야만 清白吏로 錄選된다. 清白吏로 뽑히면 品階가 오르고 그 子孫은 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特典이 있다. 따라서 本人은 물론 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清白吏는 議政府, 六曹, 漢城府의 二品以上の 官員과 大司憲, 大司諫등이 候補者를 嚴格한 審査를 거쳐 王의 裁可를 얻어 錄選한다.

不遷位(불천위) : 德望이 높고 國家에 큰 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永遠히 祠堂에 모시도록 國家에서 許可한 神位

弘文錄(홍문록) : 홍문관의 長은 領事라하여 영의정이 例兼하고, 그 밑에 大提學·提學은 他官이 兼職하고 副提學·直提學은 都承旨가 겸하고 典翰(중三品)以下 應教(正四品)등 正九品 正字까지는 다 經筵을 兼帶하였는데 副提學에서 副修撰(중六品)까지는 또 知製教를 겸하였다.

知製教는 王의 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외에 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文官 六品以上中에서 抄啓하여 知製教를 겸임케하는 일도 있어 前者를 內知製教後者를 外知製教라 했다. 또 弘文官은 經筵官을 例兼한데다가 職司中에도 王의

顧問에 응하는 條項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 사간원과 아울러 言官의 三司라고 한다. 弘文館員 즉 玉堂의 任은 이와같이 淸要하므로 그 銓選 또한 審愼을 極하여 文科榜目이 나오면 弘文館의 七品以下 官이 모여 그 中에서 玉堂적임자를 뽑아 副提學以下 應教·校理·修撰등이 거기에 圈點을 부치니 이것이 「弘文錄」또는 「本館錄」이란 것이며, 이것을 다시 議政·贊成·參贊·吏曹三堂上들이 모여 제 二차 圈點을 부치니 이것을 「都堂錄」이라 했는데, 이것을 王께 상주하여 次點以上의 得點者(定員數內의)를 차례로 校理·修撰에 임명하였다.

翰林(한림=正九品) : 藝文館의 奉教(正七品)以下를 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最末職인 檢閱의 通稱이니 翰林의 職品이 비록 最下職이나 그 職이 淸宦인데다가 實際직무가 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史官노릇을 하기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重要視되어 이의 選任은 가장 신중을 極하고 따라서 그 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末席의 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密室에서 薦次(薦次)를 評定하고, 이어 曾經翰林과 藝文·弘文 관당상에게 廻示하여 다 異義가 없는 뒤에야 設壇·焚香하고 천지에 誓告하기를 「秉筆之任 國家最重 薦非其人 必有其殃」이라하고 다음 三政丞과 贊成·參贊·兩館提學·吏曹堂上이 모여앉아 被薦人으로 하여금 綱目 左傳, 宋鑑等書를 試講케하여 석차를 定하였다. 이것은 翰林이 史官으로서 萬古是非의 權을 잡는 사람이기에 公正하고 有能한 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英祖十七年에 舊薦法이 堂論과 關涉하는 폐가 있다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 曾經翰林三人이 모여 文科榜目中에서 翰林후보자를 뽑아내어 圈點을 쳐서 二人以上의 投點을 얻은 者로 取

하니 이른바 「翰林合圈」이요, 翰林이 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에서 이를 行하니 이것이 소위 「都堂會圈」이다. 이리하여 적임자로 약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사람만을 得点順대로 補任하였는데, 비록 補職을 못받더라도 圈內에 參入된것만으로도 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공지가 컸으니, 翰林은 이와같이 榮光스럽던 것이다.

監察(감찰=從六品) : 비록 司憲府의 最末端職이나 獨立된 監察廳에 屬하여, 外國으로의 使行, 朝廷에서의 禮會, 國庫의 出納, 科擧現場, 祭祀節次等 모든 것에 다 臨檢하여 違例犯則을 戒察할수 있는 權限이 대단하여 監察이라면 누구든 벌벌 떨었다 하며, 비록 王子大君이나 貴族名士들도 이들이 聯袂·出動할 때에는 下馬, 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任用에는 매우 慎重極擇하여 한번 選任되면 반드시 추의누색(龜衣陋色=土色團領을 입음)과 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定員은 二十四名

三司(삼사) : 李朝時代의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을 合稱한 말로서 三司의 官員은 學識과 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任命한다. 國家重大事에 關하여는 連合하여 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合司伏閣이라 하여 소속 官員이 闕門에 엎드려 王의 聽從을 强請하기도 한다.

賜牌地(사패지) : 高麗·李朝때 國家에 功을 세운 王族과 官吏에게 주는 土地. 土地의 收租權을 個人에게 讓與한것으로 一代限과 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賜牌에 可傳永世의 明文이 있는 것은 三代世襲을 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明文이 없으면 一代限으로 國家가 還收키로 한 것이나, 還收하지 않고 代대로 永世私有化가 됐다. 宣祖以後에는 賜牌記錄만 주고 實際로 土地는 賜給하지 않았다.

禮葬(예장) : 正一品以上の 文武官 및 功臣이 卒하면 國家에서 禮

- 儀를 갖추어 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一種의 國葬이다. 이외의 禮葬範圍는 대체로 參贊·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特旨가 있는 경우에 限하였다.
- 葬日(장일) : 官員이 卒하면 四品以上은 三個月, 五品以下는 一個月이 지나야 葬事한다.
- 墓地(묘지) : 墓地는 境界를 定하여 耕作·牧畜을 禁하고, 墓地境界는 一品은 墳墓를 中心으로 四面九十步, 二品은 四面八十步. 三品은 卍免七十步, 四品은 四面六十步, 五品以下는 四面五十步, 七品以下와 生員·進士는 四面四十步, 庶人은 四面十步
- 配享(배향) : 功臣·名臣 또는 學德이 높은 學者의 神主를 宗廟나 文廟·書院등에 享祀하는 일
- 致祭(치제) : 國家에 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學行과 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祭祀
- 加資(가자) : 正三品 通政大夫 以上の 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 旌閭(징려) : 特異한 行實에 對한 國家의 表彰. 忠臣 孝子 烈女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旌門을 세워 表彰하였다.
- 堂上官(당상관) : 官階의 한 區分. 文官은 正三品인 通政大夫以上, 武官은 正三品인 折衝將軍 以上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 文官은 正三品인 通訓大夫以下 從九品인 將仕郎까지, 武官은 正三品인 禦侮將軍以下 從九品인 展力副尉까지를 通稱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 堂下官中 六品以上은 參上, 七品以下는 參下 또는 參外라고도 한다.
- 陞六(승륙) : 七品以下의 官品이 六品 卽 參上으로 오르는 것.
- 郎廳(낭청) : 各官司에 勤務하는 堂下官의 總稱이다.
- 權知(권지) : 새로 文科에 及第한 사람을 承文院 校書館에 分屬하여 權知라는 名稱으로 實務를 修習하게 한다. 卽 벼슬 候補者

筮仕(서사) : 처음으로 官職에 나감.

各官의 任期(각관의 임기) : 中央 各官司의 六品以上 堂上官은 三
〇月,

兵曹判書 觀察使 留守는 二四月,

守令은 三〇月 乃至六〇月, 兵使, 水使는 二四月

士林(사림) : 벼슬하지 않고 隱居하는 德望이 높은 선비.

幼學(유학) : 士大夫의 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統禦使(통어사) : 李朝後期에 京畿 忠淸 黃海道등 三道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 京畿水使가 兼職한다.

統制使(통제사) : 壬辰倭亂때 設置. 忠淸 全羅 慶尙道등 삼도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 全羅水使가 兼職한다.

防禦使(방어사) : 仁祖(인조)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등
요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邊將이 겸함.

都巡撫使(도순무사) : 李朝때 戰時나 地方에서 叛亂이 일어났을
때 軍務를 統轄하는 臨時官職

體察使(체찰사) : 地方에 軍亂(軍亂)이 있을때 王의 代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軍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관직. (재상이
겸임함)

祭酒(제주) : 成均館의 堂上官職으로 補하되 學行과 名望이 높은
선비에 除授한다.

暗行御史(암행어사) : 王이 信任하는 젊은 堂下官中에서 뽑아 秘
密히 地方에 보내 現職·前職 地方官의 善行과 非行, 百姓의
事情·民政·軍政의 實情, 숨은 美談·烈女·孝行의 行績등
을 조사·보고하게하는 臨時職. 御史로 뽑혀 王에게서 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않고 卽時 出發하며, 驛馬와 驛卒등을 利
用할 驛牌를 받는다. 必要할때에는 驛牌로써 自己의 身分을
밝히고(御史出頭) 非行이 큰 守令이면 즉시 封庫罷職하며, 地
方官을 代身하여 裁判도 한다. 父母喪이나 國葬이 있어도 任

務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園(원) : 王世子 또는 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王位에 오르지 못하고 死亡한 분과, 王의 生母로 先王妃가 아닌 分의 墓所.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職品)은 별표를 참조하기 바라며, 정·종(正·從) 각 구품(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십팔계단이 있는 셈이다.

外命婦(외명부) : 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 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儒人)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二품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並用)한다.

翁主(옹주) : 王의 正室 以外的 딸

號牌(호패) : 李朝때 十六歲以上の 男子가 차고 다니던 牌.

지금의 住民登錄證과 같다. 表面에는 住所, 姓名, 職業本貫, 年齡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發行官廳名을 烙印했다. 身分에 따라 牙牌, 角牌, 黃楊木牌, 小方木牌, 大方木牌로 區分되었다.

字(자) : 家名외에 붙이는 成人의 別名. 男子 二十歲가 되어 冠禮(아이로서 聖人이 되는 禮式)를 行하여 成人이되면 字가 붙는다.

忠義衛(충의위) : 忠贊衛(충찬위) : 功臣, 原從功臣의 子孫으로
 構成하는 忠佐衛所屬部隊를 말함
 親功臣 : 自身이 세운 勳功으로 새로히 功臣稱號를 받고 封爵된
 사람임

交聘考

使臣의 種類

一. 定期使

- ① 定朝使 : 매년 원단(元旦)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
- ② 聖節使 : 중국 황제의 탄일(生日)에 보내던 사신
- ③ 千秋使 : 중국 황후의 탄일(生日)에 보내던 사신
- ④ 歲幣使 : 매년 음력 십월에 공물(貢物)을 갖고 가던 사신
(使臣)
- ⑤ 冬至使 : 매년 동지절(冬至使)에 보내던 사신(使臣)

二 臨時使

- ① 謝恩使 : 중국 황제가 조선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好意)를 베풀었을때에 사례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 ② 進賀使 : 중국 황실에 경사(慶事)가 있을때에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 ③ 奏請使 : 나라일(國事)에 대하여 중국 황제에게 주청(奏請)할 일이 있을 때에 보내던 사신(使臣)
- ④ 陳奏使 : 중국에 통고(通告)할 일이 생겼을 때에 임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 ⑤ 辯誣使 : 중국에서 조선에 대하여 곡해(曲解)하는 일이 있을때에 정정·해명(訂正·解明)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
- ⑥ 陳慰使 :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때에 조위차(弔慰次) 보내던 사신(使臣)
- ⑦ 進香使 :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어서 부고(訃告)가 왔을 때에 향(香)을 보내기 위해 보내던 사신
- ⑧ 訃告使 : 조선 왕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에 부고(訃告)를 전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 ⑨ 參覆使 : 두 나라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중국에서 지정하는 지점(地點)으로 보내는 사신(使臣)
- ⑩ 遠接使 : 중국 사신(使臣)을 먼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기 위한 임시관직(臨時官職)
- ⑪ 伴送使 : 중국 사신(使臣)을 호송(護送)하는 臨時官職
- ⑫ 館伴使 : 서울에 묵고있는 외국 사신(使臣)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정삼품 벼슬.
- ⑬ 瀋陽使 : 청국 심양(瀋陽:清國의 首都)에 보내는 사신(使臣)
- ⑭ 通信使 : 조선에서 일본(日本)에 보내던 외교사절(外交使節)
- ⑮ 監賑使 : 진휼(賑恤)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 ⑯ 慰諭使 : 천재지변(天災地變)과 그밖의 재난(災難)이 있을 때에 백성을 위무(慰撫)하고 타이르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 ⑰ 按撫使 : 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난(災難)이 있을때에 왕명(王命)으로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按撫)하는 임시관직
- ⑱ 按覈使 : 지방에 사건(事件)이 생겼을 때에 안찰핵실(按察覈實)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던 임시직
- ⑲ 整理使 : 동가(動駕)때에 행재소(行在所)의 수리(修理)와 그밖의 일을 맡은 임시직, 이는 호조판서가 전임(專任)한다.
- ⑳ 頓遞使 : 국장(國葬)때 길이 주식(酒食)을 마련하며 군대(軍隊)와 인부(人夫)등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맡은 임시직(判尹으로 任命)

제 2 장

향 토 사

우리고장 사찰 탐방

(사찰문화연구원 발행 전통사찰 총서 강원도 2편에서)

- 편집실 제공 -

백담사

설악산에서 가장 수량이 풍부하다는 원시상태의 백담계곡은 찾아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아득한 옛날의 모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못 사람들을 남김없이 포용하되 사람의 때가 묻지 않는 백담계곡, 잘나고 오만한 생각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대자연속에 가득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설악의 백담계곡 속에 백담사가 있다.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사찰이 그러하듯이 이절도 647년(진덕여왕1)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하였다. 그러나 창건 당시에는 절이 현재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자장율사는 한계령 부근의 한계리에 절을 세우고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한 다음, 절이름을 한계사(寒溪寺)라 하였던 것이다. 창건한지 50여년 만인 690년(신문왕10)에 한계사는 불타버렸고 30년 가까이 빈터만 남아 있다가 719년(성덕왕18)에 재건 하였는데, <백담사 사적기>에는 이때의 중건과 관련된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곧, 지금은 강원도 화천군으로 바뀐 낭천현(狼天縣)에는 비금사(琵琶寺)가 있었으며 주위의 산은 짐승들이 많아 사냥꾼들이 많이 찾아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의 산수가 매우 부정하여 졌지만, 비금사 승려들은 그것을 모른채 샘물을 길어 부처님에게 공양하였

다. 그와같은 두려움을 싫어한 산신령은 하룻밤 사이에 절을 설악산의 대승폭포 아래의 옛 한계사터로 옮겼다.

그 사실을 모르는 승려와 과객들이 아침에 깨어보니 절은 비금사는 틀림 없었지만 기암 괴석이 좌우에 늘어서고 전후에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 산은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몰라할 때 갑자기 관음청조 <觀音靑鳥>가 날아가면서 일러 주었다. “낭천의 비금사를 옛 한계사로 옮겼노라.”

지금까지도 이 전설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리고장 사람들은 춘천부근의 절구골, 한계리의 청동골 등의 지명이 절을 옮길때 청동화로와 절구를 떨어뜨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들 한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구전을 통하여 한계사를 중창할 때 비금사를 옮겨간 것임을 추정 할 수 있다. 그뒤 785년(원성왕1)에 다시 불탔으며, 종연(宗演)이라 하였다. 그러나 984년(성종3)다시 화재를 만났다. 이에 준희(俊熙)스님 등이 운흥사지 북쪽 60리쯤 되는 곳으로 이전하고 987년 심원사(深源寺)로 개명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약450년 동안은 별다른 변화없이 전승되다가 1432년(세종14) 네번째 화재로 다시 폐허가 되었다. 그뒤 2년 만에 아래로 30리쯤 되는 곳에 법당과 요사채를 세우고 선구사(旋龜寺)라 하였으나 1443년에 불타버렸고, 1447년 옛터의 서쪽 1리쯤 되는 곳에 다시 절을 세워 영축사(靈鷲寺)라 하였다. 그러나 1455년의 여섯번째의 화재로 영축사가 불타자, 이듬해 재익(載益)·재화(載和)·신열(愼悅)스님이 상류 20리 지점으로 옮겨 중건하고 백담사라 하였다. 1772년(영조51) 겨울에 다시 불타버리자, 1775년 최봉(最鵬)·태현(太賢)·태수(太守)스님이 초암을 짓고 6년동안 머물면서 법당과 향각(香閣)등의 건물을 중건하고 심원사(深源寺)라 하였으며, 1783(정조7)년 절이름을 백담사로 다시 바꾸었다.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때까지 7차에 걸친 화마(火魔)가 닥

쳤고, 그때마다 터전을 옮기면서 이름을 바꾼 백담사! 백담사라는 이름은 골이 깊고 흐르는 물의 연원으로 부터 먼 곳에 자리한 절이라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듭되는 화재를 피해 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진 이름이라는 것이 다음의 전설을 볼 때 확실해 진다.

거듭되는 화재로 고심을 하고 있던 사승(寺僧)의 꿈에 어느날 노승(老僧)이 나타났다. 현몽한 노승은 대청봉에서 1백개째에 있는 웅덩이(潭)옆에 절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튿날 스님은 노승이 점지한 대로 절터를 잡아 중건하고 절이름 또한 웅덩이 ‘潭’자를 넣어 백담사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 백담사에는 오랫동안 화재가 없었다.

그러나 1915년 겨울밤에 일어난 화재는 불상과 탕화 20여 위(位)를 제외한 건물 70여 칸과 경전·범종까지도 모두 태워버렸다. 당시의 주지 인공(印空) 스님은 사무(寺務)를 오세암에서 행사하면서 백담사의 중건에 착수하였고, 기호(基鎬)와 인순(仁淳)스님 등이 강원도 일대를 다니면서 받은 시주금으로 1919년 5월에 법당 20칸과 화엄실(華嚴室) 16칸을 비롯하여 응향각(凝香閣)·사무실 등 30칸을 이룩하고, 종과 북을 새로이 주조하여 낙성법회(落成法會)를 열었다. 한용운(韓龍雲)스님이 <백담사사적>을 편찬한 1928년 당시의 백담사는 복구가 끝나고 정리가 되어 있을 때였다.

근대에 이르러 백담사는 한용운스님이 머물면서 <불교유신론 佛敎維新論>과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님의침묵>을 집필하는 장소가 되었고 만해사상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절은 6·25사변때 소실되었으며, 1957년 대웅전과 법화실, 화엄실을 중건하였다.

특히 이 절은 1988년 12월 전직의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이 은거하여 2년 동안 머물게 됨에 따라 세인들의 입에 크게 오르내렸다. 전직 대통령은 이곳에서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백일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대통령의 은거에 대해 ‘왜 백담사는 그를 받아들였는가’하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불법(佛法)이 아닌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은 탐욕이 많은 사람, 분노가 가득한 사람, 회한에 잠긴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법당 안의 부처님은 한 마디의 설법도 하지 않지만, 그 앞에서 정성으로 기도하는 이는 저절로 해답을 얻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도 그러했다. 모든 사람들이 질시(疾視)하고 있을 때 대자비의 품속에 들어와 편안히 머물도록 했던 부처님……. 백담사의 법당을 참배하는 이는 그 무엇보다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 백담사는 1992년말 완공예정으로 법당 오른쪽에 23편의 나한전(羅漢殿)을 신축하고 있다. 이 나한전의 내부에는 30cm 남짓한 청동 오백나한상을 모신다고 한다. 또한 법당 왼쪽에는 명부전과 전신사리탑(眞身舍利塔)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백담사의 현존건물로는 중심 법당인 극락보전(極樂寶殿)을 비롯하여 산령각(山靈閣)·화엄실·법화실·정문(正門)·요사채 등이 있으며, 뜰에는 삼층석탑 1기가 있고 옛 문화재는 남아 있지 않다.

극락보전

백담사의 법당인 극락보전은 1957년의 중건때 지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각지붕·다포계(多包系)·겹처마의 건물로서, 원래 대웅전(大雄殿)이라 하였으나 1991년의 증축불사때 극락보전으로 편액을 바꾸어 달았다. 현재의 편액은 전두환 대통령의 글씨이고, 1987년에 만든 정면문의 꽃창살은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으며, 외벽에는 수행자가 본성을 찾는 것을 목동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쪽의 심우도(尋牛圖)가 그려져 있다.

대웅전 내부는 우물천정이며, 중앙에는 혀를 길게 내민 청룡과

황룡이 대들보 위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중앙 불단에는 아미타 불좌상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에 좌정하고 있는데, 1m 남짓한 아미타불은 고개를 조금숙여 아래를 굽어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삼존불 뒤로는 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간략하게 만든 보궁형 단집이 있으며, 불단은 갖가지 조각을 아로새긴 최근의 것이다.

삼존불을 향하여 왼쪽에는 삼존불과 크기가 비슷한 지장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왼손에 육환장(六還杖)을, 오른손에 보주(寶柱)를 들고 있는 이 지장보살상은 머리 위에 두건을 쓰고 있고, 단아한 모습과 함께 온 얼굴에 번지고 있는 잔잔한 미소가 일품이다. 지장보살좌상 뒤로는 지장보살삼존과 명부시왕(冥府十王), 일직·월직사자 등이 묘사된 탱화가 있고, 위쪽에는 약식으로 만든 보개형(寶蓋形)단집이 갖추어져 있다.

삼존불을 향하여 오른쪽 바로 옆에는 칠성탱화(七星幀畫)가 있다. 이 탱화는 1960년에 그린 것으로, 중앙에는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일광(日光)·월광보살(月光菩薩)이 있으며, 그림을 3단으로 나눌때 윗쪽에는 7불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중간 단에는 칠원성군(七元星君)중 여섯 분과 남극성 등이 있으며, 아래쪽에 북두신(北斗神)을 중심으로 정자관을 쓴 여섯 분의 토속칠성이 시립해 있다. 상단에는 일곱 부처님을 모두 그려 넣고 중단과 하단의 칠원성군과 토속칠성중 여섯분씩만 그린 까닭을 알 수는 없으나, 정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지적해 둔다.

칠성탱화 옆에는 백색의 칠을 한 석가여래삼존불과 18나한상, 시봉·신장 등이 모셔진 불단이 있다. 중앙의 삼존불은 석가모니불과 제화갈라보살·미륵보살상인데, 들고 있는 연꽃이 부처님 쪽으로 향하고 있어 일반적인 삼존불 배치와 상치되고 있다. 곧 좌우보살의 연꽃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법이다. 따라서 이 두 보살상은 좌우가 뒤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

은 불상 뒤쪽에 걸어 놓은 나한탱화(羅漢幀畫)이다. 1927년에 그린 현재의 탱화에는 모두 130분의 나한상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오백나한도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래의 백담사에는 탱화 속에 그려진 한스님 한스님의 표정은 하나같이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고, 손모양이나 자세가 모두 다르다. 비록 오래된 작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오백나한도가 흔치 않다는 현실에 입각해 볼 때 이 탱화는 잘 보존되어야 할 가치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탱화 오른쪽으로는 1987년 9월에 그린 신중탱화(神衆幀畫)가 있다.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제석천과 대법천, 그리고 각종 신장들로 구성된 이 탱화는 붉은 바탕에 금으로 그린 것으로, 비록 최근작이나 정성을 다해 그린 흔적이 역력하다.

화엄실과 법화실

극락보전의 정면에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삼층석탑 1기가 있다. 지대석 위에 탱주도 우주도 없는 돌로써 기단부를 만들고, 그 위에 옥개받침 3단에 전체적인 체감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 3층의 집을 만들어 놓았으며, 상륜부에는 복발(覆鉢)형태의 둥근돌 하나를 올려 놓았다. 옛 석탑의 부재(部材)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 단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층석탑 좌우에는 현재 큰방으로 사용하는 화엄실과 주지실 및 전직 대통령이 기거했던 법화실이 있다. 지금은 현판이 붙어 있지 않지만, 백담사에 화엄실이라는 이름의 요사채가 최초로 건립된 것은 1919년이고, 법화실이 생긴 것은 1921년의 일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법당 좌우의 건물에 이름을 붙일 때 ‘심검당(尋劍堂)과 설선당(設禪堂)’ 또는 ‘선당(禪堂)과 승당(僧堂)’이라는 칭호를 많이 쓴다. 그런데 백담사에서는 화엄실과 법화실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곧 백담사가 선을 지향하기보다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공부하

는 강원(講院)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나타내어 주는 귀중한 사료가 되는 것이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와 같은 이름을 취하게 된 것이 한용운 스님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당시 스님은 백담사와 오세암에 많이 머물렀고, 또 한용운 스님이 화엄경을 통달한 고승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두 건물은 모두 정면 5칸에 측면이 3칸인데, 특이한 것은 극락보전 쪽의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그 반대쪽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협소한 공간에 넓은 집을 짓기 위해 법당 쪽을 맞배지붕으로 만든 것이리라. 그러나 건물을 지음에 있어 이와 같은 두 가지 지붕을 함께 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므로 자세히 살펴 보기 바란다.

산령각

극락보전 뒤쪽 좌측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을 취한 산령각이 있다. 설악산의 산신이 그 어느 산의 산신들 보다 격이 높다고 하여 ‘山神閣’이라 하지 않고 ‘山靈閣’이라 편액하였다고 한다. 높은 축대 위에 단아하게 서 있는 산령각의 내부에는 1957년에 그린 산신탕화가 봉안되어 있다.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오른 손에는 하얀 깃털 부채를 들고 있으며, 한쪽 무릎을 세워 왼팔을 올려 놓았다. 특이한 것은 산신의 눈동자이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산신 옆에 앉은 줄범은 흰눈썹과 황색 눈빛, 붉은 코, 입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송곳니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호랑이 옆에는 동자 1인이 꽃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다. 비록 그린 연대는 오래되지 않았고 약간은 전통기법에서 벗어났지만 나름대로 특색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정문

사찰의 문은 보통 세 문으로 구성된다. 사찰의 초입(初入)에 있는 일주문(一柱門)과 그문을 들어서면 바로 부처님이 계신 도량임을 나타내는 천왕문(天王門),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신 내도량(內道場)으로 들어서는 마지막 문인 불이문(不二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백담사의 문은 불교적인 문의 정형을 완전히 벗어난 특이한 것이다.

198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0년 9월에 완공한 거대한 돌다리 수심교(修心橋)를 건너면 곧바로 백담사의 유일한 정문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문은 일주문의 구조도, 천왕문이나 불이문의 구조도 아니다. 정면 3칸 중 중간칸의 지붕을 양측칸의 것보다 높게 하여 꾸민 솟을삼문이다. 지붕도 맞배지붕으로 처리하고 문짝의 크기도 중앙칸의 것을 양측칸의 것보다 크게 하여 솟을삼문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다만 중앙칸만 통로로 사용하고 양측칸은 막아서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한것이 일반적인 솟을삼문과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솟을삼문은 종묘나 재실·사당·서원 등의 대문으로 많이 사용되며, 그 중앙칸은 신들이 다니는 신도(神道)로, 양측칸의 문은 제주(祭主)나 일반인의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다. 진정 이 문이 특이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찰의 문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하고 불교적 상징성이 결여된 유교적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고자 한다. 1957년의 중건 때 주변의 어느 서원이나 사당의 건물을 옮겨 온 것이리라. 앞으로 전개 될 백담사의 중흥불사 때에는 마땅히 이 문도 고려의 대상에 넣어 불교정신을 깨우치는 법(法)의 문(門)으로 탈바꿈 시킴이 옳지 않을까?

한용운 스님과 시비

백담사의 정문 안 왼쪽 꽃밭 속에서 커다란 화강석으로 만든 만해(卍海) 한용운스님의 시비(詩碑)가 서 있다. 단순하게 “여기도 시비 하나가 세워져 있는가 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비를 살펴다보면 한용운스님의 생애와 함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백담사는 만해사상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강한 회의로 평범한 삶을 포기한 스님은 백담사를 출가처로 삼아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禪)과 염불수행에 몰두하였고 불경을 깊이 있게 섭렵하였다. 그 결과 스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금강불괴(金剛不壞)의 마음을 평상심(平常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그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스님은 이 땅 전체를 커다란 감옥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거처 하던 방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 술한 조선의 지성인들이 변절의 모습만을 보일때, 이를 애석히 여긴 스님은 “청년아, 만지풍설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의 정절을 본받으라”고 설교 하셨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요 시인이었던 한용운 스님, 백담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 한용운 스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유물은 없었다. 스님의 기념관 이라도 세워져 있어야 할 이 도량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

이렇게 시작되는 스님의 대표시 <나룻배와 행인>이 앞면에 한글

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스님의 오도송(悟道頌)을 한문으로 새겨 놓았다.

나이 39세 되던 1917년 겨울, 백담사의 오세암에서 좌선삼매에 들었던 스님은 불어오는 바람의 힘에 의해 그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품었던 마음 속의 의심이 씻은 듯이 풀렸다고 한다. 음력 선달 초사흘날 밤 10시경의 일이었다. 스님은 그때의 깨달은 경지를 한 수의 시로 나타내었다.

남아에겐 어디메나 고향인 것을
몇사람이나 나그네의 설움 속에 길이 간헐나
일성을 버럭 질러 삼천세계 뒤흔드니
눈 속의 복사꽃이 붉게 훑날리누나.

男兒到處是故鄉
幾人長在客愁中
一聲喝破三千界
雲裡桃花片片紅

그리고 “만해 한용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기 4324년 5월 백담사에 시비를 세우다”라는 글을 시비 밑쪽의 기단석에다 조그맣게 새겨 놓았다. 백담사를 단순한 관광지로서 찾기보다는, 한용운 스님의 시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사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으로 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들이 비를 건립한 것이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뜻인가! 만일 전국의 사찰들이 무심코 찾는 이들에게 불심(佛心)을 심어줄 수 있는 기념물을 하나씩 만이라도 조성한다면, 이 땅의 불교는 그러한 힘이 기초가 되어 새롭게 피어나지 않을까?

오 세 암

백담사의 부속암자로는 봉정암(鳳頂庵)과 오세암(五歲庵)이 있으며, 이들 두 암자는 불교성지요 기도도량으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세암은 백담사에서 약 10km 지점. 백담사에서 영시암·망경대를 거쳐 마등령 고갯길로 가노라면 오세암에 이르게 된다. 주위의 봉우리들이 연꽃잎을 이룬 연꽃송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암자는 657년(선덕여왕13)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이곳에 조그마한 선실(禪室)을 짓고 머물렀던 자장율사는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결하고, 관세음보살께서 언제나 계신 도량임을 나타내기 위해 관음암(觀音庵)이라 하였다.

그 뒤 조선초기까지 면면히 명백을 이어왔던 이 암자에 생육신(生六臣)의 한 분인 김시습(金時習)이 찾아왔다. 1445년(세조1) 그는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약 1백년이 지난 1548년(명종3) 금강산에서 수도하다가 불교 중흥의 큰 뜻을 품고 이곳에서 기도하던 보우(普雨)스님은 문정왕후(文貞王后)에 의해 선종 판사로 발탁되고 난 직후 이 암자를 중건하였다. 백담사와 오세암은 금강산에서 수도하며 도력을 성취한 스님들이 중생교화를 위해 한양으로 갈 때 반드시 머무르게 되는 곳으로, 보우스님 이후 이 절은 한양 진출의 대기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도 기억되어야 할 점이다.

이 암자를 관음암에서 오세암으로 바꾼 것은 1643년(인조21)에 설정(雪淨)스님이 중건한 다음부터이며, 5세 동자에 얽힌 유명한 관음영험설화는 이 때의 중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설정스님은 고아가 된 형님의 아들을 이 암자에 데려다 키우고 있었다. 겨울이 막 시작된 10월의 어느날, 스님은 월동준비 관계로

양양의 물치 장터로 떠나게 되었다. 이틀동안 혼자 있을 네 살의 조카를 위하여 며칠 먹을 밥을 지어 놓고 스님은 신신당부하였다.

“이 밥을 먹고 저 어머니(법당 안의 관세음보살사)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절을 떠난 스님은 장을 본 뒤 신흥사까지 왔을 때, 밤새 내린 폭설로 길게는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눈이 쌓여버렸다. 혼자 속을 태울 뿐 어찌할 수 없게 된 스님은 겨울을 지나 눈이 녹은 이듬해에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법당 안에서 목탁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달려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목탁을 치면서 가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었고, 방안은 훈훈한 기운과 함께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스님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그 까닭을 물었다.

“저 어머니가 언제나 찾아와서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같이 놀아도 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젊은 백의여인(白衣女人)이 관음봉으로부터 내려와 동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성불(成佛)의 기별을 주고는 한 마리 푸른 새로 변하여 날아가 버렸다.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감격한 설정스님은 다섯살의 동자가 관세음보살의 신력으로 살아난 것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관음암을 중건하고 오세암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음 깊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이 영험담을 두고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허망된 일이다. 오히려 마냥 믿음을 갖고 5세 동자의 천진함으로 돌아가 관세음보살께 기도할 일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찌들은 우리의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해 줄 관음기도를!

그뒤 오세암은 영험있는 기도도량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1865년(고종 2) 남호(南湖)스님은 해인사대장경2질을 인출(印出)하여 1부는 오대산 상원사(上院寺)에, 한부는 이 암자에

불안하였다.

1888년(고종25)에는 백하(白下)스님이 크게 중건하였다. 스님은 그 깊은 산중에 2층으로 된 법당을 짓고, 응진전(應眞殿)을 건립하여 16나한상(羅漢像)과 각종 탱화를 조성 불안하였다. 이어서 육각루(六角樓)와 큰방을 짓던 스님이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은 인공(印空)스님이 1898년에 준공하고, 1만일을 기한으로 염불 정진하는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를 열어 오세암의 염불소리는 끊일 날이 없었다. 이 염불회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계속 되었다. 1911년부터 선종묵언지당(禪宗默言之堂)으로서 참선수행자들의 용맹정진 장소가 되었던 오세암은 6·25때의 전란으로 소실되었고, 그뒤 법당·승방·산신각·요사채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선도향(修禪道場)인 동시에 영험있는 관음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오세암, 아늑한 맛으로는 설악산 내 사찰들 중에서 으뜸인 오세암에서 또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오세암에 머물면서 수행하고 사색했던 김시습 선생과 한용운 스님의 삶이다. 이들 두 분이 살았던 시대는 다르다. 김시습은 조선시대 초기에, 한용운은 조선왕조가 망하던 시기에 각각 살았다. 그러나 이들은 강렬한 이상주의자요, 뛰어난 실천가요, 탁월한 문장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다 가신 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들 두 분이 모두 오세암에서 선종의 깊은 뜻이 담긴 《십현담十玄談》을 각각 주해 하였다. 한용운 스님은 1925년 여름에 《십현담》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술회했다.

“매월당도 십현담을 오세암에서 주해했고, 나 또한 오세암에서 열경(悅卿 : 김시습의 字)의 주(註)를 읽었다. 수백년 후에 접했건만 그 느끼는 바는 오히려 새롭구나.” 세월은 흘렀어도 두 분의 마음은 서로 통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감히 권하여 본다. 못 고승들의 일화가 어려 있는 연꽃송

이 속의 이 도량을 찾아 마음을 다 바쳐서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라. 틀림없이 우리의 소원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 피어오를 것이니

봉 정 암

해발 1244m에 위치한 봉정암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참배하고 온 사람들은 많은 날들을 진한 감동과 그리움으로 보낸다. 내설악의 첫관문인 백담사에서 약 7시간을 걸어서야 도착할 수 있는 봉정암(鳳頂庵), 산행이 다소 힘들기는 하지만, 힘든것도 잊을 만큼 아름다운 산수미(山水美)가 순례객을 달래어 준다. 기기묘묘한 봉우리는 구름과 벗하며 솟아 있고, 희디흰 바위를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부서지는 폭포, 비취 빗갈의 맑은 물이 연못을 이룬 골짜기의 장관 앞에서 환희의 탄성은 저절로 터져나온다. 봉황이 알을 품은 듯한 형국의 승지(勝地)에 정좌해 있는 봉정암, 뒤쪽으로 봉황이 살짝 날개를 편 듯한 거대한 바위를 중심으로 가섭·아난·기린·할미·독성·나한·산신봉이 암자를 감싸 수호하고 있다. 어떻게 깊은 산중의 이토록 높고 경치가 빼어난 곳에 터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을 담은 창건설화 또한 신비롭다.

지금부터 1350여년 전, 당나라 청량산에서 3·7일(21일) 기도를 마치고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와 금란가사를 받고 귀국한 자장율사(慈藏律師)는 처음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할 곳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에서인지 찬란한 오색빛과 함께 날아온 봉황새가 스님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한참을 따라가다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 이르렀고 부처님처럼 생긴 바위였다.

“바로 이곳이구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인연처임을 깨달은 스님은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조그마한 암자를 건립하였다. 이 때가 선덕여왕13년, 서기 644년의 일이라 전한다.

신비가 깃든 이상의 창건설화 속에는 불교의 지극한 성보(聖寶)

진신사리를 신령한 도량에 모시고자 했던 옛사람의 정성이 길게 깔려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창건된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중의 하나로서 불교도라면 살아생전에 꼭 참배해야 하는 성지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봉정암은 창건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다. 667년(문무왕17)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중건에 이어, 고려 중기인 1188년에는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중건하였다. 그리고 한용운 스님이 1923년에 쓴 <백담사사적기>에는 세번째 중건이 1518년(중종13) 환적(幻寂) 스님에 의해 이루어졌고, 네번째는 1548년(명종3) 등운(騰雲)스님에 의하여, 다섯번째는 1632년(인조10) 설정(雪淨) 스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백담사사적기>에 첨부된 봉정암중수기와 봉정암칠장사적기(鳳頂庵七創事蹟記)에 의하면 제3의 중건은 1648년(인조26) 환적의천(幻寂義天) 스님에 의하여, 네번째는 1678년(숙종4) 등운스님이, 다섯번째는 1748년(영조24) 설정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용운 스님도 이 봉정암의 사적비를 참고로 한 것이고, 특히 환적의천의 생존기가 1603년에서 1690년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백담사사적기>의 기록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설정 스님의 중건 때는 부처님의 탕화를 봉안하고 배탑대(拜搭臺)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누각까지 건립하여 절다운 규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여섯번째의 중건은 1780년(정조4) 계심(戒心) 스님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곱번째로 1870년(고종8) 인공(印空) 스님과 수산(睡山) 스님이 중건하여 우리나라 제일 기도도량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6·25의 동족상잔으로 봉정암은 완전히 불타버렸다.

10여 년 이상 5층석탑만이 외롭게 서 있던 이곳을 찾아온 법련(法蓮)스님은 1천일 기도 끝에 자그마한 법당과 요사채를 완공하

였고, 1985년 10월에 부임한 현재의 주지스님은 6년 동안의 끊임없는 불사를 통하여 청기와로 단장한 정산신각·요사채·석등 등을 건립하고 제9차 중건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층석탑

설악산의 진수를 봉정암이라고 한다면 봉정암의 진수는 오층석탑(강원도 유형 문화제 제13호)이다. 부처님의 뇌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하여 흔히들 불뇌보탑(佛腦寶塔)이라고도 하는 이 탑을 두고 시대가 언제이고 형식이 어떻다고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 오직 이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참배하고, 부처님의 사리보다 더 영원한 우리들 마음 속에 보배를 찾아서 간직해야 하리라.

그런데도 고려시대의 양식을 갖춘 이 탑에 대해 굳이 논할라치면, 일반적인 탑들이 지니고 있는 기단부(基壇部)가 따로 없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곧 자연암석을 기단부로 삼아 그 위에 바로 탑의 몸체 부분에 해당하는 오층의 집을 쌓아 올렸고, 맨 위에는 연꽃인 듯 불꽃 모양인 듯한 원뿔형 보주(寶珠)를 올려 놓았다.

왜 이곳의 탑은 기단부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가? 왜 큼직한 바위가 기단부를 대신하고 있는가? 그 까닭은 분명하다. 설악의 온 산이 불멸의 몸이 깃든 이 탑을 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과 이 탑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때문에 탑의 몸체가 시작되는 자연암석 위에는 아름답게 피어 있는 연꽃을 조각하였다. 이 연꽃 조각은 밀의 바위가 연화대임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탑이 단순한 석조물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곳에 정좌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가진 부처님의 진신(眞身)이…….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탑 앞에서의 기도는 결코 헛될 수가 없고, 성취되지 않을 소원도 없음이니라.

파계에 대한 산신의 징벌

설악의 봉정암은 이 나라 안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량이기에 이곳을 지키는 산신령 또한 여느 산신과 다르다. 이제 소개하는 한편의 이야기는 약70년 전에 있었던 실화로서, 설악산 산신령의 힘과 봉정암을 찾는 이들의 자세를 깨우쳐 주는 교훈이 담겨 있다.

동냥을 해서 술과 고기를 먹고 바람을 피우는 땡추 중들이 많았을 그 당시, 설악산 봉정암에는 한 땡추가 와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었고, 믿음이 깊은 어느 거사는 백일 기도를 하고자 봉정암을 찾아갔다. 거사는 자리에 눕지 않고 아랫목에서 기도를 하되, 아주 고단하면 앉은 자세로 잠깐 졸면서 백일기도를 계속하였다. 어느날 봉정암의 땡추중은 출타하였다가, 보름 후에 돌아와서 잠에 꿩아 떨어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라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에이, 꿈도 고약하다, 고약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아,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나를 단단히 나무라면서 ‘네가 계속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집 개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겠소?”

거사는 이 땡추가 나쁜 짓을 하고 온 것임을 확신하고 이튿날 아침 그에게 당부했다.

“스님이 아무래도 좋지 못한 것을 하여 그와 같은 꿈을 꾸 모양이니, 이제라도 아주 꿇으십시오. 여기 설악산 산신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다음에 또 막행(莫行)을 하면 정말 개를 보낼지도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꿈이야 본래 헛 것이 아니오? 별일 있겠습니까?”

땡추중은 듣지 않고 며칠 후 또다시 나가 보름 가량 지나서 돌아왔다. 그날 밤 자정이 되었을 무렵, 거사는 아랫목에 앉아 있고 땡추중은 옆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큰 소리가 나더니 ‘와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무엇인가

가 그 멍추증을 덜켜 집어내어 버리는 것이었다. 순간적인 일에 넋을 빼앗긴 거사는 기도도 잊은 채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한참 뒤에야 등불을 밝혀 봉정암 주위를 살피기 시작한 거사는 절 마당과 사리탑 중간 지점의 삐딱하게 누워있는 큰 바위들에 피와 오즙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거사는 깜짝 놀라 손발을 덜덜 떨면서 오세암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약 15리 쯤 내려가 수석이 아주 좋은 곳에 이르자 멍추증의 시신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었다. 목은 목대로 떼어 바윗돌 위에 조각품처럼 얹어 놓았고, 사지를 찢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창자는 창자대로 여기저기 나무에 걸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멍추증을 먹은 흔적은 없었다. 그것을 본 거사는 주저앉아 정신을 못차린채 얼마를 있다가, 오세암으로 내려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화장을 하였다고 한다.

비록 끔찍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라. 곧 성지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야 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때 성현의 감응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깨우치는 한 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도량에서 지극정성 참배하면 1천년동안의 지은 업장이 소멸된다는 봉정암! 그곳을 찾아 맑디맑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가히 평생토록 사용할 마음의 양식을 장만할 수 있으리라.

백련정사

인제의 중심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백련정사(白蓮精寺)는 역사도 뚜렷하지 않고 규모도 크지도 않다. 그러나 관음기도처로서는 인근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절의 창건자는 미상이나,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하여 천곡사(泉谷寺)라 하였다고 전한다. 이 절의 상부 2km지점에는 용천(龍泉)이 있는데, 그 물이 계곡물을 이루어 절앞을 지나가므로, ‘용천수가 흐르는 계곡에 있는 절’이라는 뜻에서 천곡사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 천년 가까이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으며, 한말에 용천 곁으로 이전하여 신수리사(新修理寺)로 절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때 이 절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15년 동안 터만 남아 있었으나, 1966년 중건하고 옛 이름을 살려 천곡사라 하였다. 그리고 1968년 이 절의 주지로 취임한 강효진(姜曉進) 스님이 천일관음기도를 행한 뒤 절이름을 백련정사로 바꾸었으며, 법당 등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백련정사의 현존건물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각지붕을 취한 대비전(大悲殿)과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인법당 건물인 관음전(觀音殿)이 있으며, 대비전 안에는 관세음보살좌상과 후불탱화등이 봉안되어 있다.

백련정사의 성보

이 절의 법당에는 영험있는 관세음보살상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절 경내에는 강원도 민속자료 제35호로 지정된 삼층석탑 1기와 석불좌상이 있다. 원래 이 두 문화재는 인제군 남면 신남 1리의 암자 옆에 있었으나, 소양댐 건설로 1972년 12월 23일에 이 절로 이전 안치하였다. 이 불상과 탑으로 인해 백련정사는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삼층석탑은 2층의 기단(基壇)위에 세운 방형(方形)의 석탑으로, 현재 2층까지만 남아 있다. 기단부는 하대석 위에 우주(隅柱) 만을 조각한 중대석이 있는데 한쪽 부분이 크게 훼손되었다. 중대석 위의 상대갑석은 약간의 경사를 지었으며, 그 위에 1층 옥신(屋身)과 옥개석(屋蓋石)을 올려 놓았다. 옥개석은 끝이 다소 파손되었으나 처마 곡선이 아름답고 반전이 적당하며, 옥개받침은 4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층의 옥개석 위에는 최근에 깎아 올린 둥근 보주를 올려 놓았다.

탑 옆에 있는 석불은 회칠을 해 놓았는데 결가부좌에 지권인(智券印)을 취하고 있어 한눈에 비로자나불좌상(毘盧遮那佛座像)임을 알 수 있다. 얼굴은 많이 마모되었으나 균형이 잘 잡힌 몸매 연화대좌(蓮華臺座)가 놓여 있는데, 팔각의 중대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불상과 삼층석탑은 양식상으로 볼때 동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성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우리고장 통과의례

— 편집실제공 —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며 정해진 시기에 행하는 의례(儀禮)들을 통과의례라고 말한다. 이렇게 치뤄지는 의례들을 나열하자면 출생의례, 관례, 성년식, 결혼식, 회갑, 장의, 제의 등이 있다. 이중 장의와 제의는 서구에서는 그리 중요시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행하는 의례이다. 다시말해서 서구에서는 생존시의 의식에 비중을 두지만 우리 민속의례는 사자의례(死者儀禮)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자의례에 대한 관심과 정성은 조상숭배 관념과 영혼불멸 사상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 민속 통과의례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1. 출생의례(出生儀禮)

1) 기 자(祈子)

옛 우리 어른들께서는 보편적으로 딸보다 아들 낳는것을 원했다. 이에 연유한 아들 낳기를 비는 기원 행위를 기자(祈子)라 한다. 지금은 기자 민속의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사라져 가고 있지만 50대 이후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기자속(祈子俗)의 유형으로 치성기자(致誠祈子)가 대부분으

로 치뤄져 내려왔고 드물게는 주술기자(呪術祈子)도 있었다.

치성기자(致誠祈子)의 대표적인 것으로 가내치성(家內致誠)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터주신의 거처지인 장독대나, 방안의 성주, 삼신 앞에 정한수 또는 시루떡을 해놓고 아들 점지를 한다. 치성기자의 다른 유형으로 사찰치성이 있는데 이는 사찰의 대응전이나, 산신각, 칠성각 등을 찾아가 부처님께 아들을 점지 해 달라고 빌면서 소망하는 것이다.

이외에 산골짜기에 위치한 폭포나 영엄한 샘에서 용왕께 아들 점지를 기원하거나 산중의 큰 나무밑이나 바위 및 장소를 택하여 산신(山神)을 대상으로 득자축원(得子祝願)을 올린다.

주술기자(呪術祈子)는 사물을 몸에 소지함으로써 득남 할 수 있다는 행위와 사물을 식음(食飮) 함으로써 득남 할 수 있는 유형을 들 수 있다.

몸에 소지하는것은 아들을 많이 낳는 집의 도끼나 작두를 훔쳐다 대장간에서 다시 아주작게 도끼나 작두를 만들어 몸에 소지하는 방법이고, 한편 몸에 부착하는것은 아들을 낳은 여인의 속옷을 훔쳐다 입는것과 사찰에서 부적을 얻어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방법이다. 또한 먹거나 마심으로써 득남할 수 있는 식음 기자로서는 금줄에 달린 고추를 빼다가 한약재와 섞어 먹는 방법과 장닭의 불알을 날것이나 구워서 먹는일, 첫 새벽에 우물에 나가 기원과 동시 물을 떠서 마시는 방법등이 있다.

2) 태 몽(胎 夢)

태몽은 산모에 의해 잉태하기 전이나 잉태후에 꾸며 내용은 다양하다. 또한 아들과 딸의 태몽은 두드러지게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다. 아들 태몽은 역동적이고 완숙, 충만한 면모를 보이는데 비해 딸 태몽은 정적이며 부실, 미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3) 태 교 (胎敎禁忌)

태교는 산모가 임신중에 정신적, 육체적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행위 금기>

- 길을 갈때에는 지름길로 가지말고 한길로 가야 한다.
- 남을 의심하거나 미워 해서는 안된다.
- 불구경을 하면 아이에게 해롭다.
- 이웃 상가에 가거나 상여를 보면 아이에게 해롭다.
- 남과 싸우거나 욕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말아야 한다.
- 몸을 항상 단정히 하고 자리를 귀퉁이나 모서리를 피해 앉아야 한다.
- 짐승을 함부로 잡지 말아야 한다.

<음식금기>

- 상가집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발이 오리발처럼 붙는다.
-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피부가 나빠진다.
- 가재를 먹으면 아기의 발가락이 기형이 된다.
-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기능이 나빠진다.
- 맵고 짜고 신음식은 피하여야 한다.
- 제사 음식이나 굿판의 음식을 삼가 한다.
- 계란 삶은것을 먹지 않는다.

4) 해 산 (解 産)

해산을 하게되면 산실 모퉁이에 삼신상을 차리는데 그 상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는다. 그리고 먼저 아기의 배꼽으로부터 가위

뺨으로 한 뺨쪼되게 실로 묶은다음, 남자 아이의 경우는 낮으로 자르고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가위로 자른다. 남자의 경우는 커서 농사를 잘 지으라는 뜻이고, 여자의 경우는 커서 바느질을 잘 하라는 뜻이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산모에게 먹일 첫 국밥을 짓는데 첫 국밥은 미역국과 쌀로 지은 밥이 되며 먼저 삼신상에 올려놓았다 산모에게 먹인다. 자른 태와 오물은 장작과 짚을 포개어놓고 그위에 엮어놓은 후 왕겨를 덮고 태운다. 태운재는 약 3일간 두었다가 냇물이나 산기슭 적절한 곳에 묻는다. 또한 아기를 낳게되면 금줄을 대 문밖에 매게 되는데 집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짚으로 원새끼를 꼬아서 남자의 경우는 숯, 고추, 명(목화 말린 것으로 10cm 내외 길이)을 달고, 여자의 경우는 숯과 솔가지를 꽂아 약 1주일정도 달아둔다. 또한 산모의 젖을 돌게 하기 위하여 첫국밥을 지을때 쌀뜨물을 굴뚝에 뿌리기도하고 막걸리를 산모에게 먹이게 하는 방법도 써왔다.

5) 백 일 (百日)

백일은 아기가 태어난지 백일째 되는 날이되며, 이날에는 백일 잔치상을 차리는데 주로 백설기, 수수팥떡, 쌀밥, 미역국, 과일로 차리고 이웃을 불러 함께 나누어 먹는다. 또한 백일떡은 이웃 백집에 나누어 주어야 아기가 수명장수 한다하여 두루 돌린다. 반면에 떡을 받은 집에서는 실타래와 곡식을 그릇에 담아 되돌려 보내는 풍속이 있었다.

6) 돌 (初)

아기가 태어난지 일년째되는 첫생일을 돌(晬日)이라고 하며 이날에는 돌잔치를 한다.

또한 아이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히는데 이것을 돌빔이라고 한다. 남자에게는 유색채의 바지 저고리, 색동두루마기, 남색조끼, 색동마고자를 입힌다. 여아에게는 색동저고리, 붉은치마를 입힌뒤 조바위를 씌운다. 그리고 남아 모두 돌띠를 둘러 매주고 돌주머니를 달아준다. 돌떡은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 무지개떡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백일때와 마찬가지로 이웃에 골고루 떡을 돌리게되고 받은 집에서는 떡그릇에 실타래나 곡물과 돈등을 넣어 돌려 보낸다. 돌날 아침에는 돌상을 차리고 돌잡이를 하게된다. 수반(睺盤), 시아(試兒)라고도 표현하는 돌잡이는 아기의 장래를 점치는 일이기도 하다. 돌상위에는 쌀, 돈, 실, 책, 붓, 먹, 종이, 활(여아의 경우 가위, 자, 바늘등을 놓는다), 국수등을 놓는다. 이렇게 여러가지를 놓고 아기에게 골라 잡도록 한다. 아기가 활이나 총을 잡으면 장래에 장군이, 연필이나 공책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고 말하였다.

2. 관례(冠禮)

관례란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고비로해서 남·녀 나이 15세부터 20세사이에 주로 거행되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머리를 틀어올려 갓을 씌워주고, 소녀의 경우에는 비녀를 꽂아줌으로써 어른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를 관례(冠禮)라 하고 여자의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계례(笄禮)라 하였다. 관례는 보통 정월에 하는것이 좋지만 사월이나 칠월 초하룻날 치루기도 하였다. 관례의 주례를 맡아보는 사람을 빈(賓)이라 하였으며 그 절차는 삼가관례(三加冠禮)에 따랐다.

삼가관례란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의 3단계 절차로 가관건(加冠巾), 재가모자(再加帽子), 삼가복두(三加幘頭)을 말한다.

초가(初加)는 소년에게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운다음 주례(賓)가 축사를 하고 건(巾)을 씌우면 소년은 방에 들어가 심의(深衣)로 갈아입고 다시 나와 마당에 앉는다. 재가(再加)는 주례가 간단한 축사를 한다음 초가시에 씌운것을 벗기고 초립(草笠)을 씌워주면 소년은 다시 방에 들어가 심의를 벗고 준비된 조삼(早衫)을 입는다. 허리에 띠를 두루고 나와 초가례를 받던 장소에 그대로 서있다.

삼가례(三加禮)도 역시 주례(賓)로부터 먼저 축사가 있은다음 초립을 벗겨주고 복두(幘頭)를 씌워준다. 관자는 다시 방에 들어가 조삼(早衫)을 벗고 난삼(欄衫)을 입으며 허리에 띠를 두루고 나와 앉는다. 주례는 관자에게 술잔을 권하고 관자는 빈에게 재배를 한 다음 술잔을 받아 입에 댄다가 찬자에게 넘기고 다시 주례에게 재배를 한다. 이어 빈의 간단한 답례가 끝나면 어른들은 관자를 데리고 사당으로 가서 조상에게 예를 올린뒤 집으로 다시 돌아와 집안의 어른들에게 절을 하게된다.

이로써 성년이 되어 최초로 웃어른들에게 올리는 절이기도 하며

이로써 관례의 모든 의례를 끝내게 된다.

계례(笄禮)는 소녀들이 치르는 성년 의례로 대개 15세를 기점으로 실시되는데 20세 부모상을 다하면 3년을 연장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계례를 주관하여 행하는 주례는 친척 가운데 인덕있고 정숙한 부인이다. 그를 보통 계빈(笄賓)이라 한다. 계례는 관례에 비하여 간단하다. 계례당일 상 위에 비녀, 배자(背子)등을 준비한다. 계자는 소매가 좁은 삼자(杉子)등을 준비한다. 계자는 소매가 좁은 삼자(杉子)를 입고 계빈을 맞이한다. 계빈이 계자의 머리를 틀어 비녀를 꽂아주고 나면 계자는 배자를 입는다. 이어 초례(醮禮)를 올리고 자(子)를 지어주면 사당에 가서 고(告)한 후 손님들을 접대한다. 한편 중인(中人)이나 상인(常人)들은 별도의 성년식을 거행하지 못했다. 다만 15세가 되면 호패를 참으로 해서 그로써 성년 유무를 가름 하였다.

3. 혼례(婚禮)

혼례는 성인이 된 남녀가 하나로 맺어져 부부가 되는 의식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관혼상제(冠婚喪祭)중 혼례를 경사스럽고 축복할 만한 커다란 행사로 여겨왔다. 서로 다른 두 성을 가진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혼례는 성적(性的)결합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결합까지를 의미한다. 오늘날 혼례의 양식은 예식장에서 양복, 웨딩드레스를 입고 치뤄지는 서구식 일색이나 드물게나마 전통적인 대례복을 입고 우리식의 전통혼례를 치르는 일이 있기도 하다.

1) 전통혼례(傳統婚禮)

중국의 혼례법이 우리나라 전통 혼례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 사실로 전통 혼례에서는 육례(六禮)라 하여 그 격식과 절차가 매우 엄숙하고 까다로웠다. 육례란 의혼(議婚), 문명(門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여섯가지 예를 말한다. 흔히 ‘육례를 갖추어 신부를 맞아드린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정식 결혼을 하여 아내를 맞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육례는 지나치게 번잡하여 우리 인제지방에서는 의혼(議婚), 납징(納徵), 납길(納吉), 친영(親迎) 네가지 의례만 행하여 졌었다.

① 의 혼(議婚)

의혼이란 중신애비가 처녀 총각 양가를 오가며 혼담을 진행시켜 이를 성사 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이른다. 이 과정에서 양가의 부모들은 상대편 가문과 사위 또는 며느리감의 인품, 학식, 용모등을 암암리에 조사한다. 그리고 나서 만족하다고 생각되면 궁합을 맞추어 보게 되는데 궁합이 맞지 않으면 대개 혼담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

한다. 요즘의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다수가 궁합은 맞아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② 납 채 (納 采)

양가가 서로 조건이 맞아 혼담이 무르익으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혼서(請婚書)를 보낸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신부 집에서는 허혼서(許婚書)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 신랑 집에서는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적어 그것을 봉투에 넣은 뒤 신부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사주(四柱), 사주단자(四柱單子)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를 주고 받는것을 납채라 한다.

③ 납 길 (納 吉)

신랑의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오행법(五行法)에 따라 혼인 날짜를 정한다. 혼인 날짜는 보통 승려나 점쟁이 또는 불 줄 아는 이에게 의뢰하여 길일을 선정 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혼인 날자를 받으면 이를 문서화 하는데 이것을 택일단자(擇日單子) 또는 날받이라고 한다.

택일 단자는 바로 신랑집에 보내고 그것을 신랑집에서 흔쾌히 받아들이면 혼례일이 결정 된다.

④ 납 징 (納 徵)

납징은 요즘의 함 전달 풍속이다. 혼례일 전일쯤해서 신랑집에서는 채단(采緞), 예장(禮狀)을 함속에 넣어 신부집에 보낸다. 함은 함진애비가 운반하는데 예전에는 하인이나 상인들이 함부(函夫)의 역할을 하였다. 근래에는 신랑의 친구나 자기들이 이를 수행하는데 대개 먼저 결혼하여 득남한 친구들이 함부가 된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함을 비교적 공손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함값을 한푼이라도 더받기 위하여 끌고 당기는 습속이 최근 들어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함팔기 습속에도 규칙이 있어 함부가 한번 앞으로 가면 다시 뒷걸음치지 못한다. 함진애비가 대문턱을 넘어서면 함은 신부집 사람에게 넘겨지고 안방의 신부 어머니 앞에 전해 진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는 함속에 손을 넣어 채단을 꺼내보게 되는데 이때 그 색이 청색이면 신부가 첫 아들을 낳고 홍색이면 첫 딸을 낳는다고 한다. 이러한 함의 전달시간은 우리 인제지방의 경우 해가지고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 늦은 시간에 전달하고 있다.

⑤ 친영(親迎)

혼례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른다. 식을 치르기 위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 한다. 초행길에는 상객(上客, 婚主:신랑의 백부나 숙부가 담당), 후행(後行), 함부(函夫)가 신랑과 동행한다. 혼례 당일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 흑화관복(黑靴官服)을 갖추고 식장으로 들어선다. 대례(大禮)는 신부집 마당에서 대례상(大禮床)을 사이에 두고 거행한다. 대례의 진행은 크게 전안례(奠雁禮)와 합근례(合卺禮)로 나뉜다. 식(式)의 절차는 집사가 홀기의 순에 따라 이끌어 나간다.

- 신랑하마공립(新郎下馬拱立) : 신랑은 말(또는 가마)에서 내려 서시오.(이때 신랑은 초례청 밖에 선다)
- 찬인읍(贊人揖) : 안내인은 초례청 안으로 들어 오시오.
- 신랑답읍(新郎答揖) : 신랑은 읍하고 안으로 들어 오시오.
- 신랑취안도소(新郎就雁觀所) : 신랑은 전안상 앞에 임하시오.
- 신랑궤(新郎跪) : 신랑은 꿇어 앉으시오.
- 포안(抱雁) : 안부(雁夫)로부터 공손히 기러기를 받으시오.(이때 기러기의 머리가 왼쪽으로 가도록 해서 받는다)
- 안치어지(雁置於地) : 신랑은 기러기를 전안상 위에 놓으시오.

- 신랑흥(新郎興) : 신랑은 일어 서시오.
 - 신랑재배(新郎再拜) : 신랑은 두 번 절하시오.(이것은 천지신명에게 서약하는 절이다. 그리고 신랑이 절하는 사이에 신부집의 사람이 나무기러기를 내실로 가져간다)
 - 신랑흥(新郎興) : 신랑은 재배를 마치고 일어 서시오.
 - 신랑소퇴(新郎小退) : 신랑은 조금뒤로 물러 서시오.
 - 신랑취초례청(新郎就醮禮廳) : 신랑은 초례청에 임하시오.
 - 신랑동향립(新郎東向立) : 신랑은 초례청의 동쪽에 서시오.
 - 신부출(新婦出) : 신부는 초례청으로 나오시오.
 - 신랑정면(新郎正面) :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바로 서시오.
 - 신랑신부궤(新郎新婦跪) : 신랑 신부 꿇어 앉으시오.
 - 관세집건(盥洗執巾) : 신랑 신부는 손을 씻으시오.
 - 신랑신부흥(新郎新婦興) : 신랑 신부는 일어 서시오.
 - 읍부취석(揖婦就席) : 신랑은 신부에게 읍 하시오.
 - 신부재배(新婦再拜) : 신부는 큰 절을 두 번 하시오.
 - 신랑답일배(新郎答一拜) : 신랑은 답례로 한 번 절하시오.
 - 신부재배(新婦再拜) : 신부는 큰 절을 두 번 하시오.
 - 신랑답일배(新郎答一拜) : 신랑 신부는 제자리에 꿇어 앉으시오.
 - 근배교환(緦拜交換) : 술잔을 서로 교환 하시오. 수모가 술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준다. 신부는 잔을 입에 대었다가 뺀다. 이 술잔은 신랑에게 전해지고, 신랑은 술잔을 받아 마신다. 이번에는 반대로 신랑이 신부에게 술잔을 권한다. 이렇게 술잔 교환이 끝나면 대례가 갈무리 되게 된다.
 - 대례필(大禮畢) : 대례를 마쳤습니다.
 - 신랑신부각귀처소(新郎新婦各歸處所) : 신랑 신부는 자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 가시오.
- 예식이 끝나면 신랑은 상객(上客),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신방에 들게 된다. 첫날밤의 신방에는 평풍을 둘러치고 화촉을 밝히며 방 가운데 주안상이 놓이게 된다. 신랑은 신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신 뒤 말을 건네고 함께 자리에 들게 된다. 이럴 즈음 신방 밖에서는 “신방 지키기”라 하여 동네 유부녀들이 문에 구멍을 내고 신랑 신부의 행동거지를 엿본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결혼식이 끝나면 예정된 여행지를 향하여 신혼여행을 떠난다.

4. 상례(喪禮)

1) 초종(初終)

사람이 임종하기에 앞서 소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안방 아래 탁자로 모신다. 그리고 집안식구와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을 불러 임종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만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환자의 유언이나 유지를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받는다. 사람이 임종을 하면 제일 먼저 팔다리를 주물러 편다. 다음 숨으로 입, 코, 귀 등을 막는다. 이어 양팔을 바르게 펴 배 위에 놓는데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하여 묶는다. 이때 밖에서는 조그마한 상에 밥 세 그릇을 차려 대문 밖이나 마루 앞 상기둥 밑에 놓으며 때로는 상위에 노자돈으로 동전을 놓기도 하고 상옆에는 평소에 신던 신발을 놓는다.

또한 망자가 입던 윗저고리를 지붕위로 던진다. 요즘 우리 인제 지방에서는 일부 이러한 습속을 실제로는 그대로 행하기를 꺼려하여 하지 않는다.

2) 습, 염(襲, 殮)

습은 원래 남자의 시신은 남자가 하고, 여자의 시신은 여자가 하며 온몸을 향나무나 말린 쭉을 삶은 물로 깨끗히 씻었으나 요즘은 험한 일로 인하여 남자가 모두 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건이나 숨으로 물을 짖어 노출된 부분 즉 얼굴, 손, 발 정도만 닦는다.

최근 우리 인제 지방에서는 습을 한 뒤 바로 염(殮)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수의는 생존시 준비 하기도 하나 요즘은 대개 당일 상포집에서 사다가 한다. 수의는 남자가 망자일 경우 속옷,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힌다. 여자는 고쟁이, 속바지, 속치마, 겹치마, 속

적삼, 저고리를 순서대로 입혔으나 지금은 형편에 따라 다르다.

입관은 염이 끝난 뒤 바로 행하기도 하고 시각을 보아 행하기도 한다. 관 내부의 공간을 망자가 입던 헌 옷이나 창호지 등으로 채운다.

입관이 끝나면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상복을 입는 범위는 8촌까지인 사례가 가장 많고 드물게는 10촌까지도 상복을 입는다.

3) 출상(出喪)

출상 당일 발인 시간이 되면 발인제(發靱祭)를 지낸다. 발인제는 말상주가 분향, 헌작, 재배하고 축관이 고축하면 모두 곡한 뒤 재배하는 것으로 끝난다. 상여의 행렬은 명정, 영정, 공포, 만장이 상여의 앞길을 인도하고 상여 뒤에는 상주와 복인, 일반 조객의 순으로 따라 간다.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 시각이 되면 내광(內壙)에 망자를 모신다. 망자를 모시고 나서 내광의 빈 공간을 고운 흙으로 메꾸는데 이를 보토(補土)라 한다. 보토 후에는 명정과 공포를 덮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다. 이어 상주가 고운 흙을 상복에 싸가지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위 가운데 아래 부분에 한무더기(또는 한주먹)씩 놓는다. 요즈음 우리 인제 지방에서는 말상주가 삼으로 취토를 한 후 둘째 상주 순으로 취토를 하기도 한다. 취토가 끝나면 광중에 조금씩 흙을 채우고 여러명의 산역꾼들이 그안에 들어가 밟는다. 광중의 흙을 밟으며 회다지 소리를 하는데 선창은 요령잡이가 하고 후창은 산역꾼들이 받는다. 이렇게 회다지기를 2~3번하고 봉분작업이 완성되면 묘앞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성분제를 지낸다. 성분제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되돌아 온다.

5. 제례(祭禮)

1) 기제사(忌祭祀)

기제사는 4대조까지의 조상을 대상으로 제(祭)를 모신다. 제사는 장남이나 장손의 집에서 올리며 제사에 참석하는 범위는 보통 4촌 내지 6촌까지이다. 제물은 정성껏 마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언행을 하면 제물의 음식을 만들거나 청결하지 못한 몸가짐으로 제사 음식을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 음식장만은 각 가정마다 조금씩 형편에 따라 다르나 보통 삼색실과, 삼탕, 전, 소채, 떡, 포, 산적, 제주(祭酒)등을 기본으로 한다. 제물의 진설방법은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편적으로 볼 때 제상의 맨 앞 줄에는 과일류, 둘째 줄에는 포, 소채, 식혜류, 셋째 줄에는 당류, 넷째 줄에는 적류를 놓는다. 제상 위에 놓는 제물의 진설에 대한 몇가지 원칙을 소개 하자면

- ① 홍동백서(紅東百西) : 신위를 향해서 붉은 과일은 동쪽(제주의 우측) 흰것은 서쪽.
- ② 조율이시(棗栗梨柿) : 동쪽서부터 대추, 밤, 배, 꽃감 순으로 놓는다.
- ③ 좌포우혜(左脯右醴) : 좌측에 포, 우측에 식혜를 놓는다.
- ④ 어동육서(魚東肉西) : 어류는 동쪽,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 ⑤ 두동미서(頭東尾西) : 어물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놓는다.

제사는 자정을 전후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요즈음에는 10시 전 후에 지내는 가정도 많다.

우리고장 의·식·주 (衣·食·住)

- 편집실 제공 -

1. 의 생활 (衣生活)

본문의 내용은 인제지역의 의생활(衣生活) 분야에 대한 조사자료로 시기는 1900년대 부터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를 거쳐 1950년대 까지의 의생활상에 관하여 수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인제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거나 주로 생활권이 같은 인근 지역에서 출생하여 살아오다 인제군 관내에서 오래전 부터 살아온 고령층의 노인들로서 특히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조사를 하였다. 이분들께서는 주로 어렸을 때에 목격했던 어른들의 생활상 및 그들에게서 전해듣고 익힌 것들과 자신이 생활한 경험담을 토대로 한 것이다.

본 의생활 형태의 조사범위는 의생활 면에서도 가장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관찰할 수 있는 의례(儀禮)치례 부분인 출생과 혼례, 수의(壽衣), 상복(喪服)을 다루었고 일상생활복으로는 아이들과 젊은이 성인 및 노인들의 일반 복식을 다루었다.

1) 출생의례

① 출생직후

아기를 낳게되면 먼저 태아를 포대기에 싸는데 새것을 따로 만드

는 것은 드물었고 어른들이 입던 옷을 뜯어 이용하였으며 흔히 아버지의 바지나 저고리 안감을 뜯어 사용 하였다.

② 배넛저고리

대부분 아기를 낳은지 3일이 되면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는데 이것을 배넛저고리라 한다. 배넛저고리는 어른들의 저고리와는 달리 깃과 셔츠는 달지 않으며 바느질도 대충 성글게하고 명이 길으라고 실로 옷고름을 달았다.

옷감은 대부분 흰색 솜을 쓰는데 겨울에는 겹으로 만들었고 여름에는 홑으로 만들어 입혔으며 2벌 정도씩 만들었다. 또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입던 옷으로 아기의 배넛저고리나 기저귀를 만들어 입히면 아기의 명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첫 아이때는 대개는 출생전에 친정이나 시댁 어른이나 또는 아기 어머니가 만들어 두기도 하며 아래 아기들은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 대개 첫아이 때는 친정에서 여유가 있으면 배넛옷과 두렁이(두렁이) 또는 애기 포대기를 만들어 오기도 하였다. 배넛저고리는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여유있는 집에서는 딸과 아들이 입는것을 구분하였다.

처음에 아들을 낳은 경우는 아들이 입었던 옷을 남녀 구별없이 동생들에게 내리 물려 입히지만 특히 위로 딸을 많이 낳은 다음 아들을 낳는 경우라든가 귀하게 본 아들인 경우에는 여자 아기가 입던것을 피하고 새것으로 해 입혔다.

③ 백일옷

예전에는 아기를 낳아 백일이 돌아오면 옷을 새로 장만하는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입던 옷을 깨끗히 빨아 입히는 정도였다.

백일쯤이 되면 배냇저고리 대신 깃과 섶, 옷고름을 갖춘 저고리 형태의 옷을 입힌다. 친정에서 첫 아이일 때는 아기의 위·아래옷과 포대기를 보내 왔지만 매우 드문 일이었다.

④ 돌 옷

아기의 돌때는 위에는 저고리를 입히고 아래는, 남아는 밑가랑이가 트인 터진바지를 입히고 여아는 치마를 입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남아아 모두 바지나 두렁이를 입힌다. 잘 차려 입는 집에서는 여아는 밑이 터졌지만 앞쪽이 막히고 뒤가 트이면서 무릎 단 풍채바지를 입히기도 한다. 누비옷은 별로 만들어 입지 않았으며, 주로 누비버선이나 만들어 신게 할 정도였다. 누비는 이유는 아기의 옷을 자주 빨아야 하므로 세탁하고 만지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었으나, 대개는 겹이나 홀으로 해 주었을 뿐이다.

옷감은 자주 빨아 입혔으므로 광목으로 하다가 옥양목과 인조가 흔해지면서 이로 하였다.

색깔은 흰색으로 하고 색옷으로는 주로 회색바지에 분홍저고리, 빨강치마를 만들어 입혔다. 아이들 옷은 자주 빨아 입혀야 하기 때문에 물색옷은 물이 잘 빠지고 물감이 귀해서 흰색으로 주로 입혔다.

아이들 저고리에는 “옷고름을 돌려라”하여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게 걸고름을 길게 하였다.

2) 혼례치레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 차림이고 신부는 치마저고리에 족두리를 쓴 전통혼례를 치루었다.

① 신랑차림복

속에는 한복의 기본인 바지, 저고리와 속옷으로 고의(또는 잠방이)에 속적삼을 내복으로 입는다. 위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겉에는 사모관복 차림으로 관복을 입고 허리에 각띠를 띠며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발에는 목화(木靴)를 신었고 손에는 손이 보이지 않도록 흰색의 한삼(汗衫)을 낀다. 안에 입는 옷들의 색깔은 주로 흰색이고 옷감은 외포나 명주 나단(羅緞)으로 하였으며 세루두루마기는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겼다. 세루두루마기는 주로 밤색이나 남색이었다.

② 신부차림복

속적삼에다 저고리를 입었다. 아래는 속속곳을 입고 그다음 바지와 단속곳 그리고 치마를 입었다. 속적삼은 처음에 외포로 만들었고 그다음 인조가 혼해지면서 인조로 해입었고 다음엔 옥양목으로 차츰 변했다. 저고리는 속적삼위에 하나 밖에 안 입었으며 노랑색 길에 자주나 빨강을 댄 반희장 저고리 였다. 저고리감은 명주나 갑사, 숙고사, 진루사, 법단 등으로 많이 만들어 입었다. 치마는 빨강색이나 분홍색으로 만들어 입었다. 속옷으로는 속속곳과 바지, 단속곳을 입었는데 속옷감으로는 흰색으로 외포를 많이 썼으며 옥양목, 인조견이 후대로 오면서 차츰 이용 되었다.

3) 수 의 (壽 衣)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과 염습(殮襲)하는 것들을 포함시켜 말하는 것이다.

옷감은 주로 삼베로 하였다. 그러나 살닿는 곳에는 삼베로 하고

겉에는 명주로 한 집도 예전에 있었다 하며 이는 좀 잘사는 집에서 하였다 한다. 여자는 치마, 저고리, 속옷, 손싸는 것, 배싸는 것, 버선 등을 마련하였으며 남자는 바지, 저고리, 고이, 적삼위에 두루마기와 도포를 마련 하였으나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기본옷 위에 두루마기만 한다.

4) 상복(喪服)

상복하면 예나 지금이나 삼베옷이다.

남자 상주들은 삼베로 만든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는다. 결혼을 하지않은 아들일 경우는 머리에 건을 쓰지 못하므로 “테두레”와 “베보자기”를 썼다. 사위나 손자는 일년복을 입는 복쟁이라 하여 복두루마기에 건을쓰고 행전을 찬다.

여자 상주들은 빨지않은 광목으로 상복을 만들어 입는다. 삼베는 귀하고 비싸며 광목이 차츰 구하기 쉽고 흔해지면서 광목으로 입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친정에서는 사돈댁의 부고를 받으면 딸 몫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고 신는 것과 속옷까지 만들어 주었다. 또한 여자상주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삼겹질로 새끼처럼 꼬은데다 사이 사이에 베형겉을 끼운것을 쓰고 허리에는 삼띠나 짚새끼띠를 맨다. 신발은 남녀 모두 짚신을 신었다.

5) 아이들 차림복

아이들의 옷은 남녀아 모두 어려서는 저고리를 길게하고 옷고름을 길게하여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매게 달았으나 4~5세가 지나면 일반 어른들과 같이 짧은 고름을 달았다. 바지는 남녀아 모두 입히는데 남아는 가랑이가 터진것을 하고 여아는 앞쪽은 막히고 뒤는 트이면서 무가 달린 풍채바지를 입혔다. 그위에 치마를 입혔다. 옷

감은 모두 무명이었다. 1930년대 이후로는 광목으로 옷을 해입기 시작했으며 주로 흰색을 많이 해 입었고 또한 빨강, 분홍, 노랑, 검정색 등 물감을 들여 해 입기도 하였다.

6) 젊은이 차림

결혼하기 전 대부분 총각들은 바지 저고리를 입었다. 1930년대 이후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양식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으나 집에 와서는 바지 저고리를 입는 이중복식 구조였다. 처녀들은 귀밑머리를 땡고 광목에다 빨간물을 들인 땡기를 달았다. 땡기도 처음에는 광목으로 하다가 명주땡기를 한다음 차츰 갑사땡기, 인조땡기가 나왔으며 최근에는 갑사금땡기로 변천 하였다. 옷은 치마 저고리에, 속에는 바지를 입었으며 버선은 명절이나 겨울 또는 나들이 갈때나 신었으며 신발은 짚신을 신었다. 옷감은 주로 광목이었으며 명주옷은 겨울 설날이나 되면 입어 볼 정도였고 명주 속옷을 입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저고리는 주로 흰색으로 입었으며 명절에는 노랑색이나 분홍, 연두색 옷을 입기도 하고 치마는 빨강이나 분홍, 검정색 이었다. 치마는 자락치마를 입었으며 왼쪽으로 여몄다. 치마속에는 가랑이가 터진 바지(고쟁이 또는 가랑바지)를 입었다.

7) 어른 및 노인 차림복

① 남자

남자 어른들은 머리에 갓을 쓰고 바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정장 외출복 차림이었다. 옷감은 광목이 주였으며 여름에도 삼베와 모시는 귀한것으로 특히 모시는 나들이 용으로나 쓰였

으며 겨울에는 명주옷이 제일 호사였다.

1940년대 이후 “세루”가 많이 보급되면서 겨울용으로는 세루 두루마기가 최고가 되었다.

신발은 남녀 모두 짚신을 신었으며 미투리와 짚신은 고급이었고 일제때는 계다를 신기도 하였다. 비가 올 때는 나막신을 신었다. 고무신은 1940년대 이후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검정색이었고 귀한 것이었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하여 손목에 토시를 졌다. 숨을 넣어서 솜토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귀하였다.

② 여자

여자 어른들은 대부분 저고리 위에 나들이 할 때는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입기도 하였다.

후대에 와서는 차츰 안에다 털을 댄 소매 없는 털배자가 나와서 입기도 하였다.

평소 속에는 처녀들처럼 치마속에 가랑 바지를 입고 나들이 갈 때나 단속곳을 입었다.

손목에는 숨을 넣은 솜토시를 하였고 부자 집에서는 조바위나 남바위를 쓰고 두루마기도 입었으나 가난한 아이들은 치마에 솜저고리 정도를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썼는데 수건과 비슷하나 좁게 숨을 넣어 만든 “두리개”라는 것을 쓰기도 했다. 신발은 주로 짚신을 신었으며 미투리나 고무신은 귀한 것이어서 나들이때나 신었고 비 올 때는 나막신을 신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신인 “계다”도 신었다.

8) 농부 노동복

겨울에는 바지 저고리에 여름에는 “잠방이”에 적삼을 입었는데

옷감은 광목으로 하였다. 삼베는 여름에 가장 좋은 노동복이었지만
귀해서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광목으로 만들어 입었다.

비 올 때는 우장을 걸쳐 입었다. 우장은 엉덩이보다 조금 길고 집
에서 보리짚이나 밀짚으로 엮어 만들었다. 머리에는 밀짚 모자나
보리짚 모자 혹은 맥고 모자를 썼다.

2. 식 생활 (食生活)

태백권내(太白圈內)의 영서내륙(領西內陸) 산간지방인 우리 인제지역은 사계절(四季節)의 변화가 한온지대(寒溫地帶)에 속함으로 어느 지방보다 다양한 토속식단(土俗食單)을 간직한 고장이다.

또한 지리적 여건과 기후 풍토에 따라 산이 많아 산채가 많고 경작되는 지목도 자연히 논보다 밭이 많고 그 중에서도 화전밭이 많았다.

따라서 소박한 풍토와 민심을 간직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살아 온 이 고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흠이지만 이제는 감자, 옥수수, 도토리 등을 소재로한 국수, 경단, 떡, 부침, 묵 등 각종 독특한 요리가 평상시에 향토 별미로서 식도락(食道樂)에 가일층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우리 고장의 식생활(食生活) 분야에 대하여 1900년대 초부터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를 거쳐 1950년대 까지를 조사하여 수록해 보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는 60대 이상으로 이 고장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어른들과 출생지는 아니지만 이 고장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원로들로서 특히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분들께서는 주로 어렸을 때 어른들의 생활상을 전해 듣고 익힌 것들과 자신들이 생활한 경험담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우리 인제관내 식생활은 부락마다 비슷하였기에 일괄적으로 수록하되 사계절로 나누어 계절마다의 식생활 상황을 기록 하고자 한다.

1) 봄철 식생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임야는 많지만 논, 밭 경작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중에서도 우리 인제군은 논은 아주 작은편이고 밭이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화전밭을 많이 일구어 곡식을 심어 추수를하여 그 곡식으로 주식을 이루고 식생활을 해결 해 왔다. 봄철의 주식으로는 주로 잡곡밥으로 식생활을 영유하였는데 보리밥, 조밥, 수수밥, 강냉이밥, 밀로 만든 칼국수, 수재비, 뜨덕국, 밀투성이, 흰죽, 나물죽 등을 주로 해 먹었으며 때로는 잡곡에다 쌀을 섞어 귀하게 밥을 지어 먹었다. 또한 반찬으로서는 배추와 무김치(짠지라고도 함), 된장, 나물, 콩나물, 쓰레기국, 나물국, 짬아치 등이 주 반찬이었으며 귀하게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주식과 부식으로 먹었고 거기서 나오는 비지로 장을 지져 먹었다. 또한 산에서 나는 산채류와 도라지, 더덕, 버섯 등을 채취하여 양념을 하여 찬을 만들어 먹었으며 양념으로는 소금, 고추가루, 파, 마늘,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하였으나 소금 외에는 흔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주류로서는 누룩을 집에서 담아 술을 만들어 먹었으며 특히 강냉이 막걸리를 많이 담구어 먹었다. 그외 사람을 얻어 농사 일을 할 땐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해물로서 미역, 김, 콩치, 고등어 등을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 내놓기도 하였다.

※ 단오 명절에는 취떡을 주로 해 먹었다.

2) 여름철 식생활

여름철의 주식으로서는 아침에 주로 잡곡밥을 해먹었고 점심으로는 옥수수과 감자를 술에 찌서 먹는가 하면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 수재비, 뜨덕국 등을 해먹었다. 또한 밀가루에 강남콩을 넣어 범벅을 해먹는가 하면 옥수수를 갈아 끓여서 올챙이 국수를 만들어 먹었으며 또한 옥수수를 갈아 찹쌀에 싸서 술에 찌 떡도 해먹었다. 때로는 썩을 뜯어 밀가루에 묻혀서 술에 찌 범벅을 해먹었으며 단호박을 찌 주식으로 먹기도 하였다.

또한 반찬으로서는 여름철이라 오이, 가지, 호박, 풋고추, 배추, 무, 상추등으로 양념을 하여 간을 맞추어 먹었다. 해물로서는 미역, 자반, 고등어, 콩치 등을 귀하게 사먹었으며 강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끓이고 찌려서 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간식으로는 옥수수 와 감자를 찌 먹는것이 대부분 이였고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부쳐 먹기도 하였다.

3) 가을철 식생활

일년동안 지은 농산물을 추수하는 계절이라 쌀밥도 해먹었으나 주로 조, 수수, 보리, 콩을 섞은 잡곡밥이 역시 주식이었다. 그러나 벼타작을 하는 날에는 쌀밥을 하고 집에서 병아리 때부터 키워 온 닭을 잡아 무를 많이 썰어 넣고 국을 끓여 기름이 동동뜨는 닭국을 맛 보기도 하였다. 반찬은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채소와 푸성귀를 간에 맞추어 밥상에 올려 놓았다. 추석 명절에는 송편떡을 만들어 물김치와 같이 해먹었으며 햇쌀밥에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근으로 달아서 사다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또한 고구마 농사를 대부분 지어 고구마를 잡곡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맨 고구마만 찌서 주식과 간식으로 먹기도 하였다. 여하튼 추수하는 계절이라 사계절 중 제일 먹을것이 풍부한 계절로서 각종 음식을 가정마다 풍부하게 해먹고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4) 겨울철 식생활

겨울철 주식도 역시 쌀은 귀하여 잡곡에다 조금씩 섞어서 밥을 지어 먹었으며 잡곡은 역시 조, 보리, 수수, 강냉이튀긴것, 콩, 팥 이었다.

별미로 낱을 받아 메밀로 국수를 눌러 먹기도 하였고 메밀부치기도 부쳐 먹었다. 또한 간식으로 고구마를 찌서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화로불에 구어 먹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날고구마와 무우를 깎아 먹는 것이 간식의 대부분 이었다.

또한 옥수수로 엿을 고아 두고두고 먹었으며 옥수수를 솔뚜껍이나 냄비에 튀겨 아이들의 군것질을 해 주었다.

반찬으로서는 김치, 깍뚜기, 동침이등 김장 반찬이 주였으며 쓰레기국을 많이 먹었다. 또한 고추장, 된장으로 찌개와 국을 끓여 먹었다.

설날에는 어렵게 참쌀과 멥쌀을 시루에 찌서 떡암반에 부어놓고 떡메로 쳐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만두를 빚어 떡국을 함께 끓여 먹는것이 명절 특별 음식이었다.

해물로서는 동태와 양미리 등을 주로 많이 사다 먹었으며 역시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 근으로 달아 골고루 나누어 사다 먹는것이 육식의 전부였다. 이러한 주식 생활은 1960년대 이전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3. 住生活

주택은 인간활동의 중심으로서 심신(心身)의 생리(生理), 정서(情緒)등 기본적 욕구와 생존(生存), 적정(適正), 쾌적(快適)의 최저 수준을 만족시키는 물적용기(物的容器)라 볼 수 있다. 또한 주택은 비, 바람을 피할 뿐 아니라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은신처로 가족의 비밀이 보장되는 안식처로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축적 증식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원시시대의 동굴이나 현대의 호화주택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은신처의 개념은 동일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이 지닌 단순한 은신처의 역할을 넘어서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정치적 이념과도 깊은 관련을 지닌다.

즉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현대 사람들은 주택을 하나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택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과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인제지역 사람들이 단순한 은신처로 역할을 하였던 주거 생활은 어떠 하였는지 그 양상을 나타 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조말기 후 1900년대 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 까지의 주거 생활상을 이고장에서 출생하여 성장 해 오신 옛 어른들의 체험된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수록 해 보고자 한다.

우리 인제군은 태백산맥을 준령으로 하여 영서 내륙에 자리잡고 있는 산간지대 이다. 그러므로 옛 어른들은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산간 화전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키워 수확을 얻어서 살아왔다.

이러한 화전민은 조선후기에 급속히 전파되면서 이 지역에도 그 궤를 같이 하여온 삶의 생업이었으며, 지속하여 오다가 1960년대

국가시책에 의해 강제 정리된 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거 주민들은 계곡이나 화전밭 인근에다 집을 짓고 은거를 하면서 살아왔다. 바로 이러한 때 집들은 순수한 은신처로의 역할만을 한 것이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인제지역에서 살아왔던 지역민들의 주거 모양은 어떠한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살아왔는지 좀더 세분하게 구분하여 정리 해 보자.

1) 집의 종류

① 귀틀집

주로 화전민이나 숲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계곡이나 화전밭 머리에 귀틀집을 지어 주거 생활을 해 왔다. 이러한 양상은 예전에는 많았다고 하나 6. 25사변 이후 수복 당시만 하여도 우리고장 산간 계곡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화전민 정리 이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지금은 옛 원시인의 주거 생활처럼 느껴만 지고 있었다.

귀틀집은 통나무를 도끼로 잘라 엽을장, 받을장의 귀틀로 짜고 벽체는 통나무 사이에다 진흙을 발라 마감 하였다. 즉 엽을장, 받을장의 흙의 길이가 얇아 이 상태로 벽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통나무와 통나무의 사이가 틈이 벌어져 통나무 자체로는 벽체를 구성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통나무 사이에는 짚이나 풀을 썰어넣은 진흙을 발라 벽체를 마감하는 수법을 사용 하였다. 각 귀틀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자연석의 초석을 놓고 벽체의 아래에도 자연석을 벽체를 따라 열을지어 깔았다. 이는 귀틀의 벽체가 내력벽이므로 상부의 하중을 벽체를 통하여 지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체 하나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을 깔은 것이다. 방바닥은

넓적한 돌을 골위에 놓고 그위에 진흙을 깔아 온돌을 만들어 지직이나 갈자리 등을 깔아 생활하였고 지붕은 짚이 귀하였으므로 새초, 겨릅, 너와, 굴피껍질 등을 덮어 생활 하였다.

대체적으로 귀틀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풍이 잘 유지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초 인제읍 객골 안턱에 광솔로 기름을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이때 귀틀집이 있었으며 깊은산 계곡을 다니다 보면 귀틀집이 있었던 자리가 있다.

② 너와집

살기가 어려웠던 예전에는 비단 우리 인제지역 뿐 아니라 어느 군단위 산간지역도 마찬가지로 지붕을 해 잇기 위한 벼짚이 귀하였고 또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와 경제 여건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기와로 지붕을 해 잇는 집이 드물었다. 주위의 자연적 여건에 따라 화전민들 간에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새초, 너와, 굴피나무 껍질 등으로 많이 해 었었다. 너와는 산에서 통나무를 베어다 기와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토막을 내고 다시 두껍게 쪼개어 만드는데 이것으로 지붕을 해 잇는 집을 너와집이라 한다.

우리지역에 너와집은 기린 방동지역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으며 지금도 기린면 진동리 깊숙히 들어가면 옛날에 살던 빈집 한 채 지붕이 일부 너와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초가집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살아왔던 집이 초가집 이었다. 초가집은 주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돌리고 지붕을 만들기 위해 석가래를 치고 다시 싸리가지나

수수대로 외가지를 엮고 그위에 안과 밖을 진흙을 물에 이겨 발라 벽을 만들고 석가래 위에 벗짚으로 지붕을 엮어 지은 집을 초가집이라 한다.

④ 기와 한옥집

여유가 있어 잘산다는 부유층이면 한옥집을 넓은 대지 위에 크게 짓고 살아왔다.

한옥집이란 굽은 통나를 꺾질을 베껴 다듬은 것이나 각재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돌리는 도리재목도 좋은 목재를 사용하고 외가지를 고르게 엮어 그위에 흙을 벗짚 썰은것과 물에 이겨 고르게 바른다음 다시 양회로 깨끗히 벽을 바르고 천장에는 고무래를 누리고 굽은 석가래 위에 기와를 엮어 지은 집을 한옥집이라 한다.

2) 집의 구조

예전 사람이 살아왔던 집의 구조를 요약해 보면 보편적으로 울타리는 토담과 돌담이 있었고 대문은 소나무 널판으로 짜서 달거나 울타리가 싸리나무나 잡목으로 하였을때는 싸리문을 대부분 해닫고 살았다.

집의 형태는 많은 가족이 모여 살기때문에 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자, 자, 자 집으로 흔히 짓고 주거 생활을 하였다. 안채집 방으로는 안방, 옷방, 골방(샛방)이 있고 사랑채집 방으로 아랫방, 상방이 있으며 보통 대청마루가 있었고 부속으로 광, 외양간, 안채부엌, 사랑채부엌이 있었다. 각 방마다 벽 모퉁이에는 코쿨(유지나 광솔에 불을 붙혀 밝히기 위한 것)이 있고 방바닥은 흙을 발라 온돌을 만들고 그위에 돛자리나 갈자리를 깔았었다. 안방부엌에는 흙으로 만든 부뚜막이 있고 그위에 밥솥, 국솥을 걸어 사용하였으며 실

평이 있고 나무로 찬장을 짜서 그릇을 넣어 두었다.

광안에는 주로 농사를 지은 곡물을 넣어두고 외양간에는 한 두마리의 소를 키웠으며 사랑부엌에는 큰 가마솥을 걸고 소의 여물을 끓여 먹였다. 굴뚝은 토담을 쌓거나 밀이 깨진 독(항아리)을 놓았으며 봉당과 앞마당이 따로 있는 집도 많았다. 이외에 예전에는 여러가지 집의 종류와 구조를 갖춘 형태로 각양 각색하게 주거생활을 하였지만 보편적이었던것만 밝혀 보았다.

참고로 우리 인제지방에서 제일 오래전에 지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집은 인제군 기린면 북3리 이병승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될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집의 나이는 약 3백년 이상으로 된다고 주인 이병승씨는 전해준다.

우리고장 민요 (民謠)

- 편집실 제공 -

머리말

민요(民謠)란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여러 세대를 구전(口傳)되어 온 전통적인 삶의 노래이다. 우리나라의 민요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불려지고 있는 소박하고 향토적인 노래와 직업인 소리꾼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불려지는 노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토속민요라 하고 후자를 통속민요라고 하며 또한 이 민요는 각 지역별로 구분되기도 한다.

민요의 지역적인 분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경기(서울, 경기, 충청 일부)민요, 서도(황해도, 평안도)민요, 남도(전라도)민요, 동부(경상도, 강원도)민요 등으로 분류 된다.

본문에 조사 기록된 민요는 비단 우리 인제지방에서만 불리워지는 민요는 아니다. 다른 지방의 민요가 세월의 흐름속에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들어와 이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전 부터 불려왔던 민요가 보편적으로 많다. 또한 조사중 특히 부녀 소리에 속하는 시집살이 소리, 베틀소리, 방아타령 등 가사를 끝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부르는 이가 거의 없고 한 두소절 알고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만도 다행이다. 이젠 이분들마저 늙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고증받기가 속수무책 일 것이다.

민 요(民謠)

1. 각설이 타령.

혜, 열, 씨구씨구 들어간다. 절 씨구나 들어간다
일자를 한자나 들구나 봐요 일선에 가신 우리 서방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자 이승만에 대통령이 삼팔남한을 지켜준다.
삼자를 한자나 놓구나 보니 삼천만의 웃음소리가 금수강산에 울려
퍼진다.

사자를 한자나 놓구나 보니 사시사철 바쁜날에 점심 찾이가 늦어진
다.

오자를 한자나 들구보니 오천만에 괴뢰군이 삼팔 남으로 넘나든다.
육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육이오 난리에 집을 잃고 거지의 생활
이 웬말이요.

칠자를 한자나 놓구나 보니 칠십리에 포소리가 우리 강산에 울려
퍼진다.

팔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판문점에 열린회담 국가대표가 모여든
다.

구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국군간지 삼년만에 상이군인이 웬말이
요.

장자를 한자나 들구나 보니 장가간지 첫날밤에 상이군인이 웬말이
요.

어허좋다 씨구씨구 들어간다 장타령패는 이렇게 사는데 원칙입니다.

열... 씨구씨구 들어간다 절 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일라리 송송에 야송송 밤중 샛별이 뚜렷하
다.

이어나 한자나 들구보니 이승만이 대통령 아주사가 부통령.
삼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삼태성은 기우러 지고, 밤중 셋별만 뚜렷하다.

사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사시사철 바쁜날에 점심참이 늦어진다.
오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오광대광 말광대 광대줄이나 잘 탄다.
육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육십먹은 노인이 손자 보기가 늦어진다.
칠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칠월칠석 되고보니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
팔자를 한자를 들구봐라 팔자에없는 이내몸이 거지생활이 웬말이나.

구자를 한자를 들고보니 구년목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기만 기다린다.

장자나 한자나 들구보니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왔네.

품바품바 잘이한다. 각설이 타령을 잘도한다.

※ 각설이타령은 6. 25사변직후 수복당시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다같이 불려졌다.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李萬喆(1945~)에 의해 채집 되었다.

2. 권 주 가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을 잡으시오.
이 술은 술이아니라 먹고 노자는 경배주라.
첫 짜잔은 인사잔이요, 둘째 잔은 먹고노자는 경배주라.

시오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을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아니라 먹고 노자는 경배주라.
삼신산 불로주로 백일 기도로 다려놓고

천년만년 만루주인데 이 술 잡으면 만수무강.

우리가 살면은 한 오백년 사나
오늘종일 요렇게 놀제 노래를 합시다.
술먹지 마자구서 맹세를 했더니
친구와 서로 만나고 이또 먹겠네
술은도 술술이 요렇게 잘 넘어 가는걸.
단주냐 금주냐 그것이 무슨 소리냐

※ 인제읍 상동4리 朴海順(70)씨의 소리로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50)씨 기록으로 채집되었음.

3. 그네 노래

수천냥 세모진 낭기 넓(높)다랗게 그네를 매구
넘이 뛰면 내가 밀고요 내가 뛰면은 넘어 민다.
넘이야 줄 잡지 말어라 줄 끊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수천냥 세모진 낭기 높다랗게 그네를 매구
넘이 뛰면 내가 나밀고 나가 뛰면은 넘어나 밀지
넘아넘아 줄 밀지 말아라 줄 끊어지면 정 떨어진다.

※ 인제읍 함강2리 3반 박춘매(70)씨의 소리로 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50)씨가 기록 채집하였음.

4. 금강산 유람가 (金剛山 遊覽歌)

天下名山 어데메뇨 天下名山 求景갈제

해-끼고 솟은山川 一萬二千 봉오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金剛山은 분명코나
 長安寺를 구경하고 萬鏡臺에 다리쉬어
 망군데를 올라가니 麻衣太子 어디갔나
 바위위에 얽힌꿈은 추모하는 魂뿐이라
 鍾소리와 念佛소리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두금주 열두담아 구비구비 흘렸으니
 仙境인듯 極樂인듯 萬物相이 더욱좋다.

※ 이 雜歌의 출처는 강원도이지만 이 지방뿐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애창된 이름 높은 민요이다.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21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5. 기린 면민가(麒麟面民歌)

雪嶽山 높은精氣 芳臺에 잇고
 內麟川 맑은물이 감싸 도는곳
 넓은숲 푸른바다 이어 번지니
 基知는 우렁차게 뻗어 나간다

후렴 키우자 드높이 세워진 꿈을
 우리는 麒麟人 새世代 일꾼

下馬路 麒麟臺는 자랑스럽고
 저마다 가슴마다 부푼 꿈 안고
 번영을 다짐하는 복지의 행진
 내일의 보금자리 다져 나간다.

※ 基知는 약2000년전 고구려때(紀元前 57年頃) 이고장을 부른 最初의 古地名이다. 이 가사는 1976년 11월 1일 全鉉叔(1927~?)이 기린중고교 교감으로 재직중에 작사한것을 동교(同校) 남보원(1942~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에 의해 작곡후 면민들이 부르다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16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6. 김매기 노래

지어가네 지어가네 담배치미 지어가네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줄병남게 걸쳐 앉았네
합강이라 雪嶽山물이 萬戶臺로 감도네
玉洞桃花가 滿三春하니 가지가지 봄빛이로다.
南門을 열고 파래를 치니 啓明山川이 밝아오네
西山에 지는 해는 지고싶어 지나.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싶어 가나.
千里로구나 萬里로구나 임계신 곳이千里로구나.
나를 두고 가시는 임은 가고싶어 가시나.
오천 만가지 守節法은 어느 누가 냈는데,
젊은 과부 守節法은 어느 누가 냈느냐?

※ 원래 嶺東地方의 民謠(嶺東民俗志·1972)인데 인접한 이고장에 移居한 嶺東人에 의해 보급되었다고 인제읍 상동리 出身인 全州人 李冠玉(1906~사망)은 傳해 준다고 기록된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19페이지에서 발췌함.

7. 노랫가락

산은 옛산이요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는 물이 물조차도 옛 물일소나.

산-절루 수-절루 녹수라도 절로절로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을 사느냐
살아서 생전에 이런일만 해야하나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농군 신세가 이렇구나

※ 인제읍 함강2리 6반 김연규(82세)씨의 소리에서 채집되었음.

앞동산에는 봄춘자요 앞넷가에도 내천자라.
굽이굽이 내천자요 가지마다 꽃화잔데
동자야 국화주 걸러라 마실음자가 안주로다.

비가와서 쓰러진 나무 바람이 분다고 일어나라.
송죽같은 굳은 절개 매맞는다고 허락할까.
몸은 비록 화류계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냐

※ 인제읍 상동4리 박해순(70세)씨의 소리에서 채집 하였음.

북망산에 봄춘자요 앞 남산에 푸를청자.
가지가지 꽃화자요 고개고개 내촌자라.
동자야 잔가득 부어라 마실음자 월광주라.

담안에 매화를 심어 거리 노중에 던졌더니
찬이슬 굶은비만 맞일대로 다 맞었네
빨쥐거나 빈척하고 매화가지에 앉을까 말까

한 많은 요세상에 눈물 없이는 왜 못사나요.
어느때나 요노릇 면하고 눈물 없이도 잘 살아보라.

아서라 비관을 말하라 부르던 노래나 불러보자.

※ 인제읍 합강2리3반 박춘매(70세)씨의 소리에서 채집하였음.

8. 담바구 타령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에 담바구야
너의국은 좋다더니 조선지방을 왜나왔나
나의국도 좋다많은 조선지방을 유람왔네
은을줄라 나왔느냐 금을줄라고 나왔느냐
은도없고 돈도없어 담바구씨를 가져왔네
저기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심었더니
밤이면은 찬이슬맞고 낮이면은 양기썩어
겉있나고 속있나서 점점자라 왕됐구나
네모번듯 장도칼로 어썩비썩 쓸어놓고
영감의 씹지도 한쌘지요
할멈의 씹지도 한쌘지요
총각의 씹지도 함쌘지라
청동화로 백탄숯을 이글이글 피워놓고
소상반죽 부산죽에 담배한대 붙여무니
목구녕속에 실안개 돈다.
또한대를 피고나니 청룡황룡이 꿈틀어진다.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사위삼지
딸은두야 있다마는 나이가 어려서 못주겠네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뱀새가 작아도 알만나요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참새가 작아도 새끼만친다우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제비가 작아도 강남간다우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조고만 고추도 맵기도하우

에고할머니 그말씀마오 할머니 동감에 외손주봤다우

※ 인제읍 합강2리3반 박춘매(70세)씨의 소리와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50세)씨에 의하여 채집 되었음.

9. 뗏목 아리랑.

1)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간다.

2)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창랑에 뗏목을 띄워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하네

3)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거르게
보매기 여울에 떠내려가네

4)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서방님이 좋다더니
포와리 신영감이 아직일췌

5)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앞사공 뒷사공 조심하게
포와리 물사품 치솟는다.

6)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괘괘이 포와리 다 지나니
덕두원 썩쟁이가 날반기네

7)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합강정 뗏목이 많다더니
경오년 장마에 다떠내려갔네

8)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오 자고가오 잠자다가오
보름달이 지도록 놀다가오

9)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 갈마음은 간절한데
서산의 낙조에 해떨어지네

10)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 변할줄 뉘알았나

11)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술잔을드니
만단의 서름이 다풀어지네

12)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하강을하니
광나루 건달이 손짓만하네

13)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기나 좋기는 합강정이요
넘기나 좋거는 거닐고개

14)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변해졌네

※ 인제읍 상동4리 朴海順(70)씨와 인제읍 합강리 박춘매(70세)씨의 소리에서 채
집기록되었다. 또한 이뗏목 아리랑은 1985년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속
초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인제뗏목 놀이로 출전하여 강원도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때에 이 뗏목 아리랑을 불렀다.

10. 도라지 타령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강원도 금강산에 백도라지.

한 두 뿌리만 캐여어도 대바구니만 스리살짝 다녹인다.
에헤요 데헤이요 에헤이요 어이여러 난다아 지화자 좋다 허송세월
을 말아라.

도라지를 캘라면 캐구요 더덕을 캘라면 캐누나.
어데가 날때가 없어서 양바우 틈에가서 낫느냐.
에헤요 데헤이요 에헤이요 어이여러 난다아 지화자 좋다 네가 내간
장을 스리살짝 다녹인다.

※ 인제군 남면 신남2리1반 이신옥(58세)씨의 소리에서 채집되었으며 이소리는
전국어디서나 다함께 많이 불러졌던 소리이다.

11. 동 풍 가 (東風歌)

- 1) 세월아 봄철아 왔다가지를 말아라.
장안에 호걸이 모두다 늙어 가노라.
에헤이 에헤이 에리함마 더어라
- 2) 슬슬슬 동남풍 굿은비 가는비 오는데
세월아 연풍이 임만 쉬여서 노잔다.
에헤이 에헤야 에라함마 디어라
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 인제지방의 농민들이 봄비를 기원하면서 부른 勞動謠로 가락이 흥쾌하며 흥겹
다. 동풍(산바람)이 불어오면 이지방에 비가 내리므로 불러진 것이며 전 유도
회 인제군 지부장으로 덕산리 출산인 金昌鉉(1913~사망)의 가창을 전 인제중
고 교감 권현권이 채집한것을 동교 박봉운(1952~)이 정리 하였음.

12. 들병이 노래

잔돈푼이 아쉬워서 들병장사를 나왔더니
여러분의 덕택에 잘팔아 가지고 갑니다.
에헤야 데헤야 오여라 난다 디어라
허송 세월을 말어라

백옥같이 흰얼굴에 오복수 댕기를 디리고
장안 전차를 타구서 밤무대 구경을 갈꺼나
에헤야 데헤야 어여라 난다 디어라
허송세월을 말아라.

※ 인제읍 합강2리3반 박춘매(70세)씨의 소리에서 기록채집하였다.

13. 메나리 타령

메나리는 간다만은 받을친구 전혀없네
밭길랑은 내받을께 보내기나 하여주세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지고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줄모 심어주게
여러친구 일심받아 알뜰살뜰 가꿔보세
해는벌써 한낮이니 점심먹고 썽썽하세
오늘해도 다갔는지 골골마다 그늘일세
해가져서 그늘인가 산이높아 그늘이저
아침나절 만난친구 해질골에 이별일세
이별일세 우리친구 내일다시 만나보세

※ 1979년 5월 26일 향교에서 군지청문화회가 있었을때 서화면 천도2리 김해인 金壽培(1904~)씨가 가창한것을 전인제고교 교감 전현권(1926~사망)씨의 의

해 채집된 것임.

14. 메뚜기 노래

앞집 방아 딸각 딸각
뒷집 방아 딸각 딸각
짙어 내니 쌀이요
하여 나니 밥이요
먹고 나니 잠이요
누고 나니 똥이요

※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16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임.

15. 메밀 타령

엉덜엉덜 메밀밭에 메밀을 한되 뿌렸더니
무슨대가 나왔더냐 빨간대가 나왔더라.
무슨꽃이 피었더냐 하얀꽃이 피었더라.
무슨열매 열렸더냐 까만열매 열렸더라
몽났은 갈아차고 갈강났을 갈아들고
쭈뼌이 베어 단단히 묶어서 지게다가 덩불쳐
양어깨다 질머져다 마당에다 넣어놓고
도리끼와 벼락맞추어 치바다에다 호사를 태워
멍석에다 햇빛뵈여 망에다 골을태겨
방아에다 벨을태겨 국수채로 흔들어서 옥수수에다 반죽을 해놓고
왕동이 가마에다 물을끓여 나무분에다 둘러서
짜리채반 싸냈다가 동짓달 동침이 국물에다 말아가지고
후루루 쭈쭈 다 먹었네

※ 1930년 무렵에 보급되었다는 이 타령은 인제읍 원대리 全州人 李根鐘 (1941 ~)에 의해 제창한 것을 최병헌(1946~)씨가 채집한것이다. (1980년 5월 20일 발행 한 인제군지 422페이지에 기록되어있음)

16. 물레 노래

물레야 배뱅뱅 돌아라
싸게싸게 둘러라
일감이 많아 간다.

17. 방구 타령

시어머니 방구는 호령의 방구
시아버지 방구는 잔소리 방구
시누년 방구는 고자질 방구
서방님 방구는 단방구랍니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요
요렇게 좋다가는 막내딸 낳겠네

※ 인제읍 함강2리6반 김연규(82세)씨에게서 채집되었다.

18. 백담사 아리랑

백담사 계곡에 쌓인눈이 다 녹고
꽃피고 잎이져도 나는 어이 못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연희동 집으로 나를 보내 주구려

아서라 마러라 네가 그리 마러라
부귀영화 누릴적에 네가 그리 마러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슴에 멩플리면 돌아가게 되어라.

※ 강원大學校 박민일 교수 편저(1991. 10. 30.발행)아리랑 책자 224페이지에서 발
췌분으로 1989년 12월 20일 조춘성이라고 되어있음.

19. 백발가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여 슬프던고
이세월이 영구할줄 태산같이 바라더냐
백련광음 못다가서 백발되니 슬프도다
어화철든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소
덧없이 가는세월 낸들아니 늙을소냐
저근덧 늙은것이 한심하고 원통하다
소문없이 오는백발 귀밀에 의막하고
정처없이 오는백발 털끝마다 전부하네
이리저리 생각한들 오는백발 말릴소냐
위풍으로 제어하면 겁을내어 아니올까
근력으로 쫓아보면 무언하여 아니올까
욕을하여 거절하면 노염내여 아니올까
드는칼로 냅다치면 혼이나서 아니올까
휘장으로 가리우면 보지못해 아니올까
소진장의 구변으로 달래보면 아니올까
석승이의 억만재로 인정쓰면 아니올까
묵은술을 많이빚어 권하면 아니올까
만반진수 차려놓고 빌어오면 아니올까

할수없다 저백발은 사람마다 겪는다
인생부득 항소년은 풍월중에 명담이다
가난함을 근심마라 농사지어 봉양하세
논에다는 벼를심고 밭에다는 조를심어
벼는베어 부모봉양 조는비어 우리먹세
계돈부어 가축길러 은린옥척 낚어다가
만반진수 차려드려 부모공양 극진허세
위태한데 가지마라 부모님이 조심한다
주색잡기 멀리하자 부모님께 욕이된다
부모만일 노하시면 자식마음 송구해서
얼굴빛을 순히하고 말씀일랑 나직해서
공경사랑 더욱하면 부모감동 하시리라
부안모은 순임금도 부자자효 하셨거든
하물면은 우리부자 부자자효 못할손가
부모만일 병드시면 근심하고 민망해서
의약으로 구완하고 천지께도 빌어보세
정성마음 지극하면 신명감동 안할손가
불행하여 별세하면 망극애통 어이할꼬
성복전에 안먹어도 음식생각 전허없네
의금관곽 정히짜서 선상하에 안장할제
애황중에 정신차려 예법대로 행하여라

총망중에 잘못하면 종천지한 되오리라
우애곡절 지난후에 거상범절 어떻든고
굴전제복 벗지않고 주야애곡 뿐이로다
남여상차 분명하니 부부동침 못하리라
나물실과 안먹거든 주욕이야 말할소나
두달석달 장사후에 맛이나니 죽뿐이라

소상대상 잠깐지나 삼짱날이 다갈렀다
삼년종상 필한후에 사모할것 전혀없네
사당안에 신주모셔 없는부모 계신듯이
아침마다 전알하고 삭망으로 분양하고
신곡나면 천신하고 절일되면 절사하고
시월중에 시제하고 기일되면 기제하고
삼척갑자 동방삭은 절생후생 추문이요
팔백년을 사는생존 고문금문 또있는가
부유같은 이세상에 초로같은 우리인생
남여상차 분명하니 부부동침 못하리라
나물실과 안먹거든 주욕이야 말할소나
두달석달 장사후에 맞이나니 죽뿐이라
소상대상 잠깐지나 삼짱날이 다갈렀다
삼년종상 필한후에 사모할것 전혀없네
사당안에 신주모셔 없는부모 계신듯이
아침마다 전알하고 삭망으로 분양하고
신곡나면 천신하고 절일되면 절사하고
시월중에 시제하고 기일되면 기제하고
삼척갑자 동방삭은 절생후생 추문이요
팔백년을 사는생존 고문금문 또있는가
부유같은 이세상에 초로같은 우리인생
물위에 거품이요 위수에 부령이라
칠팔십을 살더라도 일장춘몽 꿈이로다
이내품은 늙어지면 다시젊기 어렵도다
창힐이 글자넌게 가증하다 늙을'로'자
진시황 품서식에 자리얏고 나가있어
이미없고 사정없이 세상사람 []로뇨
늙기도 서런중에 모양조차 늙어지네

꽃같이 곱던얼굴 검버섯은 웬말이뇨
옥같이 흰눈살이 광대등뼈 희었구나
안방같이 기른머리 불한당이 쳐갔으며
불작위에 있던살이 마귀할미 꾸어갔다
셋별같이 밝던눈이 반장님이 되었으며
거물같이 밝은귀가 절벽강산 되어가네
밥먹을때 불작치면 아래턱이 코를치고
정강이를 걷고보면 비수같이 날이서고
팔때기를 걷고보면 수양버들 늘어졌네
무슨설움 쌓였는지 눈물조차 흘러지고
추위한기 들었는지 콧물조차 흐르도다
떡가루를 치러는지 재머리는 무삼일고
지팡이를 짚었으니 등짐장사 하였는가
묵묵무언 앓았으니 부처님이 되셨는가
정신이 혼미하니 총명인들 있을소냐
남의말을 참예할제 동문서답 답답하고
집안일을 분별할제 판전이 일쭉로다
그중에도 먹으려고 비우풀고 노래하고
그중에도 입으려고 비백분란 망각하네
눈가증이 늙었는지 자릴보면 떼만쓰고
소년소녀 자세하여 얼뜻하면 속만네고
이상말은 하건마는 걸뜻하면 서러하여
육십갑자 폼아보니 덧없이 돌아오고
사시절을 살펴보니 빠르게도 돌아간다
늙을수록 분한말은 다할수가 가이없네
편작이를 다려다가 늙을병을 고쳐볼까
염라왕께 소지하여 늙지말게 하여볼까
주사약탁 생각하나 늙지말게 할수없고

억만번다시 생각한들 늙지말게 할수없네
어와답답 설운지고 또한말을 들어보소
꽃이라도 늙어지면 오던나비도 다시가네
나무라도 병이들면 눈먼새도 아니오고
비단옷도 헤어지면 물결래로 돌아가고
좋은음식 시어지면 수채구렁 찾아가네
세상사를 굶어보니 만사도시 몽중이라
어젯날 청춘때에 어떤벗이 찾아와서
주란화각 높은집에 화조월석 모여앉아
술맛도 아름답고 안주고 찬란하다
백옥산 교사상에 차례로 늘어앉아
자시거나 권하거니 몇순배가 돌아오나
패가자제 난봉축가 화류신방 물에별가
좋은일을 하는것이
날마다 모이면서 경각하산 하더라도
시류잡기 오입하여 일없듯이 책을보네
매일장치 오렐는가 봉제사가 꿈박이라
빈객친척 부제하며 처자권속 생각할까
집안일을 돌아보니 저녁거리 간데없고
신주패를 볼짝시면 천년목은 민지토다
안방이라 들어가니 늙은아내 몽당치마
어린자식 발을뽀고 밥달라고 우짚으니
금수가 아니어든 차마어찌 모양보리
어와청춘 소년들아 좋은말을 들어보소
가련할사 모든사람 잠잘줄도 모르고서
중후한소 부렴하여 단비를 맞게하소
자고새면 하는일이 남소위기 인삼이니
철천생시 생긴성품 제절로 굴러가네

농사는 근본이라 천하에 대사전만
 우리행사 뜻을두어 놓고먹고 입으려고
 광언망간 지어내내 흑세무민 일삼는다
 무공탄신 일어다가 이어예만 골몰하여
 우든산간 몰라보며 주야없이 죄만짓네
 백발되어 늙우친들 후회막고 어찌할꼬
 이세월이 견고할줄
 설인방탕 노닌바가 늙은주도 몰랐구나
 안수정든 잠깐이니 젊었을때 공양하소
 애고답답 설운지고 눈길설위 어찌하리
 조삿상대 하던걸로 부운같이 헤여지고
 죽자사자 하던친구 유수같이 흩어져서
 저절로 독부되니 후회탄식 뿐이로다
 서럽도다 소년들아 젊었을때 덕을담게
 빈객삼척 맹상군도 죽어지면 자취없고
 백자천소 과포장도 죽어지면 허사로다.
 영웅인들 늙어지고 호연인들 죽지 않을까
 영웅도 자랑말고 호걸도 말을마소
 만고영웅 진시황도 여산추초 잠들었고
 글잘하는 이태백도 지경산천 하여있고
 천하명장 초패왕도 오강오라 흔적없고
 우선하던 한무제도 분수추풍 한탄이라
 천하명인 종자기도 죽기를 못면하고
 남구일구 석승이도 할수없이 돌아가니
 역조창생 만민들아
 이내일신 젊었을때 선한공덕 어서하소
 일사일생 공봉한것을 어찌하여 면할손가
 가련하고 한심하다 우는일을 어찌하리

백발이 재촉하니 갈길을 생각하소
아마도 이세상에 전심하고 돌아가소
남에게도 인심얻고 친척에게 화목하소
인간칠십 살지라도 지은공덕 가이없다
좋은일이 얼마던가
속절없이 지내다가 산천에 돌아간다
무엇가져 저항하리
그렇저렇 지내다가 세월을 몰랐구나
복창청풍 명월가에 다된백발 어이하리
어젯날 청춘몸이 오는날 수족없이
한구석에 앉았으니 누가그리 알아줄까
생각하고 생각하니 절통하고 원통하다
이한몸이 돌아가면 다시오기 어렵도다
집을 잃고 돌아간들 어디가서 의지하리
다시금 생각하니 청춘시절 뉘우친다
천년만년 살줄알고 걱정없이 지내다가
오늘날 생각하니 세상일이 가소롭다
인생이여 탄착말고 선심공덕 어서하소
이말저말 조심하고 후생노자 잠만하소
극락세계 들어가서 구품연대 구경하세
이세월을 허송타가 서산낙일 다된후에
무가놈이 나타나면 후회막급 쓸데없고
처자권속 쓸데없고 친구부터 쓸데없고
부산같은 금은옥백 이지경에 쓸데없네
인생일대 탄생하여 지은공덕 가이없어
부귀공명 받아오며 자손명당 희망할까
금세부귀 하는이는 전세잡덕 그아닌가
악한죄를 짓지 말고

마음뒹아 선심하여 극락세계 들어가세
저세계를 들어가면 청춘백발 도시없고
생로병사 끊어지며 장생불사 하신다니
어서가세 어서가세 극락세계 어서가세
나무아미타불

※ 인제읍 상동4리 박혜순(70세)씨의 소리와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50세)
씨의 수집으로 채집되었다.

20. 뱃 노래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 꽃이 남물이 들었네
어야노 야노야 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어스럼 달밤에 개구리 우는소리 시집못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어야노 야노야 어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위현 바다에 배를 매구서
희은거천 으으 닷 감아라
어야노 야노야 어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 두고서 연락선 타누나
어야노 야노야 어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 기린면 서1리3반 박음전(62세)씨에 의해 채집 되었다.

21. 범 벽 타 령

정월이라 대보름날 달떡범벽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둥글둥글 범벅이야
 이월이라 초하루날 ○○범벅 개여보자
 농군들 범벅이야 둥글둥글 범벅이야
 삼월이라 삼짱날 무슨범벅 개었느냐
 나물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사월이라 초파일날 무슨범벅 개었느냐
 수리치범벅 개었더라 둥글둥글 범벅이야
 오월이라 단오날 무슨범벅 개었느냐
 수리치범벅 개었더라 둥글둥글 범벅이야
 유월이라 유두날에 무슨범벅 개여보자
 보리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개여보자
 칠월이라 칠석날 무슨범벅 개었느냐
 수수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팔월이라 한가위날 무슨범벅 개었느냐
 올벼범벅 개어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구월이라 중양일에 무슨범벅 개어나
 국화범벅 개어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시월이라 무사일에 무슨범벅 개었느냐
 늦베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동진달이라 동진날 무슨범벅 개어나
 팔죽범벅 개여보자 둥글둥글 범벅이야
 설달이라 그믐날 무슨범벅 개었느냐
 늦베범벅 올베범벅 둥글둥글 범벅이야
 열두가자 다개놓고 이도령찾다 다쏟았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 인제읍 함강2리3반 박춘매(70세)씨에 의해 일부 채집되었고 또한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수집 되었다.

22. 벼틀 노래

벼틀을 노세 옥난당에다 벼틀을 노세
에헤이여 벼짜는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이 지누나.
벼틀다리는 네다리요 큰아기 다리는 두다리라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떠누나
잉아대는 삼형젠대 놀림대는 독신이라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이 지누나
반달같은 부태는 큰아기 허리를 안고돌고
무지개발 신같은 신초래는 큰아기 발목만 흔들진들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함경남구 북반이 집은 놀러만 주어도 노래헌다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밤에 짜는건 월광단이요 낮에 짜는건 일광단이라
에헤이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일광단 월광단 다짜놓고 어느네 낭군을 새겨 볼까
에헤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일광단 월광단 다짜놓고 어느네 낭군을 새겨볼까
에헤여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들창밖에 나리는비는 가시는님의 눈물이라
닭아닭아 우지마라 네가울면은 날이샌다
에헤이야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 인제읍 함강2리6반 김연규(82세)씨와 인제읍 함강2리3반 박춘매(70세)씨와 인제읍 상동4리 박혜순(70세)씨의 소리로 채집 되었다.

23. 뽕따는 노래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앞집에 기화야 뒷집에 채봉아
만뒤산으로 뽕따러 가세
뽕도따고 님도보고
겸사겸사 뽕따러 가세
뽕은따서 다래키에 담고
강은따서 허리춤에 넣고
만뒤산에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목화밭 머리로 뽕따러 가세
뽕을 따다가 잠이들어서
시어머니 담뱃대에 연기만 나더라.

※ 인제읍 함강2리3반 박춘매(70세) 할머니에 의해 채집되었다.

24. 사랑가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알다고도 모를사랑
민다가도 속는사랑 오복조복 알뜰한 사랑
얼크렁 덜크렁 쌓은사랑
구월삼경 깊은 사랑에 공산야월 달 밝은 밤에
이별한 님 그린 사랑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 인제읍 상동4리 이원한(68세)씨 소리로 채집 되었다.

25. 사친가(思親歌)

正月이라 십오일에 望月하는 少年들아
凶風도 보려니와 父母奉養을 생각하게
신체발부 사대절은 父母님께서 태어 났으니
泰山같은 높은德과 洞海같이 깊은情을
어찌하면 다 갚으리까
慾情에 풍부지요 자용양지 친부재라
人間告別 하기전에 父母님께 효도하세

※ 인제文化院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다.

26. 산염불가

산에올라 옥을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나
이산저산 양산간에 울고간다고 옥산이나
니나노 니난설 산염불이로다

서산낙조에 떨어지는 해는
내일아침 또 뜨련마는
한번간 우리人生 다시오기 만무로다

※ 인제읍 합강2리6반 김연규(1925~)씨 제창으로 인제문화원 이만철 사무국장
이 채집함.

27. 산 타령

심을 보자하고 이산으로 들어오니

이산이 무슨산인가 강원도 땅
 설악산이 이 아닌가
 단군님이 강림하여 이땅을 경영할제
 만백성이 하나되어 하늘같이 섬기실제
 삼신산이 예아닌가 기산영수 아니던가
 심을보러 나왔더니 첩첩산중에
 만학천봉이 하늘아래 걸렸도다.
 재계재계 밭을늘려 물도맑고
 정갈한 바위 틈틈에서
 심을보세 심을보세 산신님이 점지하고
 내리신 심을보아 천년만년 살고지고

※ 인제군 북면 원통6리 박공모(76세)씨의 소리에서 인제 문화원 사무국장 이만
 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다.

28. 상여소리

이세상에 나온사람 어허넘차 어허
 부모은덕 모르는가 어허넘차 어허
 석가여래 은덕으로 어허넘차 어허
 이내인생 생겼으니 어허넘차 어허
 인제가면 언제오나 어허넘차 어허
 명련삼월 봄이오면 어허넘차 어허
 너는다시 피건만은 어허넘차 어허
 이내인생 한번가면 어허넘차 어허
 다시는 또 못오느니 어허넘차 어허
 노세노라 젊어노라 어허넘차 어허
 늙고 병들면 못노느니 어허넘차 어허

가네가네 나는가네 어허넘차 어허
 명산대천 찾아가서 나는가요 어허넘차 어허
 저승길이 멀다더니 어허넘차 어허
 대문밖이 저승일세 어허넘차 어허
 인제가면 언제오나 어허넘차 어허
 인생일신 탄생하여 어허넘차 어허
 이세상을 하직하고 어허넘차 어허
 어찌갈꼬 심한힘로 어허넘차 어허
 정처없는 길이로다 어허넘차 어허
 인생한번 죽어지면 어허넘차 어허
 다시오기 어려와라 어허넘차 어허
 이세상을 하직하고 어허넘차 어허
 북망산에 가리로다 어허넘차 어허
 어찌갈꼬 심한힘로 어허넘차 어허
 정처없는 길이로다 어허넘차 어허
 어찌갈꼬 심한힘로 어허넘차 어허
 한정없는 길이로다 어허넘차 어허

※ 인제읍 상동4리 박해순(70세)씨에 의해 채집되었다.

29. 설악 풍월

설악산은 한 봉 두 봉
 모두다 신검으로
 깎아 세운 연봉인데
 山名은 설악이구나
 삼부는 꽃이요
 칠부는 단풍이구나

畵工불러 이 경치를
그러라 한들
송풍 거문거요
百潭에 급힌물 장단인데
녹음간에 황영은 노래하고
화간점은 춤을추니
이런 경치는 어이하리
이런 경치를 아니찾고
찾을 곳이 또 있을손가

※ 1980. 5. 20 발행한 인제군지 412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30. 성주풀이

성주분향이 어디메냐 성주분향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일러라
제비원에서 소지를 받아 연평가평에 던졌더니
그 술이 점점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자라 대부동이나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자라 청장목이나 되었구나
청장목이 점점자라 상장목이나 되었구나
그대목을 내려할제 삼십칠명의 역군들이
옥도끼를 어깨에 둘러메고 연평가평에 들어가
처산에 올라 소목내고 저산에 올라 내목내고
원근산에 칩을끓어 웅글뜯어 떼를모아
양부양천 흐르는 물에 어화동실 띄워놓고
이물에 이사공아 저물에 저사공아
물결이 점점 늦어간다 에헤라 만세

대동강 쇠주삼고 대동강 쇠주삼고
모란봉 안주삼아 내장추 먹을적에
돈있는 활량은 금보춤 추고
돈없는 건달은 새장구 북판만 팡팡 울려라.
에헤라 만세

31. 소몰이 노래

이랴! 이랴아 이러어 말알어~마라 마라아~
안야 지어서 안야! 안야아-하!
드렁 밟지말고 이랑타고 나가자-아!
이러!안소야-한눈 팔지말고 추천 추천 나가자
이랴!이랴 이소-오 안야 올라서 안야 안야-
올라를 서거라-어 이랴! 이랴 이소오호
안야는 올라서고-오 말아는 지어를 서가라
이랴 이랴 이소오호
들 밟지 말고서 사이 사이를 나가자
안소야 뒹드렁 맘으로 바싹 들어를 서거라
다리 조심하면서 쫄랑대지말고-오 추천 추천히-
이러-허! 너어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 麟蹄邑 院垞里 全原人 崔在弘(1911~1978)이 소장한 것을 조카가 되는 최병
현(1946~)에 의하여 채집 정리되어 1980년 5월 20일 인제군지 420페이지에
기록된 것임.

32. 숫자풀이 노래

일 일로(日露) 전쟁때

이 이승만이가
삼 삼각산에 올라가
사 사방을 보니
오 오랑캐가
육 육혈포를 들고
칠 치다 덤비니
팔 팔다리가 부러져서
구 구두발로 채 가지고
십 십리밖에 떨어졌다.

※ 인제읍 함강2리3반 박춘매(70세)씨에게 발췌하였다.

33. 시 집 살 이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딤까?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살이 상맵더라
무명지 바늘춤에 눈물콧물 다씩고요
눈물은 지어서 한강수되고
한심은 쉬어서 동남풍되네

※ 인제읍 함강2리 3반 박춘매(70세)씨에게 채집 되었다.

34. 심마니 소리

얼얼아라 아라리요
얼얼아라 아라리요
심심산천 심산계곡
백년묵은 산삼캐서

우리한번 잘살거니
얼얼아라 아라리요
얼얼아라 아라리요
어제저녁 꿈길에서
산신령님 나타나서
산삼캔다 하더이다.

※ 1986년 제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하기위하여 심마니를 재현하는과정에서 인제군 북면 원통리 박광복씨(사망)에게서 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씨가 채록한것임.

35. 아라리

- (1) 우리강원 잘되라고 설악산이 생겼고,
여자의 맵시 잘나라고 좋구나 화장품이 났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래로 나를 넘겨주소
- (2) 드령산의 머루다래는 얼그럭 설그럭 많이 열렸건만,
뒤미동이 우리 친구는 어디를 가구 따 먹을줄 모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간다.
- (3) 산천초목에 물가유지는 임자가 있건만
이내인생은 어이나 생겨서 임자가없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4) 저건너 목밭은 작년에도 목더니
올해도 나와같이 또뭉게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5) 니가야 날만치 생각을 한다면
가시밭이 천리라도야 밭벗고 가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래고래로 나를 넘겨주소

※ 인제군 기린면 현1리 1반 김춘옥(70세)씨의 소리에서 채집 되었다.

36. 아 리 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넘어갈제는 남의 성쪽에 정들어놓고
요내 가슴 속타는 줄 왜몰라 주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연두나 고갯데
임을만날 고개는 한고갯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딸 낳아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남의 딸만 데려다 왜 이고생 시키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인제군 기리면 서1리3반 박음전(62세)씨의 소리에서 채집 되었다.

37. 어 랑 타 령

어랑타랑 본고향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애기 변또밥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으야 디어라 내사랑아

너는두 날보면 본척에 만척을 하여두
나는두 널보면 외로워 반겨워 한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으야 디어라 내사랑아

고무신짝이 고워도 발바닥 밑으로 돌고요
처녀일색이 고워도 내품안으로 돈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으야 디어라 내사랑아

신고산천에 머루다래는 얼그러 살그러 졌는데
너하구나 나하구는 알그러 살그러 졌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어야 디어라 내사랑아

친정살이를 못하이면 들병장사루 나가지
술담배 아니먹고 아이구나 나는 못살겠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렁덩 바람에 다 팔아먹고
백수야 건달이 되었네

이삼사월 긴긴해에 점심을 굶으면 굶었지
동지선달 긴긴밤에 홀애비 잠으로 못자겠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어라 내사령아

사랑타령을 잘하기는 만동세 잡년이 잘하구
자진난봉가 잘하기는 시누에 잡년이 잘하더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어야 내사령아

사랑이 가시구서 정든님마저 똑 떠나가니까
쓸쓸한 요세상을 누구를 믿고서 사는가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어야 내사령아

참나무 장작이 두 동강 세 동강 나여도
말한마디만 잘하면 기어코 살고야 마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라엄마 둥기디어라
요것이 몽땅 내사랑이로다

절구통 끈안고 죽을매 맞으면 맞었지
술담배 아니먹고 예루아 나는 못살어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어라 내사령아

시집간지 삼일만에 부뚜막 장단을 쳤더니
시아범 잡놈이 엉덩이 춤만을 추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디야 이것이 내사령 인가

독수리 나뜨자 병아리 간곳이 없구요
무정한 기차떠나자 정든님 간곳이 없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디야 내사령아

기우러진 노송나무는 바람에 건들 거리고
허공 중천에 뜬달은 가을을 비취 주노라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이야 내사령아

산수 갑산에 멀구다래는 날그러 살그러 졌는데
나는 언제나 님을만나서 얼그러 설그러 지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디야 내사령아

십원짜리가 없으면 오원의 두장도 좋구요
술집 주모가 없으면 주모님 딸도 좋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랑똥똥 다 팔아먹고 백수전달이 되었네

개울개울에 빨래질 소리는 천지를 진동 하고요
음지양지에 비둘기 소리는 일천 간장을 녹인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어라 내사령아

무막산 딱다구리는 함경나무도 잘뚫는데
우리집 못난이는 풀러진 구멍도 못뚫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디어야 내사령아

※ 이어랑타령 소리는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많이 불려져 왔으며 우리고장 인제에서 누구나 다 불리고 있는 소리이다. 가사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

38. 안택경

굴선명당에 신조나여니 천당대지라 소명난다
성열성례나 예지예라 동방에는 청제지신
남방에는 일지지신 서방에는 육지지신
북방에는 쩌쩌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
여러지신이 하강하사 소원성취나 바라니오
이덱가중에 금년신수가 대통하야 이뉴월 꿈을
열은듯이 통절문을 닫은듯이 비단에다 솟결걸고
물에 물탄듯이 술에 술탄듯이
그냥 그대로 술술이나 내리시고

※ 인제읍 합강2리3반 박춘매(70세)씨의 소리로 채집되었다.

39. 애무요

풀룩 풀룩 서울갔다 오다가
언은 닭을 버릴까 꿇는 물에 튀해서
왕가마에 삶아서 이날개 저날개
뒤덮은 날개는 아버지 올리고
이가슴 저가슴 뿌리라는 가슴은
어머니 올리가 너하고 나하고 달-각

※ 1980년 5월 20일 발행된 인제군지 413페이지에서 발췌하였음.

40. 애정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요내 가슴엔 수심도 많네
日本東京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입을두고 울줄을 모르나

※ 1980년 5월 20일 발행된 인제군지 410페이지에서 발췌하였음.

41. 어른리 민가

연작山 굽이내려 於論이루고
새마을 일터에서 團合을 자랑
기름진 沃土위에 번영을 다짐
(후렴) 몽치고 단결하여 일어선 우리
 빛내자 우리마을 어른이라네

忠孝의 이름높여 일어선 마을
오늘도 보람있게 햇불을 들고
영원히 빛내보세 우리의기상

※ 南面 於論里 出身인 金聲奎(1923~어른국민학교 교장)씨가 1976년 4월 1일
作詞 한 것을 이승모씨에 의해 作曲하였다고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
지 424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임.

42. 인제 아리랑

꿀보다 더 단것은 진고개 사탕
초보다 더 신것은 큰애기 궁등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속에서 노다가자

※ 서강대 국문학과 교수 金烈圭발행(1987. 8. 6발행 아리랑...역사여, 겨레여, 소
리여 라는 책자 335페이지에서 인제문화원 이만철씨가 발췌한것임.

43. 인제 찬가

白頭山이 일진하여 흘러내려와
江原道에 이르러 우뚝 솟았네
一萬二千 높은峰은 金剛山이요
蒼村위에 솟은것은 五臺山이라

金剛山과 五臺山을 앞뒤에두고
峨嵋山은 半空中에 높이솟았네
起龍山脈 넓은들에 여러家들은
空氣 좋고 물이맑은 麟蹄邑이라.

※ 인제읍 합강2리 崔鍾祐(1905~)에 의해 채집한 인제찬가는 2절로 한말무렵부
터 즐겨 음영한 것으로 작사자및 작사년대는 미상이며 全鉉權(1927~사망)에
의해 채집되었다고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09페이지에 기록되었음.

44. 자리개질 노래

자자조조 헤이 헤이야 데이야
우 우우
자자조조 헤이 헤이야 데이야
우 우우
어서와 이사람들아 빨리 떨어 빨리
자자조조 헤이 헤이야 데이야
우 우우

※ 인제읍 상동1리4반 박종래(87세)씨의 고증으로 채집되었다.

45. 자 장 가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잔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만고청산 보배동아
금을주니 너를사라 은을주니 너를사라
금두나 다싫고 옥도나 다싫고 나는나는 네가좋아
하느님전에 충신동아 나라님전에 보배동아
부모님전에는 효자동아 일가일신 우애동아
동네방네 인심동아
인심좋아 말끝마다 영화로다
인심좋아 말끝마다 거리거리 충신이로구나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자네
남의 애기나 모두자네 우리 애기는 잘두나 자네

아가아가 울지마라 너어머니 멀리갔다
옷방석 흥두께가 새씩나면 오겠지
찬장밑에 팔삶을때 싹이나면 오겠지

※ 인제군 기린면 현1리 김춘옥(70세) 할머니의 소리에서 채집되었다.

46. 장 타 령

春川이라 샘밭장 신발이 젖어 못보고
洪川이라 九萬里장 길이 멀어 못보고
이귀저귀 楊口장 당귀많아 못보고

한자두자 三陟장 배가 많아 못보고
 明細바뀌 原州장 값이 비싸 못보고
 橫設堅設 橫城장 발통이 많아 못보고
 감많은 江陵장 값이 싸서 못보고
 이통저통 通川장 알것 많아 못보고
 영성듬성 高城장 심심해서 못보고
 이천저천 伊川장 개천 많아 못보고
 철덕철덕 鐵原장 길이 질어 못보고
 嶺넘어라 寧越장 담배 많아 못보고
 어화지화 金化장 놀기 좋아 못보고
 회회층층 淮陽장 길이 험해 못보고
 이강저강 평강장 강물 없어 못보고
 정들었다 정선장 갈보 많아 못보고
 火木많은 화천장 떼꾼 많아 못보고
 지금왔다 麟蹄장 일바빠서 못보고
 안창곱창 平昌장 술국 좋아 못봤네

※ 1980. 5.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21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47. 지경맞이기 소리

이혜호라 지경이요 에혜호라 지경이요
 이집짓고 삼년만에 에혜호라 지경이요
 아들난지 칠세부터 에혜호라 지경이요
 글가르키고 맹자배워 에혜호라 지경이요
 한양을 올라가니 에혜호라 지경이요
 별법을 내려들고 에혜호라 지경이요
 문장은 이태백이 에혜호라 지경이요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에헤호라 지경이요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제 에헤호라 지경이요
요보시오 지경님네 에헤호라 지경이요
이만하면 다졌겠지 에헤호라 지경이요
요만조만 두어보세 에헤호라 지경이요

※ 인제읍 상동4리 박해순(70세)씨에게 발췌하였다.

48. 지명 민요

麟蹄남박장사 楊口말꾼
華川뻬꾼 春川월급장이
洪川토막장사 정선갈보
영월담배장사 양양머러치장사
삼척배장사 강릉乾柿장사
高城漁夫 철원명주장사
橫城장돌뱅이 原州술장사

통천못난이 양구순덕이
麟蹄愚氓 華川놈의 民擾
春川놈의 土論 原州놈의 陰凶
橫城약동이 洪川어숙력이

※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두편은 「세계의 地名 朴甲千저(1973) 地名의 民謠」편 213~214페이지에 소재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49. 창 부 타 령

얼씨구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 아니야 노지는 못하리라
해는지고 저문날에 옷갓을 입고서 어데를 가오
첩의 방에 가실라거든 나죽는 꼴이나 보고 가요
첩의 방은 꽃밭이요 나의방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사철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해는지고 저무신날에 꽃갓을 하고 어델가오
꽃갈하고 가는걸보면 첩의집을 가는거요
첩의집엘 가실라거든 나죽는꼴이나 보고가요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사철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황해도라 구월산밑에 주추캐는 저처녀야
너의집이 어데인데 해가저도 아니가나
나의집은 저산넘어 초가삼칸이 내집이요
맘에 있거든 날따라오고 맘에없거든 고만두지
놀다가면은 즐장부여 자다가면은 대장부네
이네 리리리리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일월이라 솟은 내마음
이월 매조에 들여놓고
삼월 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 흑사리에 걸어놓고
오월 난초 놀던 나비가
유월 목단에 날아든다
칠월 홍돼지 홀로누워
팔월 공산을 바라보니
구월 국화 굳은 절개
시월 단풍에 뚝 떨어졌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신구명산 만장봉에
바람불어 쓰러진 낭기 눈비온다고 일어나라
송죽같은 굳은절개 매때린다고 허락하라
몸은비록 화류계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나
얼씨구좋다 지화자좋네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백구야 꺽충 날지를말어 너를잡을 내아니다
승산이 가려쓰네 너를두나 쫓아서 요리왔나
나물먹고 물마시고 여들을 비구서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는 요만이나하면은 만족하지
일천간장 나질썰어 부모님 생각이 절로난다
얼씨구좋다 지화자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겠네

임은가고 봄은 왔는데 꽃만피어도 임의생각
일월이하고 한수세켠에 강물만불어도 임의생각
구시월 시단풍에 낙엽만날려도 임의생각
동시선달 설한풍에 백설만 날려도 임의생각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등잔불은 입을닭구요 담배불은 서글프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라는게 무엇인가
알다가도 모를 사랑 있다가 두 속는 사랑
오목조목에 활은 사랑 활칼달칼 쌓은 사랑
이내간장을 다 녹이고 지긋지긋이 옛된 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다 고만두고
아무도 몰래 단들이 만나 소근소근 얽은 사랑
이내간장에 주었드니 여기 처녀 아니 노네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인생이라 늙어 들지면 오던 내 님 두 아니 오고
나무라고 고목이 되면 눈먼 새 두나 아니 온다
꽃이라고 낙화가 되면 오던 나비도 아니 오네
비단 옷도 떨어 나지면 물결 레루만 돌아간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말은 가자구 목 놓아 울고 님은 날 잡고 놓질 안네
님아 나를 잡지 말고 지는 석양을 머물러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인천항구 배 떠난 자리는 파도와 물결만 남아있고
기차가 떠난 서울역에는 검은 연기만 남아있고
임이 떠난 이 가슴에는 한숨과 두숨만 남아있고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간다더니 왜또왔나 울고 갈길을 왜또왔나
내가가면은 아주를가나 아주간들 잇을소나
몸은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나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시들시들한 봄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계간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겠네

※ 이창부타령은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소리로서 우리 인제관
내에서도 누구나 부르고 있는 소리이다. 여기에 인제읍 상동리 박해순(70세)
씨와 인제읍 합강2리 박춘매(70세)씨의 소리로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
(50세)씨가 기록 채집하였다.

50. 청 춘 가

청천 하늘에 별도 많은데
요내 가슴엔 수심도 많구나
뗏다... 무엇이 뗏느냐
우편소 마당에 어하 엄 편지 뗏구나.

청전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구나

언제 언제나 단둘이 만나서
이별 없이나 예헤 잘살아 볼거나

네가 날만큼 사랑을 한다면

가시발이 천리라도 발벗고 가겠네

널로다 연하여 병들은 이내몸은
내 명에 죽어가도 에헤 네 원망하리라.

※ 인제군 기린면 북3리3반 이선규(75세)씨의 소리로 채집되었다.

51. 초 한 가

얼씨구 절씨구 아니살지는 못하리로다
언문에 어륙허니 수운이 적막허구나
가련하다 초패왕은 초를장차 잃단말이나
역발산두야 쓸데가없구 기꺼세두야 할릴없네
칼을짚구서 일어들나니 사면이 초개로도
우시우시 내약하오 오늘너를 어린어릿
삼보에 주저하오 오보에 제어하야
삼군이 흩어럴지고 마음도나 산란코나
평생에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으로나 가갔더니
불의에 패망되어 어찌나다시 낮을들구
부모님을 다시보며 초강사람을 어어나보리
백대영웅 호걸들아 초한서를 들어나가라.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첫째로도
한래공의 백만대군 구리산하에 진을치고
초패왕을 잡으렐제
병마장군 도원수는 결식표모 한신이라
대장단에 높이앉아 천하제후를 호령할제
팽성도 오백리를

거리거리 북병이요 골골이나 매복이라
 의기야많은 이좌거는 패왕을 인도하고
 수잘두는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옥통수를 슬피나불어 팔천대병을 붙들적에
 그노래를 하였으되
 울구나가는 저기러기 객의수심을 돋우난듯
 변방백리 사지중에 정벌하는 저군사야
 너의나 패왕은 피곤했으니 전쟁허면은 죽을때라
 철갑을 굳게입고 날랜장병을 배어나매고
 천금같이나 중한몸이 전장검흔 되리로다
 너의나처자 소년들은
 한산낙엽이 바람에 새옷을지어 넣어두고
 오늘이나 소식올까 내일날이나 편지가올까
 옥같이 고운얼굴 망부허는 깊은간장
 썩는눈물을 흘리면서 이마우에다 손을엮고
 나가든길을 바라를보니 망부석이 된다말가
 남산하에 장천밭을 어느누가 갈어를주며
 태호정의 좋은술은 누구로하여서 맛을보리
 어린자식은 아비를불러 어미간장을 다독인다
 우리야낭군 떠나실제
 중문에서 손을잡고 눈물을지어 이큰말이
 청춘홍안을 두고나가니 명년구월에 돌아오마
 금석같이나 중한몸이 천기간에두 없건만은
 낭군을 그리워 쓰린마음 차마진정 못있겠네

※ 인제군 인제읍 함강2리 6반에 거주하는 김연규(82세)씨에 의해 채집하였다.

52. 풍년 가

풍년이왔네 풍년이 왔았네 풍년
금수강산에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어얼씨구나 좋네 풍년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년년이 해마다 풍년이 오네
지화자 좋다 어얼씨구나 좋고 좋아 풍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자

53. 표 모 가

山間谷에 흐르는 맑은 물가에
저가 앉은 저표모 방망이들고
이웃 저웃 빨적에 하도 바쁘다
해는 어이 짧아서 西山을 넘네

※ 인제읍 상동4리 5반 이원한(66세)에 의해 채집되었다.

54. 화 투 풀 이

정월속속히 들이정을 이월매조에 맺어나놓고
삼월사구라 산란한 마음 사월흑짜리에 붙어나놓고
오월난초 나는 나비는 유월목단에 춤을추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서 팔월공산에 달 구경간다
구월국화 피던꽃이 시월 단풍에 다 떨어졌네

동지선달 긴긴밤에
앉았으니 입이 나오나 누웠으니 잠이 나오나
앉아서 생각 누워서 생각 경칠놈의 임의 생각에
이몸이 발딱 몸이 달았소이다.

※ 합강2리3반 박춘매(70세)씨가 부르는 소리를 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이씨가
채집하였다.

55. 회달이 소리

에호리 달호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계원님네 에호리 달호
이네말씀 주는대로 에호리 달호
상에서 하에까지 에호리 달호
일심합력을 하여를주소 에호리 달호
먼데사람은 듣기나좋고 에호리 달호
결에사람은 보기나좋게 에호리 달호
가련하다 초해왕은 에호리 달호
초를장차 읽다말가 에호리 달호
역발산두나 쓸데나없고 에호리 달호
기개세두나 쓸데나없네 에호리 달호
칼을집고서 일어를나니 에호리 달호
사면이나 초가로다 에호리 달호
우해우해 내약하오 에호리 달호
삼군이나 훌어를지니 에호리 달호
마음이나 산란하다 에호리 달호
평생에나 원하기를 에호리 달호
금고를두 올리면서 에호리 달호

강동으로나 가셨더니 에호리 달호
불우해나 패망하여 에호리 달호
어찌나낮을두 다시나들고 에호리 달호
부모님을두 다시나보이며 에호리 달호
강동사람을 어이나보나 에호리 달호
백대영웅 호걸들아 에호리 달호
초한승부를 들어보소 에호리 달호
절인지용 부질없고 에호리 달호
순민심이나 으뜸이라 에호리 달호
한패공에 백만대병 에호리 달호
구리산에다 복진을치고 에호리 달호
초패왕을두 잡으렐제 에호리 달호
병마장군 도원수는 에호리 달호
결식표모 한신이라 에호리 달호
거리거리 북병마요 에호리 달호
꿀꿀마다 매복이라 에호리 달호
간계많은 이좌거는 에호리 달호
초패왕을 인도하고 에호리 달호
수를잘두는 장자방은 에호리 달호
계명산 추월야에 에호리 달호
옥통소를 슬피불어 에호리 달호
팔천제자를 홀일적에 에호리 달호
구추단풍 깊은밤에 에호리 달호
하늘높고 달밝은데 에호리 달호
청천에나 저기러기 에호리 달호
객의수심을 돋우는고 에호리 달호
우리낭군 떠날적에 에호리 달호
중문에서 손목잡고 에호리 달호

눈물짓고 이른말이 에호리 달호
청춘홍안을 두구서가니 에호리 달호
명년구월에 다시나보마 에호리 달호
금석같이 맺은언약 에호리 달호
잊지말자고 하였건만 에호리 달호
원앙금 앵무침에 에호리 달호
전전반측 생각이로다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계원님네 에호리 달호
에로리달공 에호리 달호
옳다인제는 일잘되었네 에호리 달호
천년만년 집에오리 에호리 달호
아주황황 다져를주소 에호리 달호
서산에 지는해는 에호리 달호
그뉘라고 금지를하며 에호리 달호
창해루나 흐르는물은 에호리 달호
다시오기각 어려워라 에호리 달호
요순우탕 문무주공 에호리 달호
공맹안중 정주자는 에호리 달호
도덕이 상승하야 에호리 달호
만고성현을 일렸건만 에호리 달호
한번죽음을 못면하고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계원님네 에호리 달호
요다음에 더잘하시고 에호리 달호
이것으로 그만듭시다 에호리 달호
에호리 달호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부인네야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유한길꾼 에호리 달호
상에서맛취서 하루나냉겨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유한길꾼 에호리 달호
먼데손님 듣기 좋게 에호리 달호
외부손님 보기 좋게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유한길꾼 에호리 달호
잘하면 술을주고 에호리 달호
못하면은 술도없어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유한님네 에호리 달호
자진서리를 디더볼까 에호리 달호
한두살레 철을몰라 에호리 달호
이삼십을 당도하니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부모님네 에호리 달호
한두살에 철을몰라 에호리 달호
이삼십을 당도하니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어머님네 에호리 달호
훈자들여서 곱을해도 에호리 달호
더우직구 해도않돼 에호리 달호
판수들여서 경을읽어 에호리 달호
경덕두나 못읽겠소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부모님네 에호리 달호
나죽어요 나는죽어 에호리 달호
어머님이 한숨을허셔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그말말구 에호리 달호
소지한장을 집어들고 에호리 달호
양초한쌍을 집어들고 에호리 달호
삼신산으로 들어를가니 에호리 달호
비나니오 비나니오 에호리 달호
칠성님께나 명을얻어 에호리 달호
산신님전에 비나니오 에호리 달호

그것저것 그만두고 에호리 달호
어머니여 어머니여 에호리 달호
나는가요 나는가요 에호리 달호
서신밖이나 의문이로라도 에호리 달호
저승밖이 저문이로구나 에호리 달호
어머니여 노자좀주소 에호리 달호
저승길이나 멀다더니 에호리 달호
나와보니 저승이로다 에호리 달호
일직사자는 등을밀고 에호리 달호
월직사자는 손을잡고 에호리 달호
어서가자 어서가자 에호리 달호
철통같은 거동질에 에호리 달호
높은데는 낮어지고 에호리 달호
깊은데는 높아진다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사자님네 에호리 달호
점심이나 먹고가자 에호리 달호
여보게나 그말말게 에호리 달호
점심이나 그만두고 에호리 달호
시간이바빠 가야된다 에호리 달호
일작사자가 끌고가니 에호리 달호
저승밖에 들어가니 에호리 달호
일작사자가 뒤를치면 에호리 달호
어여가거라 어여가 에호리 달호
들어가보니 일찍소집 에호리 달호
치다보니 소라반자 에호리 달호
내려다보니 각자장판 에호리 달호
자진소리를 들어봐라 에호리 달호
에호리 달호 에호리 달호 에호리 달호

여보시오 벗님네야 에호리 달호
때는왔으니 문열어라 에호리 달호
여보시요 유한길꾼 에호리 달호
놀기나좋다고 마냥노나 에호리 달호
요다음에 더잘하고 에호리 달호
이것으로 그만둡시다 에호리 달호

※ 인제읍 상동4리에 거주하는 박해순(70세)씨에게서 채집되었음.

우리고장 童謠

— 전래 놀이 노래 —

— 편집실 제공 —

1. 고 모 네 집

이거리 저거리 덕거리 전도 만도 구만도
짹발이 호랑쥐 모개발에 쪽지게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닭 숫닭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걸 나 한숫갈 안주고
우리집에 와바라 수수팔떡 안준다.

※ 1980년 5월 20일발행한 인제군지 414페이지에서 발췌한것임.

▲ 전도(顛倒), 만도(晩倒), 구만도(九萬倒)

2. 가위 바위 보

췌췌췌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우리선생 계실적에
엽서한장 써 주세요
구리구리 멧덩구리
가위 바위 보

※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14페이지에서 발췌된 것임.

3. 고무줄 놀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노래계속 이어짐)
백두산 뺏어내려 반도삼천리
무궁화 이강산에 역사 반만년
이대로 이어나온 우리 삼천만
장하도다 그에이름 대한이로세

※ 인제군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 되었음.

▲ 고무줄을 양쪽에서 당기고 그 고무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여러가지 발동작으로 고무줄을 넘나들거나 꺼꾸로 뛰어넘는 놀이이다.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4. 핼 핼 장서방

핼 핼 장서방 핼 핼 장서방
어디 어디 사나 저산넘어 살지

※ 시골길을 가며 핼을 보고 부르는 동요
(수핼의 장끼를 장서방이라고 부른다)

※ 인제文化院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음.

5. 기 러 기

아침바람 찬 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우리선생 계실적에 옆서한장 써 주세요
한 장말고 두 장이요 두 장말고 세 장이요
구리 구리 구리 구리 가위 바위 보

※ 이놀이 노래는 아기가 놀이협조자를 따라 노랫말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음율에 따라 신체 표현과 어휘력, 정서발달을 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놀이 노래이다.

▲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다.

6.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잘-자거라 하나 둘 셋

※ 새끼줄 놀이로서 음률과 박자에 맞추어 새끼줄을 밟지 않으므로 신체조직 발달과 판단력을 키우는데 놀이노래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다.

7. 童 謠

① 바위야 바위야 쫓지들석
다부지 푸르륵 네 밀구멍에
호랑이 들어간다

※ 이동요는 아이들 사이에 놀리기 위하여 불러 왔던 것으로 자연과 동물에 비유해 가면서 노래한 풍자적인 것이었다.

② 튀야 쫑쫑 밝아라

먼데 색씨 물길러 온다

너는 구정물 먹고 나는 맑은물 먹자 튀

※ 농촌에서 개구쟁이 어린이들이 흔히 도랑물에 웅기종기 모여 흙탕물이 빨리 맑아지라고 하는 장난에 나온 것이며 소박하면서도 심술궂은 장면이 엿보임.

③ 잠자리 알낱기

알나라 딸나라

※ 잠자리를 손등에 놓고 알을 낱게 하는 노래

④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형님 시집간다

고은 초마 소슬간다

가망 휘장 얼럭진다

※ 위동요 ①②③④는 1980년 5월 20일 발행된 인제군지 413페이지에서 발췌된 것임.

8.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어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 이노래는 이조 속종때 張妃와 崔妃와의 갈등이 張妃가 崔妃를 가두매 어머니
를 잃은 어린 영조를 달래고 재우기 위하여 궁녀들이 불렀다고 하는바 그 說이
옳다면 이노래는 속종년대까지 올라간다.

▲ 1980년 5월 20일 발행된 인제군지 422페이지에서 발췌된 것임.

9. 들강 달강

들강달강 우리아빠 서울가 밤 한되를 사다가
살강밑에 두었더니 머리빠진 생양쥐가
달랑달랑 다까먹고 밤 한 톨만 남았네
이빠진 술에 삶아서 이빠진 조리로 건져서
이빠진 칼로 까서 알맹이는 돌로 나워
너랑나랑 나눠먹자 들강달강 들강 달강

※ 언니가 동생을 안고 앞뒤로 흔들며 부르는 동요.

▲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음.

10. 問 答 놀 이

취야취야 어디서 왔니
부엌에서 잤다
무얼베고 왔니
젓갈베고 잤다
뭐가 깨물더니
파리가 깨물더라

어떻게 울었니

찍찍 울었다

※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14페이지에서 발췌하였음.

1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술래가 단순한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이들은 재빠르게 발을 움직여 술래가 보지 않는 사이, 술래쪽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며 들키는 사람은 빠진다.

12. 새야 새야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올고간다

※ 이동요는 누구나 다이는 동요로서 녹두장군 전봉준의 동학혁명 실패를 슬퍼한 나머지 아이들의 입을 통해 구전으로 이어졌다. 이노래를 통해 그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다.

13. 세 살 달강

세 살달강 세 살달강 나무한짐 팔아다가

밤한톨을 샀거들랑 물길러간다 에미는

물을석동이나 붓고 장작을 석집이나 때고
가마솥에 삶았지렁 껌질일랑 애비주고
보물랑 에미주고 알맹이는 니캉내캉 나눠먹자

※ 아기를 안고 또는 마주 앉아 서로 손을 마주잡고 앞뒤로 음률에 맞추어 노래부
르며 몸을 흔든다.

▲ 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음.

14. 숨 박 쪽 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15. 약 손

할미손은 약손 니배는 개배
내손은 약손이고 니배는 똥배다

※ 아기가 배가 아파 칭얼댈때 할머니가 아기의 배를 문질러 주면서 부르는 노래
이다.

▲ 함경2리3반 박춘매(70세)할머니에 의해 채집되었다.

16. 앞니빠진 중강새

앞니빠진 중강새 우물결에 가지마라
붕어씨끼 놀란다 잉어새끼 놀란다

앞니빠진 중강새 닭장걸에 가지마라
암닭한테 채일라 수닭한테 채일라

※ 앞니빠진 아이를 두고 아이들이 놀러대며 부르는 노래이다.
▲ 합강2리3반 박춘매(70세)할머니에게서 채집되었다.

17. 어깨 동무

어깨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씨동무
어깨동무 개동무 미나리 밭에 앉았다

※ 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발맞춰 걷다가 씨동무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 다시가면서 하는 노래이다.

18. 어디까지 갈래

어디까지 갈래
서울까지 가지
어디까지 갈래
부산까지 가지

※ 어린아이를 잃고 모험심, 협동심, 신체적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동요이다.

19.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한 고개 넘어서 두 고개 넘어서 불이 반짝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먹는 중이다
반찬은 무어 개구리와 뱀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또는 살았다)

※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 눈을 감고 뒤돌아 앉아 있으면 여러 아이들이 술래가 안볼때 술래 가까이 달려간다. 죽었니, 살았니 물을때 죽었다 하면 자리에 가만 이 있고 살았다 하면 모두 도망간다.

▲ 인제 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해 채집되었다.

20. 연날리기 謠

연아 연아 올라라
하늘높이 올라라
구름까지 올라라

※ 正月열나혼날 무렵 아이들이 연날리기를 하며 부른 童謠이다.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12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임.

21. 오 자 미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농부는 밭을갈고 씨를 뿌린다.

※ 인제군청 환경보호과장 崔秉憲(1946~)씨에 의해 채집된것을 1980년 5월 20일 발행한 인제군지 415페이지에서 발췌 하였다.

22. 이거리 저거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돈지만이 호양군 짝발이 호양군

노림이 김치 장독에 무계밭이 독서리
칠팔 무서리 동지선달 대서리

※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씨에 의해 채집되었다. 어린 아이들이 서로 마주 앉아 서로 다리를 쪽뻗고 노래를 부르며 차례로 다리를 짚어가다가 노래의 마지막에 걸리는 다리를 뽑아내는 놀이이다.

23. 잠자리 꿩꿩

잠자리 꿩꿩 앉질자리 앉아라
잠자리 꿩꿩 고추밭에 앉아라
잠자리 꿩꿩 바지랑대 앉아라
잠자리 꿩꿩 빨래줄에 앉아라

※ 아이들이 가을철에 잠자리를 잡을때 부르는 동요이다.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1945~)에 의하여 채집 되었음.

우리고장 방언 (方言)

— 편집실제공 —

1. 우리나라 방언의 흐름

우리나라의 언어체계가 갈라진 형편은 역사적 변동을 겪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정치적 상황이나 교통이 복잡한 사정들에 의해 나름대로의 언어체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언은 대체적으로 도별로 구분되어 각기 달리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속에 사람들이 옮겨 다니며 생활함에 따라 지역적 고유의 방언에 많이 벗어나 사용되고 있다.

2. 강원도 방언의 갈래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영동, 영서라는 확연한 지리적 분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분화는 언어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강원도 방언을 크게 영동방언과 영서방언권으로 분화시켜 주고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오랜 세월이 흘러온 동안 주민들의 빈번한 교류의 영향에 따라 지역적 고유의 방언이 어울려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3. 인제지방 방언의 흐름

인제지방의 방언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영서권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고장에도 인구가 빈번하였

던 관계로 타지역의 방언이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T·V이 나잡지, 신문등의 전달과 배우는 학생들의 교과서 교양에 인하여 이 고장 특유의 방언을 찾아서 수집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가고있는 현실이다.

4. 방언조사의 필요성

방언은 고유의 지역적 인정이나 문물(文物)등 정신문화가 흐르고 있다. 따라서 방언조사 수집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시키는 가치성을 크게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방언을 조사 수집 한다는 것이 사라져 가는 귀중한 우리 문화 유산의 보존과 함께 시급한 중요 사업의 하나로 필요성을 띄게 된다.

5. 이 지방의 방언 조사

순수한 이지역 방언은 대개의 경우 농촌이나 배우지 못한 노인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노인층도 점차 사라지고 표준어 교육으로 인하여 이지방의 방언을 조사하면서 가려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본 방언조사는 80년도에 발간한 인제 군지에서 당시 강원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출신으로 인제종합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박봉운(1952~)에 의해 수집되어 기록된 방언과, 교육이 낮은 이지역 출신으로 오래도록 살아온 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히 채집된 방언을 수록하였다. 또한 수록 방법은 가나다 순의 방언으로 알기 쉽게 하였다.

방 언 조 사 내 용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가(邊) 가깝다	가생이, 옆, 옆떼기 가꿍다, 가참다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가꾸로	꺼꿀로, 꺼꾸루
가늌	겨냥
가락지	반지, 가락지
가랑이(枝)	가랭이
가렵다	개렵다, 가롭다
가르다(分)	갈르다, 나누다
가르치다	갈치다, 갈으키다
가리마	가름배, 가름마
가마니	가마니떼기
가시	까시
가운데	복판
가웃(半)	가웃
가위	가새
가엎다	짤하다, 딱하다
가자미	가재미
가지고(持)	가지구, 갖구서
가지요	갈께요
각다귀	갈따구
각띠(角帶)	멜빵, 밀빵, 허리빵,
간장	장물
갈려고	갈려구
갈발	갈때발
갈퀴	갈쿠리
감기	고뿔
감기다	갱기다
감나무	감낭구
감옥서(監獄署)	감악소
감추다	숨귀다
강건너	강근너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강변 갑자기 개구리 개암 개울 기웃거리다 거머리 거세다 거울 거의 거죽 거지 거짓말 걱정 건너다 건더기 간빵 거다 검불 게으르다 겨 겨드랑이 겨울 겨우 전디다 접치다 경치다 결두리(間食) 계란	강변 급자기 개구락지, 깨구리 깨금 또랑, 개구랑치 찌웃거리다. 그머리 드시다 셋경 거진 거죽떼기 그러지, 그지 그짓말 걱정 건느다 건데기 간빵 새까맣다 검부럭지 겉르다 딩겨, 제 저드랭이 저울 제우 전디다 접치다 흔내다 새참, 셋밥, 견누리 닭알, 달걀, 겨란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계모	으붓애미, 이붓어머이
계수	제수
계시오	계시유
계신다	기신다
계약서	기약서
계집애	기집애
고기	괴기
고깔	꼬깔
고드름	고두름
그무래	곰배, 고물개
고야	패
고양이	고냥이
고을	골
고쟁이	꼬쟁이, 속곳
고추	고치, 꼬추
고추장	꼬추장, 꼬치장
고치다	곤치다
곡괭이	곡괭이
곡식	곡석
곧	얼른, 금새
골무	골미
골짜기	골짜구니
곰팡이	곰팡이
곰사등이	폼사, 폼새
곰슬머리	폼슬머리
공일	핑일
과부	홀애미
관솔	광솔
고아주리	광우리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구경	귀경
구더기	구데기
구덩이	구텡이
구두쇠	노랭이
구렁이	구랭이
구름	구롬
구멍	구녜
구석	구석쟁이, 구석지
구호물자	고물자
국수	국시
굴다	굴르다
굴뚝새	먹새
궁둥이	궁텡이
퀘	괴작
퀘다	긴다
귀	귀떼기
그늘	응달, 음지
그슬리다	끄슬리다
그을음(烙)	끄림
기대다	지대다
기둥	지둥
기르다	키우다, 길르다
기름(油)	지름
기미	지미
기울	지울
기장	지장
기울다	찌울다
기음	지심
길	질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김(然氣)	짐
김장	짐장
김치	짐치
깍다	꼬매다
깍는다	꼬맨다
까마귀	까마구
까투리	암꿩
깍두기	깍두기
క్క다	분질르다
껍질	껍데기
껴입다	쩌입다
꼬리	꼬랑지
꼽추	꼽사
꾸중	야단, 혼
나레(農且)	쓰레
나머지	냉거지
나무	낭구
나쁘다	나뿌다
나왔다	나섰다
나이	낫살
나중	냉중
냥다	나꾸다, 잡다
남기다	냉기다
남비	냄비
내(川)	넛가, 또랑
넙다	내굽다
냉이	나생이
넘어지다	자빠지다
널(棺)	널판떼기, 늘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넓적다리	허벅다리, 허벅지
노고지리	노구지리, 종달새
노래기	노내기
노루	놀이
논두랑	논뚜렁
놀이	노을
놀음	노름
놋그릇	놋그럭
누더기	누데기
눈알	눈갈
누에	능에
누이	누나
눈꺼풀	눈까풀
눈썹	눈썹재기, 눈썹
늘	노상, 맨날
다니다	댕기다, 대니다
다락	벽장
다래끼	다래키
다르다	딸르다
다음	담에
뒹는다	딱는다
달갈	닥알
달래	달룽, 달룽
달음질	달음박질
담그다	당구다
닷새	뎃새
당나귀	당나구
당기다	뎡기다
당장	담박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닭	달기
대바구니	소쿠리
대야	양품
대장간	대장깁
더럽다	드럽다
던지다	면지다
덩굴	녕쿨
데다(火傷)	디다
도랑	또랑
도마	도매
도배	되배
도련님	되렌님
도시락	벤또
돌	돌맹이
동아리	동겨맨다, 짱께맨다
되	되빱
두꺼비	뚝꺼비
되게	된통
두드러기	두드래기
두해	이태
두렁	두럭, 고랑
등	등어리
등우리	등지
드시오	드세유
따로	따루
맹감	쌩감
떠꺼머리	더병머리
또아리	뚜아리, 따리
뚝배기	투가리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뜬물	뜸물
뜰	뜨락
라디오	라디오, 래디오
런닝샤쓰	런닝구, 년닝구, 난닝구
마구	외양간
마늘	마늘
마루	마룻
마르다	말르다
마을	동네
마음	맘
마침	마춤
막대기	작대기
만들다	맹글다
망태기	망태
말기다	맥기다
매일	맨날
머리	대가리
머루	떨구
머슴	일꾼
먹고	먹구
먼지	몬지, 문지
메밀	메물
며느리	메누리
며칠	메칠
먼장	민장
떨치	메레치
명주	명지
무릎	고뱅이
모두	몽땅, 죄다, 전부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모래	모새, 몰개
모른다	몰른다
모양	모냥
모퉁이	모텡이
목	모가지, 모강지
무더기	무데기
무릎	무루팍
무우	무꾸
문둥이	문뎡이
뭐요	뭉유
미꾸라지	미꾸락지, 미꾸리
믿고	믿구
미역	뎡
바가지	바각지
바람벽	베람빡
바르다	발르다, 칠하다
바보	병신, 미화
바쁘다	바뿌다
바위	바우
바퀴	바쿠
박히다	백히다
반딧불	개똥불
반지	가락지
발가락	발꼬락
발감게	발싸게, 감발
발뒤축	발뒤꿈치
밝다	환하다
밥그릇	밥그럭
방귀	방구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방망이	방맹이
방아	방애
방죽	뚝방
발두둑	발두럭, 발뚝
배	배지, 배떼기
배추	배차
버릇없다	버르장머리없다
버리다	내빨다
번데기	뺨데기
벌레	벌거지
베개	벼개, 비개
벼	베
벼락	베락
벼루	베루
벼랑	베랑, 낭떠러지기
벽	베름짱
변소	뒗간
별로	별루
병풍	평풍
보자기	보재기
복숭아	복상
볼	볼테기
봉사	쇠경, 장님
부리	주댕이
부서지다	뿌서지다
부스다	뿌시다
부침	적, 부치미
불알	붕알
비	빗자루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비너	비네
빌리다	주다
빙자	핑계
빨리	얼른, 얼쩡
뺨	볼چه기, 귀싸데기
뺨쪽하다	뺨쪽하다
사닥다리	새다리
사돈	사둔
사돈댁	사둔댁
사립문	싸립문
사마귀	사마구
사일	나흘
사잇길	셋길
사위	사우
사지	사죽
사타구니	가랭이
산마루	산등생이, 산꼭대기
삶다	쌌다
삼키다	생키다
삼촌	삼촌
상놈	쌍놈
상여	행상
상의	윗도리, 옷도리
상치	상추
새댁	새닥
새양쥐	생쥐
석가래	석까래
서랍	설합, 빼다지
서로	서루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서말	스말
선생	선상
성질	승질
성황다	서낭당
소	쇠
소금	소곰
소나기	쏘내기
소경	쇠경, 봉사
소래기	장뚝깅
소리개	솔개
소시랑	쇠시랑
소제	소지
소주	쇠주, 쫘주
손가락	송꾸락, 손까락
손등	손똥
손자	손주
손잡이	손재비
송두리째	몽땅
송이	씡이
송편	씡편
솔	솔단지
수레	구루마, 달구지
수렁	물구렁
수소(牡牛)	황소
수수끼	수수끼기
수수	숫구
수염	섬
술가락	술깁, 수깁
술지개미	술찌개미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스물	수물
시누이	시누
시다	시굽다
시제	시양
심다	심구다, 싱구다
시렁	실경, 실꿩
짜다	헐하다
짜라기	짜래기
짹	움
쓰다	씨굽다
쓰러지다	자빠지다
쌈바귀	꼬들빼기
아궁이	아궁지
아기	애기
아낙네	부인네
아내	마누라, 여편네
아니오	아니유
아버지	아부지
아이들	애들
아지랭이	아지랑이
아주	되게
아주까리	피마주
아주머니	아줌마, 아주머이
아직	여태, 안직, 안죽
아침	조반, 아츰
아편	애편
아흐레	아으레
안개	앙개
알맞게	딱맞게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양말	양발
적당히	앵간히, 대충
어레미	얼개미
어른	으런, 으른
어린아이	어린애
어머니	엄마, 어무니
어린아기	언네, 언니미
어서	얼른
어제	어제께
억새풀	새초
언덕	언덕빼기
언제	운제
언청이	째보
얼굴	낮짜
얼레	자세
얼레빗	얼기빗
얼른	얼능
없다	읍다
엉덩이	엉뎡이
응큼하다	응큼하다
엇그제	억그제
에크	이크
여드름	이드름
여울	개울
여기있어요	야~유
옆구리	역꾸리
예쁘다	이쁘다, 이뿌다
옛날에	옛적에
오가리	왜가리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오금	오금꽈이
오라버니	오래비
오빠	오래비
오세요	오세유
오얏	자두
오이	외
오지그릇	옹기그릇
옥수수	옥씨기
올가미	올개미
웃고름	웃꼬름
외삼촌	외삼촌
요즘	요새
와요	와유
외양간	오양간
올안	뒤안
웃목	웃목
워낙	원채
원수	웬수
위에	우에
윗마을	윗말, 윗동네
의젓하다	으젓하다
이	이빨
이마	마빡, 이마빡
이영	영
이야기	얘기
이제	인제, 시방
인줄	금줄
임자	췌
입	주댕이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입쌀	멧쌀
입술	입술
잎	입싸구, 입새기
자르다	짤르다
자배기	자박지
자전거	자장구, 자정거
자주	자꾸
작다	쪼코마타
자루	잘구
저고리	저구리
전기	증기
전염병	돌림병
점심	증심
질름발이	썰뚝바리
제사	지사
조개	조갑지
조금	쪼끔
조롱박	쪽박
족두리	쪽두리
족제비	쪽제비
족집게	쪽집게
종기	부스럼, 뽀드락지
종아리	장판지
주머니	호주머니
죽지	쪽지, 날개
줄기	줄거리
지금	시방
지느러미	지느레미
지렁이	지렁이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지팡이	지뽕이
진드기	찐데기
질경이	질갱이, 찢쟁이
집게	찹게
징그럽다	징글맛다
찌꺼기	찌끄레기
찢래	찢렁
참으로	참말로
참외	참외
창고	곡간
천천히	노냥
청소	소지
처음	츠음, 츠
체	얼개미
토끼	퇴끼
뽕뜨	뽕뿌
페인트	뽕기
포대기	펴대기
포도	포두
하구말고	허구말구
하필	해필
학교	핵교
허리띠	허리끈, 허리뽕
헌옷	훈옷
형겁	홍겁
헤아리다	세다
헤엄	시엄, 섬
혀	세, 세빠닥
형	성

표 준 말	이 고 장 방 언
<p>호랑이 흉년 홀아비 희다 흰머리 힘 힘세다 힘줄</p>	<p>호랭이 숭년 홀애비 허였다 신머리 심 심시다 심줄</p>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 놀이

—94년도 민속발굴 재현소재—

— 문화원 제공 —

인제군은 산이 많고 특히 바위와 돌이 많은 지역으로 옛부터 선조들은 그 산림자원을 이용하며 생활을 영위해 온 지혜의 고장이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은 그 어느지역보다 산림문화의 발전을 가속시켜 왔으며 이렇게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한 분야로서 우리의 옛선조들은 교민경가(敎民耕家)와 교민화식(敎民火食)의 시절부터 슬기를 발휘, 산에서 채취한 쇳돌(철광석)을 불에 녹여 농사짓는 쟁기와 밥을짓는 밥솥, 가마솥을 만들었다고 하며 젊은시절 한때 이 무쇠점간에서 일을 해왔던 옛 노인들의 생생했던 경험과 고증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94년도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많은 관중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우리 인제지역의 민속 생활사를 년년히 발굴하여 기록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한 관제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기에 본문에서는 “인제 다릿골 무쇠점간”의 민속을 놀이화 하여 재현한것을 그 과정별로 자세하게 기록해 보고자 한다.

출 연 과 장 순 서

입장과 인사

기수를 선두로 하여 농악, 점간주인, 선소리꾼, 화주, 비수안, 집사, 풍구질꾼, 아낙네 등으로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여 원을 그리고, 관중에게 인사를 한다.

제1과장 : 쇧돌(철광석)채취

기수, 농악, 선소리꾼, 점간주인, 화주, 비수안, 집사, 아낙네를 제외한 출연자 모두는 양옆의 산으로 춤을 추며 줄을지어 가서 쇧돌(철광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다.

제2과장 : 뚝 제사

먼저 집사가 점간의 뚝 앞에 자리를 깔고 상위에 제물을 차려 놓으면 점간주인이 술을 한잔 부어 놓고 배례를 한다음 앉아 있는 사이에 비수안은 옆에 앉아 비문을 읽는다. 이때 출연자 모두는 무릎을 꿇고 앉는다.

비문을 다 읽은 후 점간주인은 배례를 하고 잔을 들어 뚝과 풍구의 군데군데에 술을 조금씩 붓는다.

제3과장 : 풍구질과 쇧돌(철광석) 녹이기

풍구질꾼은 모두 풍구에 올라간다. 이어서 선소리꾼은 소리를 주고 후소리꾼 역시 출연자와 함께 소리를 받으며 풍구질을 한다. 한참 풍구질을 하다가는 쉬게 되며 쉴 적에는 아낙네들이 새참으로 술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와 풀어놓고 둘러가며 술을 부어준다. 출연자는 웃저고리를 벗고 땀을 닦으며 술과 음식을 받아 먹

는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아낙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풍구질꾼은 선소리에 맞추어 풍구질을 계속한다.

제4과장 : 보습과 무쇠술 가마술 만들기

풍구질꾼은 풍구질을 멈추고 내려와 화주와 함께 붉은 쇳물을 덩이(틀, 모형)마다 가득 부어 보습과 무쇠술 가마를 만든다. 한참 동안 있다가 쇳물이 식어 만들어진 보습과 무쇠술 가마술을 덩이(틀, 모형)에서 꺼내어 진열해 놓는다.

제5과장 : 한마당 놀이와 퇴장

출연자 모두는 중앙의 기수를 중심으로 하여 농악에 맞추어 만들어진 보습과 무쇠술, 가마술, 또 다른 소품을 들고 흥겹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간다.

한참 한마당 놀이를 하다가 기수를 선두로 농악대 등 모두가 줄을 이어 원을 그리고 돌아선 다음 정리가 다 되면 징소리에 맞추어 관중을 보고 서 있다.

다시 종소리가 나면 관중에게 넉죽 절을 하고 다시 징소리에 맞추어 일어나서 줄을 지어 춤을 추며 퇴장한다.

입장과 인사

- 출연자 ○ 큰 기수(다리골 무쇠점간)를 선두로 하여 농악대, 작은 기수, 점간주인, 선소리꾼, 후소리꾼, 화주, 비수안, 집사, 풍구질꾼, 아낙네 등의 순으로 입장한다.
- 입장할 때 농악대는 농악을 경쾌하게 쳐주며 출연진 전원은 농악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동작을 맞추고 춤을 추

며 입장한다. 또는 간단한 소품은 입장할 때 가지고 들어간다.

- 큰 기수(다리골 무쇠점간)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출연자 모두는 원을 그리고 둘러서면서 각자 간격을 맞춘 다음 소품을 중앙부 쪽으로 내려 놓는다.
- 상쇠는 출연자가 간격을 맞추며 소품을 다 내려 놓은 것을 확인한 후 농악을 멈추게 한다.
- 출연자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관객을 향하여 돌아선다.
- 이때 징잡이는 징을 크게 울려주며 출연자 모두는 징소리에 맞추어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 관중에게 인사를 한다.
- 조금후 징잡이는 다시 한번 징을 쳐 준다.
- 출연자 모두는 인사를 멈추고 다시 일어나서 중앙부에 놓여 있는 자기 앞의 소품을 다시 소지한다.
- 상쇠는 출연자가 모두 소품을 소지했는지 확인한 후 농악을 울리게 하고 다음의 출연과정으로 인도한다.
(농악대는 뒤로 빠져 일렬로 서고, 작은 기수는 양옆 산 쪽 위치로 갈라서고, 풍구질꾼은 양쪽 풍구 옆으로, 화주는 뚝 옆으로, 아낙네는 점간뒤로, 점간주인 선소리 후소리는 중앙부에, 비수안 집사는 뒤쪽으로 각자 위치를 정하여 간다.
- 출연자 모두는 제위치에 가면 다음과장의 소품을 지닌다.
- 출연자가 소품을 다 지니면 농악은 멈춘다.

제1과장 쇧돌(철광석)채취

출연자 ○ 선소리꾼은 “자! 우리 모두 쇧돌을 캐러 산으로 갑시다.”
라고 소리친다.

- 출연자 모두는 “예!”하고 크게 대답을 한다.
- 이때 농악은 천천히 올려준다.
- 출연자는 소품을 지니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열을 지어 양옆의 산으로 간다.
- 출연자가 산에 다가가서 산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 선 다음 소품을 내려놓고 곡괭이 망치 등 쇧돌(철광석)을 채취할 준비가 끝나면 농악은 멈춘다.
- 이때 선소리꾼은 “자! 이제 쇧돌을 부지런히 캐시다.”라고 소리친다.
- 출연자 모두는 “예!”하고 크게 대답한다.
- 선소리꾼은 힘차게 노동요를 선창한다.
- 후소리꾼은 후소리를 받으며, 출연자는 곡괭이와 망치, 메 등으로 쇧돌(철광석)채취하는 동작을 반복하며 후소리를 받는다.
- 이때 농악은 노동요에 맞추어 아주 작게 농악을 쳐준다.
- 쇧돌(철광석)을 채취하는 출연자는 일부 땀을 닦고 옷저고리를 벗는 시늉도 한다.
- 한참 노동요에 맞추어 쇧돌(철광석)을 채취하다가 소리가 멈추면, 농악은 크게 올려준다.
- 이때 쇧돌(철광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멈추고, 채취한 쇧돌(철광석)은 지게와 소쿠리 등 운반할 기구에 담은 다음, 정리가 끝나면 농악은 멈춘다.
- 선소리꾼은 “자! 이제 가지고 갈 쇧돌을 충분히 캐었으니 하산하세요!”라고 한다.
- 출연자들은 모두 “예!”하고 대답한다.
- 다시 농악을 느리게 쳐 준다.
- 쇧돌(철광석)채취인들은 일렬로 줄을 짓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하산 한다.
- 점간에 다 도착하여 짐을 풀고 정리가 끝나면 농악을 멈춘다.

제2과장 똑 제사

- 집사는 똑 앞에 자리를 깔고 상을 놓은 다음 준비한 재물을 상위에 차려 놓는다. (시루떡, 돼지머리, 주과포, 술잔)
- 출연자 모두는 앉는다.
- 다음 제물준비가 끝나면 점간 주인은 자리에 올라 배례를 한번하고 무릎을 꿇어 앉는다.
- 집사는 빈 술잔을 들어 점간 주인에게 들게 한 다음 술을 잔에 붓고, 다시 술이 담긴 술잔을 상위에 놓는다.
- 점간 주인은 다시 배례를 한다. (엎드려 있다)
- 비수안은 비문을 읽어 내려간다.
- 비문이 다 끝나면 점간 주인은 다시 배례를 한 다음, 술잔을 들고 양쪽 점간 똑에 술을 군데군데 조금씩 붓는다.
- 똑 제사가 끝나면 집사는 제물과 자리를 거둔다.

제3과장 풍구질과 쇧돌(철광석)녹이기

- 선소리꾼은 “자! 이제 똑 제사를 잘 지냈으니, 풍구질을 하여 쇧돌들을 녹이세!”하고 소리친다.
- 출연자 모두는 “예!”하고 크게 대답을 하며 풍구질꾼은 각자 풍구위치로 올라간다.
- 화주는 이때 똑에 불을 붙인다.
- 선소리꾼은 풍구질 소리를 선창하고, 후소리꾼과 풍구질꾼은 후렴을 받으며 서서히 풍구질을 한다.
- 풍구질이 계속되는 동안 점간 주인은 “불어라! 불어!”라고 소리친다.
- 이때 농악은 아주 적게 소리에 맞추어 은은히 올려준다.

- 한참동안 풍구질을 하다가 선소리꾼은 “힘도 들고 숨도 찬데 쉬었다 하세!”라고 소리친다.
- 풍구질꾼들은 “예!”하고 크게 대답하고 풍구에서 내려온다.
- 아낙네들은 새참으로 술동이와 함지박에 담은 먹거리를 가지고 들어온다.
- 아낙네들은 바가지로 술을 떠서 풍구질꾼에게 건네 주고, 다른 아낙네들은 안주를 집어 준다.
- 풍구질꾼은 술과 안주를 받아 마시며, 땀을 닦고 일부는 웃저고리를 벗기도 한다.
- 풍구질꾼이 쉬면서 새참을 먹는 동안 농악은 경쾌하게 쳐 준다.
- 한참동안 새참을 먹으며 쉬다가 농악이 멈추면 선소리꾼은 “자! 이제 그만 쉬고 풍구질이나 다시 하세!”하고 소리친다.
- 풍구질꾼은 “예!”하고 대답한 후 일제히 풍구로 올라간다.
- 이때 풍구질꾼은 웃저고리도 벗고, 바지가랭이도 일부 걷어 올린다.
- 선소리꾼은 다시 소리를 준다. 후소리꾼과 풍구질꾼은 후렴을 받으며 풍구질을 계속한다.
- 화주는 뚝에 불이 “퍽! 퍽!”피어 오르도록 조정한다.
- 농악은 소리에 맞추어 북과 장고만 아주 적게 은은히 쳐 준다.
- 점간 주인은 옆에서 “불어라! 불어!”라고 크게 소리를 친다.
- 한참동안 풍구질을 한 후 선소리꾼이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불어보세!”라고 소리친다.
- 풍구질꾼들은 “예!”하고 아주 크게 대답하 풍구에서 내려온다.

- 농악은 다시 경쾌하게 쳐준다.

제4과장 보습과 무쇠술 가마솥 만들기

- 화주와 일부 풍구질꾼은 붉은 쇳물을 그릇에 담아, 텅이(틀, 모형)의 군데군데에 가져다 붓는다.
- 농악은 계속 경쾌하게 쳐 준다.
- 점간 주인은 붉은 쇳물을 붓는 텅이(틀, 모형)를 담뱃대로 가리키며 잘 부으라고 일러준다.
- 화주와 일부 풍구질꾼은 계속 왔다 갔다하며 붉은 쇳물을 그릇에 담아다 텅이(틀, 모형)에 가져다 붓는다.
- 나머지 출연자는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 화주와 풍구질꾼이 쇳물을 텅이(틀, 모형)에 다 가져다 부었을 때 농악은 더욱 크게 울려준다.
- 풍구질꾼은 줄을짓고 양쪽으로 나뉘어 똑과 풍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빙빙돌며 춤을 춘다.
- 몇번을 계속해서 돌다 농악을 약하게 치면 화주와 풍구질꾼 일부는 텅이에서 식어 완성된 보습과 무쇠술 그리고 가마솥을 꺼낸다.
- 텅이에서 보습과 무쇠술 그리고 가마솥을 다 꺼내어 놓으면 점간주인은 보습과 무쇠술 가마솥이 있는 곳에 가서 점검을 한다.
- 점간주인이 점검을 하는 동안에는 담뱃대를 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잘 만들어 졌다고 일꾼들을 격려하며 기쁜 미소를 짓는다.
- 점간주인은 점검을 다 끝낸 후 일꾼들에게 “자! 보습과 무쇠 술 그리고 가마가 잘 만들어 졌으니 막걸리 한 잔 하고, 한마당 잔치나 벌려 놀아보세!”하고 소리친다.

제5과장 한마당 놀이와 퇴장

- 농악은 중앙 기수를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경쾌하게 울려준다.
- 출연자 모두는 농악대를 따라 기수를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흥겹게 춤을 춘다.
- 출연자들은 소품을 높이 들어 관중에게 보이면서 계속 돌아간다.
- 일부 출연자는 “와!” “와!” 하고 소리를 친다.
- 기수는 기가 펄럭이도록 빠르게 움직여 준다.
- 상쇠는 쇠를 꺾어 다른 리듬으로도 쳐 준다.
- 출연자는 계속 농악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며 돌아간다.
- 한참동안 신나게 한마당 놀이를 하다가, 기수는 농악대를 끌고 크게 원을 그리며 퇴장인사 준비를 하면서 돈다.
- 출연자 모두는 농악대를 따라 한줄로 한마당 놀이 원을 풀며 돌아간다.
- 출연자 모두는 원을 그려가며 계속 돌고 상쇠는 출연자의 돌아가는 간격이 어느 장도 맞으면 쇠를 꺾어 친다.
- 출연자는 상쇠가 쇠를 꺾어 치는 것을 받아 제자리에서 중앙부쪽으로 소품을 벗어 놓는다.
- 소품을 다 내려 놓는 것을 확인한 후 상쇠는 쇠를 멈춘다.
- 출연자는 일제히 관중을 향해 돌아선다.
- 징잡이는 징을 울린다.
- 출연자는 징소리와 함께 관중에게 넉죽 절을 한다.

해설자 ○ 관중들에게 많은 박수를 청한다.

출연자 ○ 다시 징소리가 나면 출연자는 일어선다.

- 농악을 천천히 울리면서 기수를 선두로 퇴장한다.
- 출연자는 소품을 가지고 퇴장한다.

씻돌(철광석) 채취 소리

선 소리	후 령	선 소리	후 령
에-헤라 철광석아	에-헤라 철광석아	농사쟁기 잘만들어	에-헤라 철광석아
어화세상 벗넌네야	" "	우리농군 농사질때	" "
이내소리 들어보소	" "	겨리소에 쟁기걸어	" "
옛날옛날 아주옛날	" "	어려어라 소리하며	" "
인제서화 무쇠점골	" "	앞밭뿔은 갈고갈아	" "
인제북면 구미동에	" "	모를심고 콩을심어	" "
세상에서 제일가는	" "	농사풍년 맛이하여	" "
철광석이 나왔는데	" "	인제농춘 부춘으로	" "
송곳같은 곡괭이로	" "	내손으로 만들으세	" "
한번캐면 한덩어리	" "	에-헤라 철광석아	" "
두번캐면 두덩어리	" "	우리일꾼 씻돌캐때	" "
닷근짜리 쇠망치로	" "	구슬같은 땀방울에	" "
한번치면 한덩어리	" "	적삼바지 다젖었네	" "
두번치면 두덩어리	" "	가련하다 우리신세	" "
뚝뚝뚝뚝 망치소리	" "	어찌하여 사시사철	" "
철컱철컱 팽이소리	" "	비가오나 눈이오나	" "
우리일꾼 잘도캐네	" "	씻돌캐는 사람됐나	" "
철광석을 캐는소리	" "	어떤사람 팔자좋아	" "
산을타고 메아리쳐	" "	고대광실 높은집에	" "
인제남면 다리골에	" "	사귀에다 풍경달고	" "
점간에다 알려주네	" "	부귀영화 누리는데	" "
점간주인 소리듣고	" "	우리일꾼 어찌하여	" "
흥겨워서 춤을추네	" "	한평생을 힘든일로	" "
여보시오 일꾼네들	" "	살아야만 하겠는가	" "
부지런히 씻돌캐서	" "	오늘날은 그만캐고	" "
점간에서 불에녹여	" "	내일다시 캐오보세	" "

뚝 제사 제문

해동조선 강원인제 다릿골에 터를잡아
무쇠점간 지어놓고 보습술을 만들적에
불계부정 택일하여 삼색오과 술을빚어
좌우진설 향배해서 홍동백서 좌포우회
외적내탕 진설하고 소지발원 드리오니
동방에는 백토지신 남방에는 적토지신
서방에는 백토지신 북방에는 흑토지신
모든지신 오시도록 하강하여 드릴적에
소-례로 드린정성 대-례로 받으시고
입은덕도 많건마는 새로새덕 비옵나니
소망성취 바라건대 풍기독에 간압쇠는
맑은청풍 불어넣고 일월같이 맑은불을
한곳으로 모아올려 철광석을 불계달귀
주홍같은 붉은씻물 텅이텅이 옮겨부어
보습술을 만들적에 잘만들게 비나이다

풍구질 소리

풀무풀떡	풀무풀떡	여보시오	풍구질꾼
이풍구를	잘붙어서	새참을때	되었는데
제일가는	무쇠점간	부지런히	붙어보세
어텔가나	소문났네	권택마님	거동보소
어텔가나	제일일세	팔폭치마	휘여감고
동네방네	우리일꾼	시뿐사뿐	걸어오네
풍구질도	잘도하네	여보시오	일꾼네들
보습한장	쌀한말에	땀도땀고	힘도드니
무쇠밥술	쌀두말에	새참먹고	쉬었다가
불티나게	팔려간다	다시불며	일해보세
이내팔자	어찌하여	풀무풀떡	풀무풀떡
풍구부는	일꾼됐나	어떤사람	팔자좋아
구슬같은	땀방울에	고대광실	높은집에
등걸잠방	다젖었네	홍타령만	부르는데
풀무풀떡	풀무풀떡	이내팔자	한평생을
여보시오	일꾼네들	풍구질로	살아가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일꾼네들
나이오십	한평생에	풍구질에	한탄말고
장가한번	못가보고	부지런히	잘붙어서
젊은청춘	점간에서	밥술가마	잘만들어
풍구질로	다늠었네	장날마다	팔아다가
여보시오	동네사람	한푼두푼	저축하여
누구든지	맡있거든	색시연어	장가가고
이내몸을	사위삼소	궁궐같은	집을짓고
내평생의	소원이요	아들낳고	오복맞아
		영화부귀	누리보세

제 3 장

향 토 문 예

물푸른 파도

한 용 운

어지럽게 떠도는 파도
그 너머
또
그렇게 헤매는 파도

기백년
채우고 채워도
넘치지 않는
물 푸른
은 모래 바닷가
발목 잡는
소라
빈 껍데기 하나

천년 세월
출렁이는 물 소리만 남아
오늘도 귀를 열면
흐느끼는 소리
뒤 듣고 있을까
그저 들리는 소리
없다고 한들
가슴만 울리는
물 푸른 파도여

고 향 집

한 용 운

바람도
그냥 지나가는
가리동 18번지
낡은 문패는 있건만
아무도 없다

행하니
무너진 토담
숨 죽여 흘린 눈물
거미줄에 걸려 있고

채 삭지도 않은
재작년 베어버린
수숫깥 그루터기
어느 세월
잡초만 무성하구나

외양간 걸어 둔
녹슨 쇠스랑
호밋자루
낡은 채마귀는
어찌 되었을까

버려진 草屋

한 용 운

절망에 기대어
돌아오지 않는 農心
허무에 지쳐서
눈물 재우던 소식
아물거린다

관절염 같은 수입개방
저마다 억눌린 걱정을 나누어
민들레 꽃씨처럼
멀리 떠나간 民草들
지금쯤 어디에서
푸른 하늘 고향 그럴까

서글픈 바람
사립문 밀치면
가시풀, 뺨대만 무성하고
또 무심한데
피멍을 지우며
외롭게 핀 살구꽃
붉게 울었다



한 용 운

- 강원 인제 출생
- 內麟文學會員
- 현재 인제군청 근무

지난밤 별하나 창가에 찾아와 내 곤한 꿈 엿보고 갔음을 미처 몰랐다.

어둠이 풀리는 창문 열고 하얀 그림자로 일어서는 빗살 꽃무늬
순결하게 빛나는 아미산 한줄 정기로 천년같이 흐르는 內麟川의
푸른 물 아 새해 아침이여

그간 곁에서 마음 써준 아내가 더욱 예쁘게 보이는 새해 아침이
기도 하다.

부족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맥문학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해 마지 않는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한용운씨의 「물 푸른 파도」의 2편을 뽑는다.

이 사람은 그 동안 어지간한 수련을 쌓았다는 것이 군데군데서 읽히고 있다. 그러면서 비교적 때를 덜 타고 맑은 가락을 뽑는데 나아가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것이 完成된 세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未完成의 세계로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오늘을 계기로 조금씩 그 未完成을 벗어나서 完成에 보다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詩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끝까지 정성을 다해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보물을 캐기를 당부한다.

심사평 朴在森

韓 龍 雲

강원 인재 출생

內麟문학, 광솔詩 낭송회 회원

인제장로교회 장로

한국어린이재단 강원지부 지역후원회장

한맥문학 신인상으로 문단 등단

수상 : '81 대통령 표창

삼성문화재단 효행상

고향재단 밝은사회 선행모범가족 금상

강원 새마을 미담상

弘盛社 작품공모 우수상

현재 인재군청 근무

인제군 인재읍 상동 4리 1반 258-15번지

(직) 0365-461-2122

(자) 0365-461-2623

落 花

오 정 진

세월이 꽃잎을 타고
펼 펼 날리네
내 젊음도 저렇게
저물어 갔지!

半白의 나이
흘날리는 꽃보라 어깨에 맞으며
실눈으로
머언 먼
뒤안길을 보네

뼈 꾸 기

오 정 진

뼈꾸기 울음속에
내 어린 시절이 있다.
고추를 내놓고 다녀도
흥이 없던 그 시절
소꿉 친구들이 있다.

뼈꾸기 울음속엔
잃어버린 내 고향이 있다.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고향의 산천이 있다.

뼈꾸기 울음속엔
젊으신 어머니가 있다.
코 흘리게인 나를
무릎위에 앉히시고
쌀밥에 고기반찬 얹어주시던
어머기가 있다.

아스라한 세월속에
사위어 가던
내 어린시절로
되돌아 가는
뼈꾸기 타임머신

소승폭포

오정진

단풍에 타는 골을 석양에 찾아들어
물따라 오르는 숲 궁궐보다 황홀한데
쏟아아 물보라 치며 쏟아지는 소승폭포

하늘에 치솟은 아득한 바위벼랑
미리내 구비들은 삼단같은 물줄기가
허공의 바람 휘몰아 소리치며 나리네

천 국

오 정 진

따뜻한 마음씨
베풀면
당장이야 헛것같지만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 오겠지!

베풀기는 내가
거두기는 손자놈이 하면 어떠랴?
아니 증손, 고손이면 또 어떠랴?

고개들고
좀 멀-리 바로보며
씨를 뿌리자
아! 이세상
우리 모두의 포근한 마음들

말이란 옷입고 너와 나의
가슴을 넘나들어
풍성한 열매 맺으면

그것을 먹고 사는 이 누리
낙원이 되리
천국이 되리

향토예찬 글짓기 수상작품
영 글 사 영 그림

(고 등 부)

금 상

봄날의 아침

원통고등학교 2학년

이 순 분

이른 아침 제일 먼저 내 귓가에 맴도는 소리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밝은 햇살이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가끔은, 그런 것들이 있기에 삶의 기쁨을 느끼곤 한다.

언젠가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이런 이야길 나눈적이 있다. 그것은 시골 할머니댁에 대한 것이었다. 시골에서 태어나 이 시골에서 자란 나는 시골의, 특히 여름의 할머니댁에 관한 동경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다음에 커서 초가집을 짓고 넓은 과수원에 원두막, 예쁜 강아지와 병아리 그리고 방에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메주를 매달고 부엌의 찬장위 그릇엔 구수한 가마솥의 누룽지를 담아 놓아 내 손자 손녀들에겐 시골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 주고 싶다는 말에 나 또한 그렇게 하리란 결심을 한 적이 있다. 도시의 내 또래의 친구들을 생각하니 공부하느라 상쾌한 바람과 햇빛을 느끼며 쉴 몇분의 여유도 없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안하지만 그러고 보니 나도 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에 띄는 화면이 있었다. 허영게 벗어진 산들의 모습이었다. 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까?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 속에 끼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난 비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축축하고 날씨 또한 우중충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비가 온 뒤의 주위를 둘러보면 그 생각은 사라지고 만다. 비온 뒤의 모습은 도시의 더러운 흑탕물 같

은 것과는 너무 다르다. 내가 이 곳에 살기에 행복한 점 중에 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일 것이다.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고 새로와 지기 때문이다.

많은 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로써 자연을 찬양하고 표현한다. 나는 우리 고장의 자연을 보며 감히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환한 웃음으로 대신한다. 이 세상의 누구도 완벽하게 그것들을 표현하진 못 할 것이다.

대도시에선 이제 별보기도 힘들다고 한다. 어릴적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달 속에 있는 토끼를 상상하며 꼭 가보리라고 다짐했던 달에도 태양을 도는 별들도 가봤지만 여전히 하늘의 달과 별들 보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그리는건 왜일까?

아직은 오염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우리 고장이지만 남들보다 몇배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란 어느 스님의 말이 새삼스레 생각이 난다.

어느날 차를 타고 지나다가 길 옆에 핀 작은 꽃을 보며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던 어느 꼬마아이의 모습이 기억난다. 예쁘게 앉아서 순수하게 웃고 있던 그 아이의 예쁜 모습이 미래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내일도 새의 멜로디와 아침을 알리는 햇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까 한다.

은 상

향토의 눈물

원통고등학교 2학년

김 환 래

“화창한 봄 날씨이다.” “그러면 뭐해” 가슴 한 구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변한 우리의 터전 ...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산이고 밭이고 논이고 모두 메워버리고 잘라버리고 ...

우린 매일 아침이면 언제나 앞산의 화려한 풍경을 보고 학교로 등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앞산은 망가져 갔습니다. 골프연습장이라나 뭐라나. 처음은 산을 깎더니 나중에는 불품 사나운 철망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그 인공적인 파괴의 현장. 비록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라지만 조금은 냉정한 어른들의 세계가 싫어진다. 언젠가 나도 클텐데 저렇게 될까?...

그 뿐아니라 불가 학교와 400여 미터에 논을 메워 지은 ○○참여관 자연환경 파괴에 인제군 이 땅에서 커가는 주인공들은 매일아침 그 앞길을 지나가야만 한다. 가득찬 자동차들 ... 그 옆엔 그대로 바위가 불품없이 놓여져 있다. 이런 걸 보고 과연 애항심을 가질 수 있을런지 생각해 봤을까? 그러나 이걸 일부일뿐 ...

작년이었지 ... TV에 인제군 양담배 불매운동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다. 사비에서 양담배를 모두 사들여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왔다. 범국민 차원에서 가슴 뿌듯한 한 장면이었다. 타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어떤 분이 물으셨다.

‘너 어디에서 왔니’ 난 자랑스럽게 말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설악

산이 바로 보이는 원통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부러우신 듯 짧은 미소를 보이시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나도 그런 곳에 한 번 살아봤으면 하시는 것이었다. 웬지 가슴 한 구석이 가득찬 느낌을 받았다.

전라도로 갔을 때이다. 갈증을 느껴서 매점으로 들어갔다. 언뜻 생수파는 곳이 보였던 것이다. 가서 보니 우리 인제군 한계리에 있는 설악생수들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반갑던지 ... 난 느꼈다. 역시 고향은 고향이라고, 그래도 작은 변화로 조금씩 잃어가는 자연환경에 서글프고 미워진 이 땅보다 17년간 쌓은 나와 의 관계가 더 큰것이라는것을 ...

언제까지나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아 있을 이 곳을 난 사랑하고 싶다.

동 상

우리 고장의 자랑

원통고등학교 2학년

구 미 숙

우리 고장은 강원도 인제군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 내가 살고있는 이 천도리는 옛부터 천도복숭아가 하늘에서 떨어져 생긴 마을로써 천도리라는 명칭을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가 전해 내려오고있다. 가끔 펜팔친구가 자기 마을자랑을 할때면 나는 괜히 부끄럽다. 하지만 지금은 도리어 자랑스럽다. 오염되지 않은 물, 맑은공기, 아침일찍 들리는 참새의 지저귐등이 여러가지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우리 고장을 소개하겠다.

대암산을 근거로 하여 해발 400-450m의 고산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10℃ 정도인데 고도가 높아서 겨울에 특히 추우며 눈이 많이 내린다. 우리 고장은 휴저선의 약 12.7km 떨어진 지역으로 농업지역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중상업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내 거주하는 총 인구는 3,940명으로 지난해의 비해 9.4%가 감소한 남자 1,965명, 여자 1,975명으로 군인구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총 가구수는 과년에 비해 11.2%가 줄은 1,087세대로 농가 242개 비농가 845가구로 농각가 22.8%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고장은 행정리 8개로 더불어 48개 반이 설치되어 비교적 아담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고장은 많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주민들이 인정

이 넘칠뿐 아니라 소박한 마음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화면은 제 4땅굴의 관문지역으로 을지전망대 통소 지역으로 서화면을 경위하고 있다. 또한 총 면적지역은 566.8km²으로 농경지가 13.98km² 임야가 513.33km²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고장이 공기가 맑은데는 이유가 있다. 푸른산과 많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 사람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5일 식목일 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나무심기에 참여하고 모두가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으며 아이들은 우유팩을 모아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반상회에 나가서 우리 고장의 문제점들을 의논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장은 날로 발전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도 든다.

우리 고장은 4계절의 특색이 있다. 봄이되면 산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울긋불긋 하게 피어 오르고 길에는 개나리가 봄내음을 풍기듯이 웃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름에는 강이나 냇가에 수영하러 다니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 가을에는 단풍잎과 은행잎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아이들이 썰매타고 노는 광경과 건강한 웃음소리를 함께 맛볼 수 있다.

우리 고장에서 나온 유명하신 분은 박인환 시인 이시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훌륭한 시를 남기셨기 때문에 매년 박인환 시인 추모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좋은 글이 많이 배출되기도 한다.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꾸며주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자연과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들의 건강은 자연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서울과 같은 대 도시보다는 우리 고장과 같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곳이 100배 1000배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고장은 다른고장에 비해 부족한 점이 좀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라든지등이 있지만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공해와 폐수등은 우리가 사는데 큰 어려움을 준다. 하지만 우리 고장은 그만큼의 개발이 아직 늦지만 깨끗하고, 맑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은 하긴하되 더럽고 환경을 해치며 하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선진국의 발돋움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우리 고장을 '미래의 땅'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여 이고장을 짊어지고 갈 새일꾼이 되어야 하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해 우리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려상

설악의 풍경

원통고등학교 1학년

방인순

설악산, 백담사, 십이선녀탕등 이런 곳이 우리 고장에서 유명한 곳이자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이다. 우리 학교 교가의 가사에도 나오듯이 설악의 정기를 받아서 그런지 우리들은 바르게 자라가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주위환경이 맑고 깨끗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안정되고 깨끗해지는 법이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갈때면 늘 관광객들이 타고 있다. 봄이면 창밖으로 진달래, 살구꽃등 알록달록한 수채화가 그려지고, 여름이면 산뜻하고 시원하게만 느껴지는 초록색의 식물들, 가을에는 불그레한 단풍들과 아이들의 마음과 미소처럼 티없이 맑게 흐르는 계곡, 겨울이면 설악산의 설경은 정말 장관이다.

이런 풍경들이 옆으로 지나갈때 관광객들은 한번씩 감탄을 하곤 한다. 그럴때 나는 그 관광객들에게 “제가 이 아름다운 고장에 살아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계절 계절마다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내가 사는 용대라는 곳은 백담사로 유명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관계없이 백담사로 향한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이틀에 한 명꼴로 백담사 가는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럴때도 나는 내가 이곳에 산다는 것이 뿌듯하게만 느껴진다.

처음에는 이곳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우리 고장이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곳을 벗어나고 싶어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또하나의 자랑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부지런함이다. 아침 등교길에 밭·논 옆에 있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보면 밭과 논에서 일하고 있다. 밭을 가는 모습, 논에 물을 대는 모습 하나 하나가 나의 눈에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진다. 여름의 이른아침,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그 속에서 밭에서는 경운기 소리가, 논에서는 이앙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때가 많다. 이렇게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을의 아니, 우리 고장의 사람들은 정말 근면·성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부지런하리 만큼 오가는 정도 어느 고장 못지않게 좋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들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해결한다. 이런것이 좋은 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로 돕고 사는 것 만큼 좋은 점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제 관광계절이다. 그때도 우리 고장에는 관광객들로 붐비겠지! 제발 우리 고장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었으면 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실망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장려상

우리 고장의 역사

원통고등학교 2학년

용 선 미

서늘히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의 내음에 잠겨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18년 동안 살아온 우리고장 인제군의 맑고 푸른 오늘과 내일에 관해 서술해 본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꽤 굵은 책자를 내미시며 “한 번 읽어 보렴.” 하시던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마 우리 고장의 역사가 담긴 그런 책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으려 한참동안 어수선 했다. 꼼꼼히 생각한 나머지 창고로 뛰어갔던 것이다. 뽕얀 먼지속에 덮혀 있던 「인제군년감」이란 제목이 눈에 띄었다. 순간 나의 입가엔 얇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고, 한편으론 평소에는 들춰보지도 않다가 꼭필요로 할때만 찾으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우리 인제군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두터운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모르는 한자도 많았지만, 푹푹하고 정감어린 신비감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먼저 인제군의 짙막한 배경을 살펴보려 한다.

본 군은 위만조선이 망하고 낙상이 번성하던 중기이후의 모국의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으로 짐작되며 당시 이름은 오사회라 하였으며, 그후 삼국시대가 전개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되자, 그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현의 소재지는 현재의 서화면과 서흥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고구려 장수왕때 의하면 점령되었던 인제군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은 신라 진흥왕때의 영토에 흡수되었으며, 현종 4년에는 양구현의 옥사로 인하여 인제현에 영속 되었으나 몇해 후

다시 양구현으로 환원 되었다.

1914년 3월 군·면의 폐합에 따라 동면을 현내면으로 통합시키고 1916년에 현내면을 인제면으로 개칭하여 인제, 남, 북, 서화, 기린 5개 면으로 개편하면서 기린면의 미산과 용면동의 강릉군 내면으로 이속되었다가 1939년 강릉군 내면이 다시 인제군으로 편입되었다 한다.

위치상으로는 동쪽으로 고성군과 양양군, 서쪽으로는 양구군과 남쪽으로는 홍천군, 북쪽으로는 회양군과 인접해 있다.

다음으로는 인제군의 역사적 상징을 알아보려 한다.

첫번째로, 상단의 흰색은 온순 청렴하고 결백한 군민성을 표시하고, 하단 녹색판은 무진장의 자원과 생동의 증산육을 의미하며 중앙원내는 군민의 뭉쳐진 힘을 바탕으로 발전과 전진을 향한 의욕을 상징하는 군기에 대해 말한다.

두번째는, 인제군의 군목인 주목에 대해 알아본다. 주목은 항상 푸르른 진록색의 청렴하고 끈기가 있으며, 변함없는 군민성을 상징하며, 홍색종자의 결실은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약한다.

세번째는, 4~6월의 일시에 개화하며 협동과 단결로 전진하는 활력을 상징하는 군화인 철쭉이다.

마지막 상징인 군조는 백비둘기인 온순하고 지혜로우며 때를지어 살며 협동심이 강한 단결과 상부상조하고 사람과 잘 어울림의 인정과 화목을 의미한다고 한다.

정중하고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인제군의 군가는 80년 3월 1일, 3·1절을 맞이하여 인제종합고등학교 교감 이셨던 북청 출신인 전현권님과 춘천교육대학 교수이시며, 작곡가이신 통천 출신 박재훈 님과의 조화된 작곡과 작사로 인제 군가가 탄생한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인제군의 특산물을 묻는다면 무엇이래 대답하겠는가?

며칠전 군청 2층에 오를때에도 그리고 큰집인 기린에 갔을때도

신기하게 보왔고, 맛있게 먹었던 토종벌꿀, 광솔목각, 치커리, 송이버섯, 산채, 이상 다섯가지가 우리 인제군의 역사적 특산물 5종인 것이다. 앞에서 물음한 바와 같이 누군가가 특산물에 대해 묻는다면, 아니 인제군민의 상식으로 한가지 이상의 특산물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이 모든것을 알고난 지금의 나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삶의 기쁨을 느꼈다.

오백년 우리의 전통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곳곳이 그 얼을 지켜 우리의 조상들을 이 젖줄에서 빼와 살을 키우고 생활, 역사를 이어오며 자랐고, 또 거센 풍차도 겪었으며, 앞으로 우리들의 후계자들이 이 젖줄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의 군민들은 우리 고장의 시가지 전경을 상상하며, 수많은 역사 속의 긍지를 갖고 누구앞에서든 인제군을 영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인제 군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향토예찬 글짓기 수상작품
○ ㄴ ㄹ ㅅ ㅃ ㅇ ㅈ ㅊ

(중 등 부)

금 상

사랑하는 마음을 준 상남 마을

상남중학교 2학년

김 정 은

흔히 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우리 상남 마을.

요즈음 생활고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상남 주민들이 하나 둘씩 이 마을을 떠나 서울, 의정부, 인천등의 도시로 이사를 간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기는 싫었지만 친한 친구들과 많은 작별을 해야만 했다. 나도 아버지가 군인이시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했다. 친구들과 친해질만 하면 이사를 가곤 하였다. 그런데 이곳 생활이 벌써 7년인지 8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군인 가족치고는 비교적 오래 산 편이다. 그러나 상남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는 이 마을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내가 이 마을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이 곳을 떠나기 싫어한다. 그 동안 이 마을에 정이 많이 들었나보다. 내가 부모님께

“우리 의정부로 이사가요.”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좋은 곳을 두고 어딜 가니?”

부모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생각한다. 이 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 점차 철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곳 상남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마을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마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 이 곳에 이사 왔을 때에는 큰 상점도 없고 마을도 작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의 수도인 서울, 서울 따

원 이제 부럽지 않다. 오히려 이 마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이 마을 즉 상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두 써보라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공책 한 권은 자신있다.

내가 상남을 너무 사랑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남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보인다.

우리 마을은 주변 환경이 참 아름답다. 공기와 물도 깨끗하다. 특히 내린천이라는 강이 참 유명하다. 여름만 되면 관광객 때문에 텐트칠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것으로 상남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너무 얄밉다. 왜냐하면 자기 마을이 아니라고 휴지들을 아무곳에 버리고 자기들의 마을도 향하기 때문이다. 내 마을뿐만이 아닌 모든 마을들도 깨끗해야 우리 나라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걸까? 우리 나라엔 이기주의가 철철 넘치는 암체가 왜 그리 많은지 아직 어린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즈음에는 어린 아이의 나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어른들이 더 암체이다.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25000원. 이제 이런 말들은 형식적으로만 정해 놓은 법이란 말인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는 휴지 하나 버리는 것쯤은 잘못이 아니라고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가고 있다.

하루 빨리 깨끗한 가정, 나아가 깨끗한 고장, 더 크게 나아가 깨끗한 한국이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게 되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한국 만드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이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끈끈한 정 때문일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눈으로 볼 수 없

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훈훈한 정이 있다. 이웃과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산다. 며칠 전 5월 8일 경로잔치를 벌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예상외로 참 많았다. 7~8년 동안 이 곳에 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많으신지 알지 못한 나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감사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에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이웃간의 정과 사랑,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일깨워 주신 마을 어른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언제까지나 서로를 사랑하는 상남이 되고 성장한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변함없는 상남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금 상

우리 고장의 명물

기린중학교 2학년

김 영 일

우리 고장의 명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방동약수와 용각산, 마당바위, 계단폭포가 유명하다.

방동약수는 1670년 경 어느 한 심마니가 발견한 것으로 그 역사가 324년이나 되는 오래된 곳이다. 무색 투명한 광천수로 많은 양의 철과 천연가스를 함유하고 있어 위장병과 신경쇠약에 효능을 보인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어제는 마침 휴일이라 친구 성휘와 방동약수터에 가보았다. 수려한 경치가 풍풍 솟아나는 약수맛과 어루러져 한층 좋아 보였다. 과연 철분이 많이 함유된 물이라 주위의 녹물처럼 붉게 된 것이 보이고 맛을 보니 특 쏘는 게 정말 일품이었다. 설탕만 섞으면 사이다보다 훨씬 나올 것도 같았다. 방동약수를 뒤로 하고 용각산을 쳐다 보았다.

용각산은 예전에 용과 폐가수스를 탄기사가 싸웠던 곳이라고 해서 불려진 산이다. 산위에는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은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랫부분은 큰 비석과 같이 생겼고 위는 작은 비석을 하나 얹은 것 같이 보인다. 또 신기하게도 용과 기사가 싸울 때 생겼다는 용과 말의 발자국도 찍혀 있다고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찾아서 이 곳을 찾는다.

또하나 마당바위는 말 그대로 바위의 배열이 마당처럼 평편하게 생겼다. 그 규모는 작은 집 4개 정도를 질 수 있을 정도이다. 눈으로 보기엔 부드러운 느낌이나 촉감은 조금은 딱딱해 보인다. 이 바위

의 중앙에는 관통하는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흠의 지름은 대략 5m이고 깊이도 5m정도이다. 흠의 모양은 역삼각불 모양이다.

마당바위 위에는 계단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이 폭포의 모양은 말 그대로 거대한 거인이 다니는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계단 5개 정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곳의 물은 한여름에도 얼음처럼 차다. 한 번 손을 넣어 보니까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 이 물은 특수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곱게 해 준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고장에는 갖가지 좋은 것들이 많다. 항상 깨끗한 내린천 물이 흐르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열목어부터 무태장어, 황쏘가리, 어름치 등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아직 망가지지 않은 푸른 산림이 여러 동물이 살 터전도 마련해 주고 있는데 내가 본 동물만 해도 오소리, 너구리, 청살모, 꿩, 다람쥐, 멧돼지, 토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아직까지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 고장은 앞에서 얘기한 마당바위, 방동약수, 용각산, 계단폭포가 아니라도 무척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다.

학교를 오가다 개울물에 양말 벗고 발을 푸욱 담가도 좋고 지나치는 차창으로 좋은 경치-요즘은 물색이 아름다워 더욱 보기좋은 강가를 쳐다 봐도 좋고 산에 핀 진달래꽃 잎을 맘껏 따다 화전을 부쳐 먹어도 좋은 곳이다.

계절마다 색색이 바뀌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풍경은 직접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참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항상 푸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우리 고장의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은 풀한 포기까지도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은 상

자연의 속삭임

인제중학교 3학년

이혜복

기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늘을 치솟는 듯한 빌딩, 검은 매연을 뿜어내는 자동차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모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변화하지 않고 그 지역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우리 고장은 변화하지 않은 지역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반하여 우리 고장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어느 곳을 보아도 산, 산이 없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맑고 깨끗하다.

국민학교 6학년때의 일이었다. 친척집에 놀러 갔었는데, 한마디로 말해 공기는 엉망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그럴만도 했다. 매일 깨끗하고 맑은 공기속에서만 생활하여 이런 공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곳의 공기는 나를 탐탁치 않게 여겨 내게 적응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답답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다른 고장을 통해 느끼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고마웠다.

우리 고장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물이다. 도시 사람들은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끓여서 먹으며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먹는다고도 한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맑고 깨끗하며 몸에도 전혀 해롭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음이 정말 행복하다

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고장은 생활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처럼 정이라곤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냉혹한 현실과는 달리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어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고장, 그런만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또한 부지런하다. 새벽부터 경운기 소리, ‘음메’하고 우는 소의 소리가 우리들의 단잠을 깨운다. 열심히 땀을 흘려 가을엔 그 동안의 노력을 알고 있는 듯 좋은 결실을 맺는다. 또한 그 결실을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도 나누곤 한다. 이런 평화스런 고장의 평화를 깨려는 것이 있다.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 강 주변의 깨어진 유리 조각 등, 우리 고장의 자연을 훼손시키려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정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인심 좋은 우리 고장 사람들이 협동을 한다면 그 의무는 ‘책임 완수’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고장에는 아주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느티나무는 500년이 된 나무라 한다. 어렸을 때 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 재미있게 놀은 기억이 생생하다.

향긋한 풀 냄새 각가지 형태의 꽃과 벌레들, 시원스럽게 흐르고 있는 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산, 기름진 농토의 농작물, 아직 고향의 냄새를 느끼게 하는 굴뚝, 한옥집 등 이것이 모두 우리 고장의 자연이다. 우리 고장은 자연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비록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쁠때 슬플때, 웃고 울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친구이다.

이렇게 자연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도 종종 불만을 터트렸던 나는 좋지 않은 환경속에서도 불만 한 번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생각이 앞선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파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마냥 바라본다.

은 상

우리 고장을 지키자

기린중학교 3학년

박 호 진

내 고향은 경상남도 진해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머나먼 고장이다. 아버지의 전근과 함께 이 곳으로 오기 전 날, 나는 이 지역에 대한 희안한 말을 하나 듣게 되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험한 고장이란 뜻이었다. 그 말대로 산을 여러개 넘어서 여기 강원도 현리에 자리잡게 되었다.

도시 생활에서 갑자기 농촌 생활이 되어버려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나는 이 고장을 싫어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 못지 않게 내 고장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자랑은 뭐니뭐니해도 인심이 후한 고장이란 점일 것이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100~200원은 예사로 깎아 주고, 친구들끼리의 부탁도 거절당하는 법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모두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인정넘치는 고장이고, 인심좋은 사람들이다.

두번째로는 맑은 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롱고개 가는 길 가에는 산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곳이 있다. 물을 뜨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물이 맑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한 근처에 강이 있어 여름엔 미역을 감고, 겨울에 강이 단단히 얼어붙으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다음 자랑거리로는 맑은 공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에 내가 도

시에 살았을 때는 흰 옷을 입고 다니지 못했다. 옷이 시커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며칠동안 흰 옷을 입고 다녀도 시커매지지 않는다. 또, 공기가 맑으므로 산성비 걱정이 없다.

하지만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좋은 고장을 버리고 하나 둘 도시로 떠난다. 꼭 TV드라마 ‘서울의 달’처럼, 대체 왜 그럴까?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여기에는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도시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시설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다르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도서관이 없다. 학교에서 도서실을 개방해주긴 하지만, 도서실의 책은 다 합쳐 600~700권 될까말까, 도시의 도서관과는 큰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예로는, 내 컴퓨터에 쓸 소프트웨어를 사려면, 도시에선 잠깐만 걸어가면 되지만, 여기에선 차로 읍내까지 나가거나, 우편구입을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UR타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값싼 외국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놓겠단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때일 수록 우리모두 고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 고장을 지키고 발전시켜, 도시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이사오도록 하자.

동 상

이런 곳이 인제입니다.

원통중학교 3학년

박 계 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른 새벽 맑은 찬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 봄비 한 번 내리면 산과 들이 한층 더 푸르러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인제다.

이곳 인제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풋풋한 정이 있고 사람들 사이의 정 만큼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백담사라는 유명한 절도 있고, 한계산성, 한계사지등 유명한 옛터도 있다.

치커리 또한 유명하다. 치커리는 건강뿐 아니라 미용에 좋아 차도 끓여 물대신 마실 수 있고 생것은 생채로 먹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 보다 우리 인제가 좋은 건 깨끗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산과 생명이 싹트는 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풋풋한 정, 오고가는 사랑이 우리 인제의 자랑이다. 사람들 사이의 정이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곳만큼 인심좋은 곳은 드물것이다.

그렇다.

친척집에 가면 일주일도 견디지 못해 돌아오곤 한 내가 이곳 인제를 싫증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곳에서 태어나 자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집같은 인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깨끗한 물을 사랑하고 인심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갖춘 인제를 난 사랑하는 것이다. 나 아닌 이곳 사람 모두 인제를 사랑하니까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가 산과 들에 활짝피고 고사리, 미나리등 산나물 돋는 이곳 인제.

여름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지나칠 수 없는 장마와 찌는 듯한 삼복 더위가 여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가을엔 눈에서의 황금물결이 아버지, 어머니들을 미소짓게 하고 온갖 열매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가면 온 세상 흰 도화지 처럼 만드는 대설, 소설이 있어 사계절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은 이런곳이 좋아 이곳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 인제에도 단점은 있다. 나와 같은 학생들의 공간이 적다는 것과 영화관같은 사람들의 문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이곳에도 문화시설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곳 인제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인제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지만 소중한 나의 소망이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이 좋은 인제가 비참해지고 옛 모습을 잃어가는것은 싫다.

봄날 밤마다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 가로등 불빛 보다 더 밝은 달빛, 아마도 달과 개구리들도 이 깨끗한 인제를 좋아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정을 좋아 하나 보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봄날 밤에 들리는 저 개구리 소리와 가로등 불빛보다 더 밝은 저 달이 그리워 향수를 느낄테고 가을 밤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가 그리워서 이곳을 찾으면 저 개구리들과 저 달, 가을의 귀뚜라미가 날 반겨주는 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제!

바로 맑은 공기와 물 아름다운 경치, 봄날의 개구리 울음소리와

가을 밤의 귀뚜라미 소리가 있는 곳이 인제다.

결국은 인제는 살기좋은 곳이다. 그렇기에 나는 인제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난 곳이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집 같은 인제이기 때문에…….

동 상

살기 좋은 인제군

원통중학교 1학년

이 희 영

내가 살고있는 이곳,
정말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이다.

이곳은 내가 태어나서 살던곳, 즉 나의 고향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아빠께 귀찮으실 정도로 꼬치꼬치 물었다.

“아빠, 아빠는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살으셨어요?”물었더니 아빠는 “아니란다. 원래 아빠의 고향은 이곳이지만 국민학교 때에는 이곳에서, 중학교 때에는 강릉에서, 16살땐 춘천으로 이사가서 살다가 23살때 이곳으로 다시 이사왔단다.”하시며 아빠의 과거를 쭉 이야기 해주셨다. 여러곳으로 이사를 다녀 보았지만 그래도 인제군 북면이 제일 나왔던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던것 같다. 그 때 당시 우리 아빠 가족은 가난하여서 한 곳에 머물러 살 형편이 못 되었다고 하셨다.

70년대 우리 인제군은 무척 살기 힘들고 가난한 곳이었다고 한다. 하루 하루 땀 나무가 없어서 힘들게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와 하루 하루 나날을 따뜻하게 보냈다고 아빠께 들었다.

이렇게 해서 20여년이 지난 이곳은 놀랄 정도로 발전해 왔다.

지난 6학년때 ‘인제전신전화국, 인제 관측소’를 견학 하였다. 나는 아저씨께 “아저씨 장난전화 하는것도 다 밝혀지나요?”물었더니 아저씨께서는 고개를 끄덕 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선 정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내가 장난전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우리 인제군도 다른 지방처럼 발전 될 정도로 발달 되

었다는게 참 신기하고 놀라웠다. 우리 고장을 위해 나는 우리나라 친구들에게 이 글을 보내고 싶다.

대한민국 나의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유명한 인제군 이라는 고장에 위치한 원통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중인 이희영 이라고 한단다.

물 맑고 공기 맑은 설악산 근처에 위치한 우리 고장은 참 아름답고 멋있는 고장 이란다. 봄이면 산과 들에는 파릇 파릇한 새싹과 진달래, 개나리로 가을엔 설악산의 단풍으로 겨울이면 깨끗한 풍경으로 인하여 우리 고장은 1년 365일 4계절 모두 아름다운 고장 이란다.

내가 아주 자신있게 너희들에게 우리 고장을 자랑할 수 있단다. 언젠가 한번 놀러와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고장 환경을 구경해 주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감탄과 놀라는 얼굴표정을 보고 싶구나. 참! 너희들 여름에 동해안으로 피서 많이 오지. 그때 우리 고장을 지나게 되겠구나. 우리고장을 지나갈때 우리고장을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찾아 주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농촌보다 도시가 더 좋으니?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가 더 좋아. 우리 인제군은 도시보다는 작지만 우리에게서 크고도 큰 고장 이야. 너희들도 너희 고장 자랑 거리가 많겠구나. 여긴 여름이 시원한 편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이곳 이란다.

내가 너무 자랑을 많이했니? 그럼 미안. 내가 이만큼 자랑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고장이 참 나에게겐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야. 자랑을 많이 했으니 궁금해서라도 우리 이곳을 많이 찾아 주길 바란다. 그럼이만.

1994년 5월 12일

친구 희영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나니 정말 우리고장은 환경오염 문제도 거의 없고 도둑, 범죄가 없다는게 나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엄마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이 컸구나!” 하시며 칭찬 해 주셨다.

엄마의 칭찬으로 나는 우리고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신감을 더 얻게 되었다. 나는 우리 인제군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인제군 회이팅!’

장려상

숨쉬는 공간

인제중학교 2학년

송 지 혜

내 나이는 이제 열 다섯 살이다.

얼마 안되는 짧은 삶(?)이지만 2/3이상을 살아온 곳에 대해 커다란 애착을 가질 정도의 나이는 되었다고 본다.

내가 2/3이상을 살아온 곳은 바로 이곳 인제이다.

인제는 옛 이름이 저족현(猪足縣) 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풀이 하면 '산돼지의 발자국 마을'이지만 조금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옛것이 있는 마을'이 된다

옛것이 있는 마을.

틀린 말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이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인제는 서화천 물이 한계천 물과 원통에서 흘러내려와 기린방면에서 흘러내리는 소양강 상류인 내린천 물에 합류하는 복잡할 것 같으면서 생기있는 듯한 곳에 위치하였다.

깨끗한 계곡에서마다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인제를 감싸고 구불 구불 흐르고 있고 물 옆으로는 태백산맥의 푸른 산들이 겹겹이로 포근하게 둘러싼 마치 새둥지속의 알 같은 느낌을 준다.

밀바닥의 돌들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강바닥의 모래가 빛날 정도로 맑은 물은 우리 고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튼 민물고기도 많고 태양도 선명하게 빛나는, 별과 달이 반짝반짝한 동화속의 꿈같은 마을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우리강산 맑고 푸르게라는 「유한김벌리(?)」정신이 아주 잘 지켜진 고향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깨끗한 마을에 사는데 사람들 역시 안그럴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좋지않은 시설때문에 교통사고는 많이 나지만 양보심 많고 봉사정신 투철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디 이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인제밖에서 눈을 씻고 찾아 본다면 50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그만큼 우리 고장 사람들은 올바른 정신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태백산맥의 일부인 산촌이라 약간의 문맹인도 있겠지만 이기심이 없고 깨끗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다. 모두가 조상께 물려받은 것이리라.

조상께 물려받은 자연환경과 정신력과 인격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인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의 문화가 있으니 문화유산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인제는 절도 많고, 향교도 있고 비, 정, 루,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동리에 위치한 강화사, 영소루, 충혼탑, 남북리에 위치한 보현사, 경로정, 박인환시비, 합강리에 위치한 합강정 등이다.

그 중에서도 영소루는 인제군·읍 상동1리 향교대문을 아래로 하고 인제중학교(우리학교)를 옆으로 하여 2층 목조로 8평 정도의 건물로 되어있다.

1967년 건립해서 1985년도에는 학생들에게 한문공부와 서예지도도 했다고 한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 났어도 영소루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런 문화유산이 많은 인제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과학과 자연이 잘 조화된 인제가 되었으면 한다.

산과 물, 몸과 마음, 맑은 공기로 숨 쉬는 군민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문화유산들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어찌면 인제는 관광도시로 알려 질 지도 모른다.

그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난 내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나의 꿈을 꼭 이룰 것이다.

인제군민들도 틀림없이 내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인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인제의 고른 숨 소리가 들리느냐고 말이다. 온 인제가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을 것이다.

옛 것이 있는 살아 있는 인제의 숨 쉬는 소리를…….

장려상

천혜의 땅에 새봄도 왔다.

신남중학교 2학년

문 해 용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활짝 기지개를 펴는 봄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봄은 아름다움과 무언가 모를 신선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절이다. 박인환 시인은 봄을 노래한 인재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다.

신남은 천혜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량의 임산 자원을 수용해, 마을 사람들이 별목한 임목을 서울 등지에 건축용 자재로 공급하여 주며 생활한다.

1957년 신남의 삼층 석탑과 석불 좌상이 소양댐 건설로 인해 인제로 옮겨진 지정문화재 43호와 호국수호와 변영을 목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한 뜻으로 세운 충혼탑, 이것들은 마을 사람들의 단결력과 문화재 보호 차원 역시 으뜸을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나라 4대 강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하천과 호수가 날이 갈수록 오염되어 전국민의 90% 이상이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약수터와 산에서 내려오는 식수가 많고 품질 역시 제일이다.

직업도 다양한 신남은 별목 작업외 송이버섯, 토종꿀을 재배해 이곳의 특산물이 되었다.

송이버섯은 1년에 5톤 환전하면 약 5억원, 토종꿀 재배 가구는 신남의 20가구 정도이다.

앞에서 말한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소유하여, 우리 고장은 다양하

고 신남은 지역에서 제일 먼저 제비가 온다는 곳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곳은 이렇게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게 되어 금상첨화가 되었다.

장려상

우리 고장

원통중학교 2학년

김 옥 남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집집마다 인심이 후하고 물이 맑으며 경치도 좋은 강원도 인제군 원통의 제주도라는 곳이다. 이 마을의 이름이 제주도인 이유는 주민들이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제주도가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제주도와 같다고 생각하여 이 이름이 붙여 졌다고 한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 원통 지역을 잘 알고 있다.

산이 사면을 둘러 싸고 있고 아침에는 첫 닭의 울음 소리와 경운기의 소리에 깨어 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작년 여름 방학때 서울에 놀러 갔었는데 그 곳은 밤에도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없었고 닭의 울음 소리 대신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듣게 된다. 서울은 정말 살아갈 만한 곳이 못 된다. 나는 서울에서 몇일간 쉬다가 우리 마을이 그리워 일찍 내려온 기억이 난다. 서울 사람들이 휴가철에 왜 이곳으로 많이 오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갈 뿐이지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 갈 뿐이다. 결국 우리 마을은 파괴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말을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을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 쓰레기 처분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 내야 할 것이다. 요즘엔 물 문제로 큰 난리인데 우리 마을도 언젠가는 깨끗한 물을 먹기 어려울 때가 올지도 모른다. '나하나 짚이야 뭐, 우리 마을을 위해 한

다고 알아 주는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은 일찍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 고장은 봄이 되면 무더기 무더기, 진달래와 개나리가 어우러져 빨강고 노랑계 수를 놓고 밭에는 파릇 파릇 새싹이 돋아 난다. 또 여름이 되면 논과 밭에는 곡식이 무럭 무럭 자라고, 들에서는 김매는 아줌마들로 바쁘다. 아이들은 냇가에서 먹을 감으며 매미를 잡느라고 신이 난다. 가을이 되면 논에서는 벼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산에는 울긋 불긋 단풍이 물들어 이 멋있는 경관을 보기 위해 설악산에 온다. 그리고 햇 곡식과 햇 과일을 걷어 들여 추석에 성묘를 간다. 그리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음식을 서로 나눠 주고 먹는다. 이것을 보면 아직 우리 마을은 인정이 메마르지 않고 골목 골목마다 따사로운 정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되면 흰 눈이 펄펄 내려 온 마을을 흰색으로 색칠하고 아이들은 눈싸움과 눈사람을 만드느라 골목이 시끌, 시끌하다. 또 눈이 온 후의 설악산 경치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이 넘친다. 난 이런 우리 고장이 아주 자랑스럽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 행복이 파괴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자연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들이 자연을 보호하면 우리 후세의 자손들이 이 고장, 이 마을에서 행복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서울 사람들이 왔다 가면 남은 쓰레기를 우리들이 곳곳에 쓰레기 통을 만들어서 그들이 버리고 그것을 청소차가 와서 가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장에 대해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 우리 고장은 의료 복지 시설 뿐 아니라 문화 시설이 부족하여 수없이 참 불편하다. 그러나 난 우리 고장을 떠나고 싶다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한 물,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속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행운아 일 것이다. 난 가끔 하늘을 보며 나의 소원을 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엇인가를 얻은 기분에 휩싸이곤 한다. 이렇게

덜렁거리고 침착하지 못한 나의 성격도 주변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마을, 고장, 국가는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게 되어 감사하고 우리 마을의 훈훈한 인심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 곳은 나의 고향이라기 보다 우리 고장 전체가 사랑스럽고 평생동안 잊지 못할 제주도 마을이 될 것이다.

향토예찬 글짓기 수상작품
○ 나 글 스 ○ 남 ○ 녀

(초 등 부)

금상

해와 함께 떠오르는 인제

인제국민학교 6학년

이 고 운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와 깊은 골짜기 높고높은 산으로 어우러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인제. 3년전 이곳은 나에게 낯선땅 이었다. 서울에서 처음 이사왔을때는 서울의 시끄럽고 복잡한 주위환경에 비해 너무 조용하고 평화스러워서 거의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에 생각도 잠깐. 높으면서 푸른 산들이 빚어내는 자연의 신비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는 맑은물, 해맑은 아침이슬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보배의 땅임을 알 수 있었다.

인제는 고려시대때 저족현이라 불리던것이 조선시대 고종 32년에 '인제'라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불리워지고 있으며 명산중에 명산인 설악산이 자리잡고 있는 태백산맥 서쪽 기슭에 산자수려한 조그만 마을이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제읍, 북면, 남면, 서화면, 기린면, 상남면에 6개의 읍·면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도상 38도선에 위치하여 38선에 경계비가 덩그러니 서 있어서 우리 민족의 남과 북의 갈라진 한과 아픔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써 빼 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인제 사람들의 후한 인심과 따뜻한 정이다.

작년 여름이었다. 그날 오후에 부모님은 급한일로 서울에 가시고 나와 동생만 남아 집을보고 있었다. "계세요!"라는 낯선 목소리가 들리길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여니 그 문 앞에는 머리에 둘러쓰신 수건아래 검게 그을리신 어떤 아주머니께서 옥수수가

가득담긴 양동이를 들고계셨다. 우리집 옆에사는 사람인데 이웃끼리는 나눠먹는 거라며 옥수수가 담긴 양동이를 두고가셨다. 순간 빨개지는 얼굴을 제대로 들수 없었다. 그동안 이웃에사는 사람조차 모르고 살았으니…….

산골삶을 꾸렸기에 시골사람의 소박함과 넉넉한 인정이 곳곳에 넘치고 있는 이곳 인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있어서 상부상조의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도심지의 사람들을 보면 조상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있었는가 싶은 인상을 주리만큼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기 바쁜데 아직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를 염려해주고, 아껴주고, 나누어주는 뜻뜻한 정이 살아 있다는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행인줄 모른다.

위 설명한 바와같이 우리 고장의 곳곳마다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인제의 미래는 그 어느 고장 보다도 희망에 차고 또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로 서서히 밝아지고 있다.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부를 키워가고 있으니 어찌 행복이 아니며 산에서 나는 고장의 특산물인 더덕, 산나물, 약초, 송이버섯 및 목공예 단지는 고장의 부를 더하여 더욱 잘사는 곳으로 만드는 소득원이 된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속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향어, 송어, 잉어 등을 양식하는 한편 열목어와 산천어의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그외에 유명한 한계산성이나, 백담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이 약 60%나 차지하고 있어 항상 관광객의 발길이 멈추질 않는다. 그리고 우리고장안에 있는 ‘리빙스톤교’라는 다리에 얽힌 전설은 38도선 경계비와 함께 6·25 사변에 빠져서린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요즘 90년도 이후로 들어서면서부터, 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안에 사철 관광객들로 구름을 형성하는 우리고장, 넓은 의미로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촉진하는 반면 미래의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될것이다.

그날을 향해서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인제는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말이다.

어느덧 봄의 따듯한 햇빛과 함께 동은 터 오르고 오늘도 우리는 찬란한 미래의 고장 인제에서 푸르른 꿈을 키운다.

금상

우리의 자랑 인제군 상남면

인제국민학교 6학년

오 주 영

저는 물이 맑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땅 인제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높은 산 아래 인제군의 일부인 상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상남은 상엄수동, 엄수동, 고석평, 방아다리, 미산 등 여러 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제군 전체는 산이 많고 또 푸르러서 공기가 매우 맑습니다. 그리고 물이 매우 깨끗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아름다운 설악산도 인제군이 6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린천이 있습니다. 내린천에는 토종 민물고기가 깨끗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산에는 나뭇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더덕과 고사리입니다. 또 몸에 좋은 송이버섯과 약초, 취나물도 많이 있어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뛰어난 경치와 깨끗한 자연환경 외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제군은 자랑거리가 또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간의 정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이웃간에 정이 아주 깊고 많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잘 압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봅니다. 인구가 적은 것도 자랑인가 봅니다. 그 이유는 범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좋은 물건을 내놓고 자도 훔쳐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인제군에는 범죄를 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또 냇가에서 공짜로 시원하게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공짜여서 그런지 더욱 시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남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저희 상남은 몸이 약한 사람이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야호’하고 외치면 산이 많아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1년 전에는 저의 상남의 자연미가 서울의 텔레비전까지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서울 밖의 전국의 사람들이 감탄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남의 자연미가 텔레비전에 나오자 이곳의 농민들과 주민들은 자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 전보다 깨끗해진 편입니다. 또 강물은 물속의 물고기들이 보일 정도로 맑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는 앞으로도 후손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상남을 감탄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개구리만큼 벌리고 감탄하도록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부터는 상남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맨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 곳은 ‘상엄수동’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보통 ‘웃엄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용소폭포’라는 전설적인 폭포가 있습니다. 그 전설이란 아주 오랜 옛날 옛적 어느 용이 이 곳에서 쉬어갔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깊이가 굉장히 깊고 폭포물이 내리치는 곳에는 동그랗게 파여 있습니다. 그 곳은 정말로 용이 쉬어갔다는 말이 낫설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가 살고 있는 ‘엄수동’으로 ‘장거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상남면 중에서 가장 시설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은 사람들의 행동이 4계절에 따라 아주 뚜렷합니다. 봄에는 어머니들께서 산나물을 뜯으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상남은 산나물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가을엔 단풍구경을 가고, 겨울엔 썰매를 타니 참 즐겁습니다.

다음에는 군인부대가 2개나 있는 ‘고석평’입니다. 고석평은 옛날 밭 가운데에 매우 큰 돌이 있었다고 해서 고석평이라 합니다. 고석평은 자연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자연의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니다.

다음은 ‘방아다리’입니다. 이 곳은 마을 깊숙히부터 내가 흐르기 때문에 땅이 매우 기름집니다. 그리고 농사도 아주 잘 됩니다.

다음에는 물이 많기로 유명한 미산입니다. 미산에는 물이 많아서 물고기도 매우 많습니니다. 또 물이 많아서 깊이가 매우 깊습니니다. 그래서인지 겉에서 보면 물이 시퍼렁습니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 상남에서 사는 나는 우리 고장이 매우 좋고 자랑스럽습니니다.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자연보호에 앞장서며 우리 고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상

아름다운 마을 한계리 !

인제국민교 6학년

김 순 영

저희 마을은 한계리 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4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마을은 마치 등지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포근한 느낌도 듭니다. 설악산을 끼고 있어서인지 푸른산들은 각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관광객이 많이 모여 듭니다.

동쪽에서 시작해 내려오는 강물은 깨끗하고 맑아 마치 수정을 보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을 북동쪽으로는 한계령이라는 고개길이 있습니다. 고개길은 양옆의 아름다운 경치로 더욱 돋보입니다. 그리고 마을 서쪽으로는 시내로 가는 작은 찾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생긴 후로는 이 마을이 많이 발전 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계 국민학교가 자리잡고 있고, 학교의 앞쪽으로는 마을 회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예단지 휴게소가 있는데 관광객이 잠시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옥녀탕이 있습니다. 그곳의 신비로움을 알기위해선지는 모르지만 관광객이 많이 이곳을 찾아 옵니다. 또한 장수대라는 터도 있는데 소나무와 어우러진 그 곳의 경치도 아름다워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는 휴식처 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낮은 산이 많이 있어서 약초를 캐거나 산나물을 뜯기가 매우 쉽습니다. 뿐더러 산나물의 맛이 독특하고, 약초는 약효가 진하여 여러 고장에 것보다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치커리라는 약초는 건강에도 좋고, 차, 물, 약술로도 이용할 수 있어 정말로 좋은 건강약초입니다. 그리고 특산물로는 고냉지 채소인 배추, 무, 감자,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을 옥수수는 맛이 더 달고, 더 고소해서 찰 옥수수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의 인심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느 동네 관광객이 찾아와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성으로 맞아주는 달콤하고 너그러운 인심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큰 자랑거리 랍니다.

은상

공해 없는 우리고장

서흥국민교 6학년

정인순

우리 고장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100명도 채 되지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웃과 이웃사이에 정이 많고 웃음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저희 고장은 무공해 고장입니다. 매년에 물든 검푸른 하늘대신 맑고 파아란 하늘이 있고, 오염된 물대신 속이 환히 비치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 그리고 동네 꼬마들까지도 모두 모여 이 날을 즐깁니다.

마을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나무에 짚을 꼬아 줄을 만들어 그네 뛰기도 하고 윷놀이도 합니다. 이긴 사람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주고 오랫동안 이집 저집 모여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는 주로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공해 쌀로서 맛과 영양가가 높다고 하여 인기가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시원한 매미소리가 기분도 상쾌하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사촌언니가 내려와서 공기도 맑고 참 좋다고 했을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고모댁에 다녀오고 나서야 사촌언니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말씀처럼 이 고장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저희 고장을 더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동상

아름다운 우리 고향

상남국민교 5학년

최 유 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사는 최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남면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 미산이 생각 납니다. 그 이유는 미산에는 여름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면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를 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끗해 집니다.

미산에 많이 찾아오는 까닭은 첫째로는 물이 맑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둘째로는 휴식을 하는데에는 공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텐트나 쉼 장소에는 미산이 딱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미산에서 조금 나오다 보면 상남면 소재지인 장거리 마을이 있습니다. 놀이 시설도 조금이지만 저희 집 같이 편히 놀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에는 가게집 문방구 등이 도시 처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잘 못보는 ‘멍멍, 멍멍’거리는 강아지

‘음메, 음메!’ 거리며 울고 있는 소, 염소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도시 아이들이 라면 우리 고향에 한번 와 보고 싶어 하겠지요?

참 여기에는 ‘용소폭포’가 있는데 강원도에 오시면 ‘상남’이라는 곳에 들리셔서 ‘용소폭포’라는 곳에 가 보세요.

후회 하시지 않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저희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날 아버지께서

“우리도 이사가야겠어!”

하고 말씀하셔서 깜짝놀랐어요.

어머니께서는

“글쎄요. 생각을 해 보아야겠어요.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맞아요. 이제는 이사가야돼요!”

“아니야, 벌써 이사가냐. 조금 더 있다가 이사 가는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해.”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런지 아무말도 못하고 멍청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야! 너도 얘기좀 해라!”

하고 말해 저는 드디어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엄마, 아빠 저는요. 이사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글쎄다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예요 아빠, 아빠가 맨처음 오자고 해서 왔더니 맨처음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하셨잖아요, 공기 좋고 물도 맑고 사람들 인정도 많고요.”

하면서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 의견을 내놓았지요. 하지만 저희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서 의견을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어휴 이사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사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데 그리고 아름다운 곳은 이곳 하나 밖에 없는데 어떻하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생각을 말 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이사 안갈거예요. 여기에는 평생 살고 싶거든요.”하고 말했지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잘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강원도로 이사가자고 하시면 꼭 오세요. 여기에는 산, 물, 공기 모두 맑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는 전국에서 최고 입니다.

이사는 못 온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러 꼭 놀러와 주세요.

동상

아름다운 우리고장

한계국민학교 6학년

정 지 윤

우리 마을은 참 깨끗하고 살기좋은 마을이다. 우리 한계리 마을은 1리, 2리, 3리로 되어있다. 각 마을이 참 아름답다.

강가에 가보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참 맑다.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인다. 그래서 여름에는 강에가서 이웃 마을사람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옆에는 나무들이 많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자리 잡고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찾아와 강에다 텐트도 치고 즐겁게 놀다 간다.

우리 마을은 자랑거리가 많다. 한계 3리에는 높고, 멋있는 대승폭포와 소승폭포 그리고 옥녀탕까지 있어서 4계절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구경도 많이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관광객들도 편안히 지내다 간다. 그리고 아침에는 공기가 더 맑고 시원해서 새들이 짹짹 거리며 날아 다닌다. 그리고 여러가지 꽃들과 동물들 또 곤충까지 있다. 또 여름 밤에는 논에서 개구리들이 울어서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을은 참 살기좋은 마을이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다 놀다가면 마을이 좀 지저분해진다. 왜냐하면 쓰레기나 음식찌거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니깐 마을이 지저분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치울 수 밖에 없는 일이어서 참 속상

하다. 점점 오염되면 안되니 제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4계절이 멋있다. 봄에는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서 꽃구경 하기에 참 좋다.

여름에는 깨끗한 강과 그리고 설악산이 있어서 구경하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좋으며 가을에는 단풍잎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온통 하얀 마을과 그리고 나무들이 참 멋있다.

나는 이런 자랑스러운 마을에 살고 있어서 참 기쁘다.

앞으로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장려상

살기좋은 우리고장

인제국민학교 6학년
이 하 나

선생님의 제안을 받은 나는 향토 예찬 글짓기를 할것을 선생님께 말씀 드렸다. 우리 인제라는 고장과 자랑거리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왔던 나는 이 고장의 대부분을 알고 있다. 농촌과 산촌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골이다.

5개의 면과 1개의 읍을 가지고 있는 인제군은 북면, 남면, 서화면, 기린면, 상남면과 내가 살고있는, 인제군의 군소재지, 읍소재지이기도 한 이곳, 바로 흙냄새와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평화롭고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곳인지 깨닫게 되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큰댁으로 놀러 갔다. 큰댁은 서울의 한가운데로 자동차가 어찌나 많이 다니는지, 아버지께선 서울에 올라 오시면 머리가 아프시다고 말씀 하시곤 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휴가철이라서 서울은 온통 자동차의 매연과 수많은 차로 북적 거렸다.

큰댁에 당도하여 나는 큰어머니께 달려가서 한 이야기가 인사 보다는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이 튀어 나왔다.

“서울은 왜 이리 복잡해요?”하고 말이다. 큰어머니 께선 나에게 침착하라고 하시곤 과일을 깎으시면서 나에게 말씀 하셨다.

“하나가 오랜만에 와서 놀란 모양이구나. 얼마전의 이곳과 지금의 이곳과는 비교가 안되지. 옆의 땅에 벌써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

서지 않았니? 자꾸 큰 도시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가 살고 있는 인제는 발달이 덜 된거야. 잘 알겠니?”

하시는 큰어머니의 말씀에 하루종일 생각에 잠겼다.

‘왜 서울로 오는 것일까? 인제도 살기는 편한데 …….’

서울에선 일주일을 있다 인제로 내려왔다. ‘서울은 진짜 정이 안 간단 말야’ 인제로 돌아온 나는 문득 서울과 인제를 비교해 보게 됐다. 정말 인제가 발달이 덜 됐다는 큰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인제는 자연환경 좋고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것은 한가지의 자랑거리, 아니 마을사람들의 인심과 정말 마을 사람으로써 신뢰 할 수 있는 편한 곳이다.

‘서울처럼 매연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약재를 키우고 농사를 하면서 또 마을 사람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인제가, 서울 보다는 발달이 늦었지만 자랑 할 거리는 많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열리는 인제군 체육대회로 인제군 사람들의 단결심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인 합강제로 조상들의 얼을 이어 받으려는 인제 군민들의 마음, 내가 이곳에 있고 싶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곳도 언젠가는 서울과 같이 되겠지 …….

미래의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

큰댁에 가기전까진 나는 다른 사람들 처럼 서울로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나도 이곳을 떠날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언제나 이곳에 있고 싶은 생각이다. 언제나 …….

장려상

아버지와 나의 고향

부평국민학교 6학년

김 영 림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되신 후로 26년 동안 전근도 안가시고 인제군에서만 근무하고 계신다.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이곳 인제는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란다. 나를 키워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러니 나를 키워 준 인제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여길 떠날 수는 없단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이 딸 부자집이라는 별명과 통하는 말씀이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일곱! 다시 말하면 칠공주집이다.

아들 손주를 바라시는 할아버지를 위해 낳고, 낳고 하다보니 딸만 일곱이 된 것이다. 딸 일곱을 낳으시는 동안 우리 어머니의 몸은 쇠약해지셔서 몹시 마르시고 어지럼증도 생겨 병원을 내집처럼 드나드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매일 같이 남전 약수를 받아 오시고 어머니도 공기 맑은 뒷산으로 산책을 다니시더니 어느 날 부터인지 병원을 찾지 않게 되셨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놀리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당신은 나 아니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지지않고 한마디 하신다.

“당신 덕이 아니라 공기 좋고 물좋은 인제 덕이겠지요”

나는 칠공주의 막내딸이다.

내 위로 여섯 언니는 모두 인제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다. 이곳에 대학이 없어 대학은 다른 고장에 다니고 있지만 언니들도 인제가 제일 좋은지 토요일마다 집에 오면 나를 데리고 산나물을 뜯으러 가거나 앞개울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 나도 내년 봄에 졸업을 하면 언니들 처럼 신남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이다. 그리고 춘천에서 대학을 마치고 선생님이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의 고향이고 나의 고향인 이곳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내 고장의 인물들을 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처럼!

장려상

아름다운 우리고장

부평국민학교 5학년

한 가 을

내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이곳 인제군 남면으로 이사 온 것은 3학년때 였다.

이사 오기 전에는 대전 신도안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그곳은 아파트도 많고 상가와 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생활하기가 좋았다. 한 학년이 7반까지 있어서 친구들도 많았고 아파트의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 역시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모여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강원도로 전출을 가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한 친구도 정든 학교도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이사가기 싫었지만 어머니께서 새로 이사 할 곳은 설악산이 가깝고 스키장도 근처에 있다고 하셔서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은 이삿짐을 싣고 신도안을 떠났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산과 나무들만 눈에 들어왔다.

‘이러다가는 북한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 드디어 다 왔다고 하셨다.

사방을 둘러보니 산과 구부러진 길, 그리고 작은 동네가 보였다.

‘아니, 이렇게 시골이야? 학교는 어디 있을까?’

짐을 푸는동안 작은 언덕에 가보니 그 밑으로 집들이 보이고 상가가 보였다. 학교 같기도 하고 면사무소 같기도 한 건물도 보였다.

바로 신남이었다. 그리고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던 곳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부평국민학교였다.

짐을 정리한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전학 수속을 하고 나는 3학년에 들어갔다. 반은 학년마다 각각 한 반 뿐이었다.

‘아이들이 무뚝뚝해 보이는데 어찌지? 선생님도 무서워 보이네.’

걱정이 되었지만 할 수 없었다.

겨우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어머니께,

“대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곳은 너무 촌이고 마음에 안들어요.”

하고 즐랐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렇단다. 조금있으면 이곳이 좋아질게다. 참아보려무나.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얼마나 좋으냐?” 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은 옳았다.

그후 친구들도 사귀고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곳은 참 좋았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친구들도 순박하여 좋았다. 더구나 설악산이 가까이 있어서 계절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했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과 감자가 이곳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몸이 약하셔서 늘 걱정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이곳으로 이사를 하신 후 몸에 살이 찌시고 건강해지셔서 병원에 자주 안가셔도 되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이면 뒷동산에 올라 “야호!” “야호!” 메아리도 부르고 체조도 하며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내 고장의 맑은 공기, 푸른산이 너무 좋다.

오늘 아침에는 뒷산에서 뼈꾸기가 울었다.

장려상

살기좋은 우리고장

서흥국민학교 6학년

공 국 성

우리가 살고있는 앞골은 인제군 서화면에 자리잡고 있는 농촌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람은 조금 살지만, 오고가는 정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유물은 없지만 특산물, 천연기념물, 민속놀이 등이 있습니다.

첫째로 특산물은 영지버섯, 두릅 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 나는 영지와 두릅은 맛이 좋아 인기가 좋습니다.

둘째로는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원앙 어름치가 있습니다.

열목어는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며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습니다. 열목어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앞골의 물이 맑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앙은 대암산 골짜기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의 천연기념물중 하나입니다. 원앙은 부부사이가 좋은 새로 유명합니다.

어름치는 맑고 깊은 물속에서 사는 고기인데, 어름치에서도 앞골 물이 맑은 물인것을 증명 합니다.

우리 동네는 강물이 맑아서 여름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맑은물과 대암산의 좋은 경치 때문에 우리 동네에 오시는 분은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해오던 민속놀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네뛰기 입니다. 그런데 제가 4학년때 동네형과 그네를 타다 그만

실수로 떨어져서 다쳐 그네뛰기를 잘 안합니다.

우리 동네는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인심좋은 고장입니다.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시게 된다면 같은 식구처럼 따뜻하게 대접해 드릴것입니다.

제 4 장

문화원 概觀

沿 革

- ▶ 1983년 6월 10일 - 인제문화원 설립위원회 위원추천
- ▶ 1983년 7월 8일 - 인제문화원 설립위원회 회의
- ▶ 1983년 8월 1일 - 인제문화원 설립 발기인 총회 및 창립총회
- ▶ 1983년 8월 16일 - 인제문화원 이사회
- ▶ 1983년 9월 29일 - 인제문화원 법인 설립인가 신청
- ▶ 1984년 2월 8일 - 법인 설립 허가
- ▶ 1984년 2월 8일 - 초대 김진용 원장 취임
- ▶ 1988년 1월 23일 - 2대 고명국 원장 취임
- ▶ 1990년 1월 12일 - 3대 오정진 원장 취임
- ▶ 1992년 1월 22일 - 4대 임광준 원장 취임
- ▶ 1993년 9월 28일 - 시범문화원 지정
- ▶ 1994년 8월 6일 -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창립총회
- ▶ 1994년 8월 10일 -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인가 신청
- ▶ 1994년 9월 12일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취득
- ▶ 1994년 10월 3일 - 지방문화원 설립등기

* 역대 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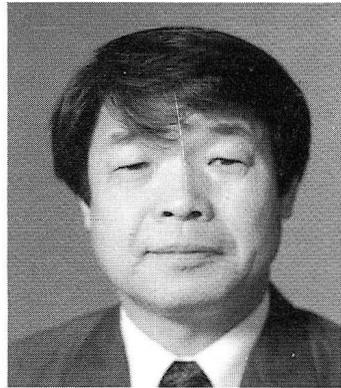
初代 金 璿 鎔
(84.28~88.1.22)



二代 高 明 國
(88.1.23~90.1.11)



三代 吳 偵 辰
(90.1.12~92.1.22)



四代 林 光 俊
(92.1.22~)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1. 지방문화원명칭 인제문화원
2. 소 재 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삼동리 346-2
3. 대 표 자
 ○ 성 명 임 광 준
 ○ 주민등록번호 360519-1340415
4. 설 립 목 적

지역사회의 계발 및 향토문화 진흥

5. 인 가 조 건 : 뒷면에 기재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1994 년 9 월 12 일

문화체육부장관

地方文化院振興法

1. 制定理由

地方文化院이 地域住民의 文化적 情緒를 함양하고 愛鄉心을 고취할 수 있는 地域文化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財政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設立·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補完함으로써 地方文化院의 機能과 役割을 活性化하여 균형있는 地域文化振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地方文化院은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할 수 있도록 하고, 그 事業區域을 市·郡 또는 自治區의 行政區域으로 하도록 함(第4條).
- 나. 地方文化院은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 갖추도록 함(第6條).
- 다. 地方文化院이 수행하는 地域文化事業을 地域固有文化의 啓發·普及·保存·傳承과 地域文化行事의 開催등으로 정함(第8條).
- 라. 地方文化院은 政治 또는 宗教活動에 干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院長은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또는 政黨의 幹部를 겸할 수 없도록 함(第11條).
- 마. 地方文化院은 地方文化院간의 相互協調와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全國文化院聯合會를 設立할 수 있도록 함(第12條).
- 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 및 全國文化院聯合會에 대하여 경비의 보조와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第15條).
- 사. 個人·法人 또는 團體는 地方文化院 및 全國文化院聯合會에 대하여 財産을 出捐 또는 寄附할 수 있도록 함(第16條).

法律 第 4718 號

地方文化院振興法

第1條(目的) 이 법은 地方文化院의 設立·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地方文化院을 健全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地域文化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正義) 이 법에서 “地方文化院”이라 함은 地域文化振興을 위한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할 目的으로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第3條(地方文化院의 육성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地方文化院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文化事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第4條(地方文化院의 設立) ①地方文化院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地方文化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地方文化院은 市·郡 또는 自治區의 行政區域을 그 事業區域으로 한다.

④文化體育部長官은 第1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設立을 認可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事業區域을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地方文化院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地方文化院의 事業區域인 市·郡 또는 自治區의 명칭이나 다른 地方文化院과 구별할 수 있는 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地方文化院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基準) ①文化體育部長官은 第4條第1항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申請內容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認可할 수 있다.

1. 會費등을 條성하는 財源의 收入으로 第8條의 目的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文化體育部長官은 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6條(施設) ①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施設중 일부를 地域住民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第7條(任員) ①地方文化院에 任員으로 院長 1人을 포함한 理事 5人 이상 30人 이하와 監事 2人을 둔다.

②院長은 地方文化院을 대표하고 地方文化院의 業務를 통할한다.

③任員은 文化體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第8條(地方文化院의 사업) 地方文化院은 다음 각호의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한다.

1. 地域固有文化의 啓發·普及·보존·傳承 및 宣揚

2. 郷土史의 調査·研究 및 史料의 蒐集·보존

3. 地域文化行事의 開催

4. 文化에 관한 資料의 蒐集·보존 및 普及

5. 地域傳統文化의 國內·外 交流

6. 地域文化에 관한 社會教育活動

7. 地域環境保存등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文化活動

8. 기타 地域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第9條(設立認可의 取消) 文化體育部長官은 地方文化院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許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立認可를 받은 때

2. 設立目的외에 사업을 한 때

3. 公益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目的事業 遂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設立認可條件 또는 이 法에 위반한 때

6. 正當한 사유없이 設立認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2年이상 事業實績이 없는 때

第10條(聽聞) 文化體育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의 相對方의 住所不明등으로 의견 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政治關與등의 禁止) ①地方文化院은 政治 또는 宗教活動에 關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地方文化院장은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또는 政黨의 幹部를 겸할 수 없다.

第12條(聯合會의 設立) ①地方文化院은 地方文化院의 均衡 發展과 地方文化院間의 相互協助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全國文化院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聯合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地方文化院의 均衡發展을 위한 調査·研究 및 지원

2. 地方文化院에 대한 文化정보·자료등의 제공

3. 國內·外 文化團體와의 協力 및 資料등의 交流

4. 地方文化院 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研修

5. 文化體育部長官이 委託한 地方文化院에 關한 事務의 처리

6. 기타 地方文化院間의 相互協助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④聯合會의 設立 및 운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第7條第3項 및 第1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第13條(指導·監督)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는 文化體育部長官이 이를 指導·監督한다.

第14條(民法의 準用)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經費의 보조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대하여 그 活動과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財産 및 施設을 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第16條(財産의 出捐등)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사업에 關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地方文化院 또는 聯合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 또는 寄附할 수 있다.

第17條(關係機關의 협조등) ①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地方文化院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때에는 그 職務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圖書館·博物館·美術館등 다른 文化施設 및 團體와 協力할 수 있다.

第18條(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文化體育部長官의 權限은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聯合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19條(條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定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後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地方文化事業造成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의 施行당시 종전의 地方文化事業造成法에 의하여 地方文化事業者로 申告된 非榮利法人과 社團法人 韓國文化院聯合會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4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文化體育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법에 의한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되는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가 承繼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의 理事 및 監事로서 이 법에 의한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의 設立후에 任期가 만료되는 者는 그 殘餘任期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되는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의 理事 및 監事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博文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중 “地方文化事業造成法”을 “地方文化院振興法”으로, “文化院”을 “地方文化院”으로 한다.

②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地方文化事業造成法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文化院을 인용한 경우에는 地方文化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 관

인 제 문 화 원

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이 법인은 인제문화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원의 사무소는 인제군 인제읍에 둔다.

제 3조[목 적] 본 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 업] 본 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 5조[수익사업] 본 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조[이익의 제공] ①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 2장 회 원

제 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 본 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인제군에 거주하고 본 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 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제 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의 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조[회원의 상벌] ① 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 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 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명, 견책 이외의 징계는 이사회에 의결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12조[임원] 본 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1인
3. 이사 11인 (원장,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 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 상호간에 제 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 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 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 17조[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으므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 1항의 경우 임직원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 1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본 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조 [운영위원 등] ① 본 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 4장 총 회

제 20조 [구 성]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경우
 3. 제 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 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 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조[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 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 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6장 재정 (재산과 회계)

제 32조[재산의 구분] ① 본 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원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4[수입금] 본 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35조[회계연도] 본 원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조[예산편성] 본 원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조[차입금] 본 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계속비] 본 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39조[결산] 본 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 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4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국

제 43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 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44조[구성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 45조[본원해산] ① 본 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된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6조[정관변경] 본 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7조[살적보고] 본 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 48조[규칙제정] 본 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중임의 기간] 제 14조 제2항 원장 임기는 현 잔여임기 만료 후부터 기산한다.

제 3조[설립자 서명] 위와 같이 문화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인제문화원 임직원



원장 임 광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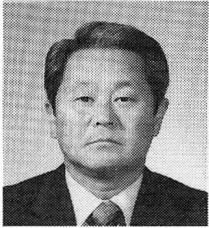
부원장 이 창 락



감사 임 성 기



감사 장 정 훈



이사 방 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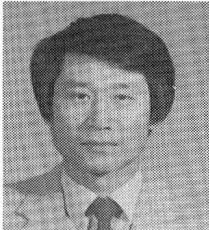
이사 심 응 섭



이사 김 진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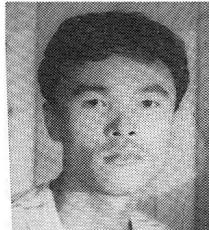
이사 김 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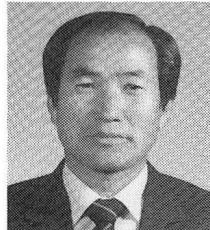
이사 박 주 화



이사 이 운 철



이사 남 정 우



이사 김 종 하



이사 오 정 진



사무국장 이 만 철



간사 장 미 향

인제문화원 회원명단

성 명	주 소
유 제 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박 명 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박 성 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송 병 선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3/6 성도아파트 나동 102호
서 성 호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성민약국
이 정 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6반
심 준 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2반
홍 영 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1리 4반
손 연 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손지연외출준비미용실-
임 정 숙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바하음악학원-
임 규 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349-6
허 세 균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1리 4반
문 원 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4리 5반
최 성 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5반
최 태 흥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2반
김 영 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군인관사 22호
한 상 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차 애 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6반 군인아파트 206호
최 병 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6반

성 명	주 소
한 성 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6반
장 정 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7반
김 규 중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1반
조 해 숙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4리 10반
이 정 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7반
이 우 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교원아파트 203호
한 용 운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1반
이 순 복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201호
이 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2리 1반
김 신 향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2리 1반
성 흥 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2리 1반 “한일정식당”
김 실 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1리 3반
문 정 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2리 2반
최 광 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4반
김 기 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우신아파트 1101호
최 태 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 골든빌라 301호
김 두 성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4반
오 성 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2반
허 병 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8반
김 종 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1반
박 현 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1반

성 명	주 소
이 규 형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고등학교
이 상 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4반
전 성 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2반
심 정 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1반
최 경 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4반
이 미 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전 영 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5반
김 은 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2반
민 종 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2반
김 종 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1리 4반
이 강 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연립 110호
김 장 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신연립 202호
김 영 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1리
김 봉 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대암석공
정 광 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1반

94년도 문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일시(기간)	장 소	참석인원	예 산	비고
대보름맞이웃놀이대회	94.2.24	인제읍노인회	200명	685	
향토사연구및사료집발간	3월-6월	향토사	500부	2,840	
서예교실운영	1월-12월	문화관	1회/30명	2,525	
풍물강습교실운영	2월-8월	문화관	1회/20명	1,260	
수지침강좌교실운영	1월-8월	문화원	1회/20명	1,570	
마을농악기보급	94.3.19	문화원	5개마을	2,380	
문화유적지순례	5월-10월	관내유원지	160명	1,300	
향토예찬글짓기공모	94.5.30	관내학교	24명시상	300	
청소년문화강좌	94.6.29	문화관	200명	440	
향토사료수집	3월-8월	관내	30점	700	
장수상시상	94.5.8	인제읍노인회	200명	1,150	
사생실기대회	94.5.5	충혼탑	250명	795	
단오절민속놀이대회	94.6.13	인제읍노인회	300명	1,820	
합창단육성사업	94.6.17	문화관	51명	500	
민속예술발굴	7월-9월	관내	59명	500	
합강문화제예술행사	94.9.9	문화관	800명	4,400	
문화강좌	94.11월	문화관	2회/300명	460	
효행상시상	94.11.26	문화원	50명	540	
애향운동전개	94.12.19	문화원	50명	780	
내설악사진전	94.11월	문화관	500명	1,240	
문화지발간	94.12.30	문화원	1,500부	5,000	
계				31,185	

95년 문화사업 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시 기	장 소
전통문화 계승발전	대보름맞이웃놀이대회	2월	인제읍 노인정
	마을농악기보급	3월	문화사랑방
	문화유적지순례	4월	관내의 유적지
	단오절민속놀이대회	6월	인제노인정
	민속사료수집	7월	관 내
	민속예술발굴	8월	관내
애향운동전개	관광·명승지찾기	10월	관 내
	인제문화지 발간	12월	문화원
지역문화개발	노래교실운영	년중계속	문화사랑방
	합창단육성	6월	문화사랑방
	합강문화제 예술행사	9월	문화관 및 야외
	문화의 달 예술행사	10월	문화사랑방
지역사회교육	서예교실운영	년중계속	문화관 서예실
	좋은 비디오보기 운영	년중계속	문화사랑방
	기타 강습실 운영	년중계속	문화사랑방
	풍물강습교실 운영	년중계속	문화사랑방
경노효친 사상선양	경노효친 글짓기공모	5월	관내초,중,고교생
	효행상시상	5월	인제읍 노인정

~~~~~ 編 輯 後 記 ~~~~~

돌이켜 보건데 엇그제 창간호를 편집하고 그로부터 2집, 3집 편집을 더해가며 향토문화를 기록하고 소식을 담아 전해져 오던 「인제문화」지가 올 해로써 아홉 살의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동안 명실상부한 책으로 가꾸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부터 보내주신 옥고와 편집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년년히 발간하여 왔지만 매회마다 편집을 마치고 돌아서 보면 새로운 변신의 발전은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새로운 발전이 오리라 기대를 갖고서 좀 더 긍지와 희망을 추구하며 사명과 집념을 다짐해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금번에도 인제문화 제9집을 폭넓은 책으로 꾸미고자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이 만 철

「인제군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友岩 李載華 先生
敬老 頌德碑

소재지 :
인제군 북면 한계1리

✧ 「인재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



국 제 장

(0365) 461-6254

● 깨끗한 시설 ● 친절한 서비스 ● 대형주차장 완비

우 진 건 설

(0365) 461-6822~3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2리

대표 이 국 한



인 제 쉼 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

☎ (0365) 461-1551

♣ 「인제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



신 남 휴 계 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88-15

민 호 식

☎ (0365) 461-6025, 7010, 6379



인제농협	조합장	최병열	461-2570
	전 무	박주호	461-2571
원통지소	지소장	권원희	461-3100
서화지소	지소장	국정기	462-4010
귀둔지소	지소장	지영철	461-4680

♣ 「인제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



기린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2리 418번지 ☎ (0365) 461-5016, 5022
 조합장 / 박 유 정 전무 / 전 현 진 상남지소장 / 김 용 규



인제 축산업 협동조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62번지 ☎(0365) 461-0411, 2801, 2435
 조합장 / 원 현 성 전무 / 허 상 구

♣ 「인제신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



인제 신용 협동조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0365) 461-2186, 4355, 4356
 대표이사 / 이 성 재 전 무 / 김 수 훈



인제 새마을금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0365) 461-2722
대표이사 박 일 섭 과장 장 기 룡

♣ 「인제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



원통마을금고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710-5번지 ☎(0365) 461-3251
대표이사 곽 용 상



(株) 相一食品

江原道 麟蹄郡 麟蹄邑 南北里 311

☎ (0365) 461-2351, 2352, 2254

代表 丁斗鎰

♣ 「인제군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



설악산수 회사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9-12

TEL : (02)547-5242 ~ 4, (02)542-6762 ~ 3

FAX : (02)551-4700

공장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8-2

TEL : (0365) 461-1820 ~ 2, 4

FAX : (0365) 461-1823

태고의 신선함을 설악산수로 느껴보십시오.



명진농장

MYEUNG JIN FARM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3리 1359-9

TEL:(0365) 461-5194 FAX:(0365) 461-0531

♣ 「인제문화」 발간을 축하합니다. ♣



인제세브란스의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0365) 461-4063/4064

원장 김민수

麟蹄文化 / 第九輯

발행인 : 임 광 준
편집인 : 이 만 철
발행처 : 인 제 문 화 원
전화 : (0365) 461-6678
F A X : (0365) 461-4173
인쇄처 : 태 원 출 판 사
인쇄 : 1994. 12. 20
발행 : 1994. 12. 30

〈비매품〉

이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발간하였습니다.

